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4권 (제37회 ~ 제48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37회 — 사마휘가 명사를 다시 추천하고, 유현덕이 초려를 세 번 찾아가다 6

제38회 — 삼분지계를 정하기 위해 융중에서 책략을 세우고, 장강에서 손씨 가문과 싸워 원수를 갚다 26

제39회 — 형주성 공자가 세 번이나 계책을 구하고, 박망파에서 군사가 처음으로 군사를 부리다 45

제40회 — 채부인이 형주를 바칠 것을 의논하고, 제갈량이 신야를 불태우다 65

제41회 — 유현덕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조자룡이 홀로 말을 달려 주군을 구하다 84

제42회 — 장익덕이 장판교에서 크게 소란을 피우고, 유예주가 한진구로 패하여 달아나다 107

제43회 — 제갈량이 혀로 여러 유학자와 싸우고, 노자경이 힘써 여러 의견을 물리치다 124

제44회 — 공명이 지혜를 써서 주유를 격분시키고, 손권이 계책을 결정하여 조조를 격파하다 144

제45회 — 삼강구에서 조조가 병사를 잃고, 군영회에서 장간이 계책에 빠지다 164

제46회 — 기묘한 계책으로 공명이 화살을 빌리고, 비밀스러운 계책을 바쳐 황개가 형벌을 받다 185

제47회 — 감택이 비밀리에 항복 서신을 바치고, 방통이 교묘하게 연환계를 전수하다 207
제48회 — 장강에서 연회를 베풀며 조조가 시를 짓고, 전선을 쇠사슬로 묶으니 북군이 위력을 떨치다..... 225

제37회 — 사마휘가 명사를 다시 추천하고, 유현덕이 초려를 세 번 찾아가다

司馬徽再薦名士 劉玄德三顧草廬

한편, 서서는 길을 재촉하여 허창으로 갔다. 서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즉시 순욱과 정욱 등 모사들을 보내 그를 맞이하게 했다. 서서가 조조의 관저에 들어가 조조를 뵙자,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지혜롭고 뛰어난 선비인데, 어찌하여 유비 같은 사람을 섬기며 몸을 낮추었소?"

서서가 대답했다.

"제가 어릴 적 난리를 피해 떠돌다 우연히 신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신 노모를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차에,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송구하고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조가 다시 말했다.

“그대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효도를 다할 수 있겠구려. 나 또한 그대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오.”

서서는 절을 올리고 물러나온 뒤, 급히 어머니를 찾아가 방 안에서 울며 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서서가 대답했다.

"최근 신야에서 유비 예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서모는 불같이 화를 내며 탁자를 치고 꾸짖었다.

"네가 강호를 떠돌며 수년 동안 고생할 때, 나는 네 학문이 깊어졌을 줄 알았거늘, 어찌하여 예전보다 못한 것이냐! 네가 글을 읽었다면 충성과 효도를 동시에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마땅히 알았어야 했다. 조조가 임금을 속이는 도적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유비는 인의를 온 세상에 펼치고 있는 데다, 하물며 한나라 황실의 후예가 아니냐. 네가 이미 그를 섬겼으니 참된 주군을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가짜 편지 한 장에 속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밝은 곳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드니, 스스로 악명을 자처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도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를 보겠느냐! 너는 조상을 욕보였으니, 천지 사이에 헛되이 태어난 것이로구나!"

어머니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서서는 바닥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스스로 병풍 뒤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집안사람이 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노부인께서 대들보에 목을 매셨습니다!” 서서가 황급히 달려가 구하려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훗날 어떤 이가 서서의 어머니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어진 서서의 어머니시여! 그 이름 천년토록 빛나리! 절개를 지킴에 허물이 없고, 집안에 보탬이 되었네. 자식을 여러모로 가르치고, 스스로는 고통을 감내하셨네. 그 기개는 높은 산과 같고, 그 의리는 폐부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네. 예주를 찬미하고, 위 무제(조조)를 꾸짖어 거슬렀으며, 끓는 가마솥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과 도끼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오직 후손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힐까 걱정했을 뿐이라. 검에 엎드려 자결한 (왕릉의) 어머니와 한 부류요, 베틀을 끊어 자식을 가르친 (맹자의) 어머니와 짝할 만하네. 살아서 그 명성을 얻었고, 죽어서 마땅한 자리를 얻었도다. 어진 서서의 어머니시여! 그 이름 천년토록 빛나리!”

서서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땅이 꺼져라 통곡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조조는 사람을 보내 조의를 표하게 하고,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주기까지 했다. 서서는 어머니의 관을 허창 남쪽 벌판에 묻고, 상을 치르며 무덤을 지켰다. 조조가 내린 모든 물건을 서서는 일절 받지 않았다.

이때 조조는 남쪽으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자 순욱이 간언했다. "날씨가 아직 추우니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 봄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기세를 몰아 크게 진격하십시오." 조조가 이 말을 따랐다. 조조는 장하의 물을 끌어와 연못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현무지라 불렀으며, 그곳에서 수군을 훈련하며 남정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융중으로 떠날 채비를 하며 예물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문밖에 아주 기품 있는 선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관모를 쓰고 띠를 두른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 특별히 뵙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유비가 "혹시 그분이 제갈량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얼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 그분은 다름 아닌 사마휘였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안채로 모셔 상석에 앉히고는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제가 선생님을 뵌 이후로 군무가 바빠 차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오랫동안 사모해 온 마음이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사마휘가 말했다. "서서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한 번 만나러 왔네." 유비가 대답했다. "최근에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서의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 급히 허창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써서 서서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마휘가 말했다. "그것은 조조가 꾸민 계략이라네! 내가 듣기로 서서의 어머니는 매우 현명한 분이라, 비록 조조에게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아들에게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네. 그 편지는 분명 조조가 속임수를 쓴 것이야. 서서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라도 살아계셨겠지만, 이제 서서가 떠났으니 어머니는 필시 돌아가시고 말 것이네."

유비가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사마휘가 말했다. “서서의 어머니는 의리가 높으신 분이라, 아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셨을 것이오.”

유비가 다시 물었다. “서서가 떠나기 전에 남양의 제갈량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휘가 웃으며 대답했다. “서서가 떠나고 싶으면 그냥 떠나면 될 것을, 어찌하여 굳이 그 사람까지 끌어들여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오?”

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마휘가 설명을 이어갔다. “제갈량은 보릉의 최주평, 영천의 석광원, 여남의 맹공위와 함께 서서까지 네 사람이 아주 친한 벗이라오. 이 네 사람은 모두 학문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데 힘썼지만, 오직 제갈량만이 큰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다네. 한번은 제갈량이 무릎을 안고 길게 읊조리더니, 네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 ‘그대들이 관직에 나아간다면 자사나 태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오.’ 사람들이 제갈량의 뜻은 무엇인지 묻자, 제갈량은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네. 그는 늘 스스로를 관중이나 악의에 비유하곤 했으니, 그 재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네.”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영천 땅에는 참으로 현인이 많군요!”

사마휘가 말했다. “옛날에 천문을 잘 살피던 은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별들이 영천 쪽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땅에는 반드시 현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한 적이 있다네.”

곁에 있던 관우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관중과 악의는 춘추전국시대의 명인들로, 그 공적이 온 세상을 덮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이 스스로 이 두 사람에 비유한다면, 조금 과한 것이 아닙니까?”

사마휘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네. 나는 다른 두 사람에 비유하고 싶네.”

관우가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사마휘가 말했다. “주나라를 800년 동안 일으킨 강자아와 한나라를 400년 동안 번창하게 한 장자방에 비유할 만하다네.”

모두가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마휘는 계단을 내려가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 했다. 유비가 붙잡았으나 끝내 가지 못했다. 사마휘는 문을 나서며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와룡이 비록 주군을 얻었으나, 때를 얻지 못했으니 참으로 아쉽구나!” 말을 마친 그는 홀연히 떠나버렸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참으로 은거하는 현자이시로다!”

다음 날, 유비는 관우, 장비, 그리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융중으로 향했다. 산기슭을 멀리 바라보니 몇 사람이 쟁기를 메고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푸른 하늘은 둥근 덮개 같고, 넓은 땅은 바둑판 같구나. 세상 사람들은 흑과 백으로 나뉘어, 오가며 영광과 치욕을 다투네. 영광을 누리는 자는 절로 편안하고, 치욕을 겪는 자는 고달프구나. 남양에 은거하는 이 있어, 베개 높이 베고 누워도 잠이 늘 모자란 듯 실컷 자네.”

유비가 노래 소리를 듣고 말을 멈춰 세우더니, 농부에게 물었다. "이 노래는 누가 지은 것이오?" 농부가 대답했다. "와룡 선생께서 지으신 노래입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와룡 선생은 어디에 사시는가?" 농부가 말했다. "이 산 남쪽으로 이어진 높은 언덕들이 바로 와룡강입니다. 그 언덕 앞 숲속 초가집이 바로 제갈 선생께서 누워 계시는 곳이지요." 유비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몇 리쯤 가니 멀리 와룡강이 보였는데, 과연 그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아름다웠다. 후대의 어떤 이가 옛 풍의 시 한 편을 지어 와룡의 거처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양양성 서쪽 이십 리, 흐르는 물을 베개 삼은 높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네. 굽이치는 언덕은 구름에 닿을 듯하고, 흐르는 물은 바위 사이로 맑게 솟구치네. 그 기세는 바위 위에 엎드린 용 같고, 모습은 소나무 아래 홀로 앉은 봉황 같구나. 사립문은 반쯤 닫혀 초가집을 감싸고, 그 안에는 고결한 선비가 누워 깨어나지 않네. 대나무 숲은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사계절 울타리 사이엔 들꽃 향기 가득하네. 침상 머리엔 노란 책들이 쌓여 있고, 찾아오는 이들은 모두 학식 높은 선비들이라. 집을 두드리는 원숭이는 과일을 바치고, 문을 지키는 늙은 학은 밤새 경전을 듣네. 품 안에는 명금과 고금의 비단이 있고, 벽에는 보검이 소나무 무늬에 빛나네. 초가집 속 선생은 홀로 고고하고 우아하여, 한가할 때면

직접 농사일도 돌보시네. 봄천둥 소리에 꿈 깨어 일어나, 긴 휘파람 한 번으로 천하를 평안케 하리라."

유비가 장원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직접 사립문을 두드리자, 한 아이가 나와 물었다. 유비가 말했다. "한나라 좌장군이자 의성정후이며 예주목을 맡고 있는 황숙 유비가 선생을 뵙고자 찾아왔다." 아이가 대답했다. "그런 긴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그저 유비가 찾아왔다고만 전해다오."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어디로 가셨느냐?" 아이가 답했다. "어디로 가셨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언제쯤 돌아오시느냐?" 아이가 말했다. "돌아오실 때도 알 수 없습니다. 사나흘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 남짓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비는 아쉬운 마음에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돌아갑시다." 유비가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관우도 거들었다. "차라리 돌아간 뒤에 다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비는 그 말에 따라 동자에게 당부했다. "만약 선생께서 돌아오시면, 유비가 찾아왔었다고 전해라."

유비는 말을 타고 몇 리를 가다가 다시 말을 멈추고 융중의 경치를 돌아보았다. 과연 산은 높지 않으면서도 수려하고 우아했으며, 물은 깊지 않으면서도 맑고 깨끗했다. 땅은 넓지 않으나 평탄했고, 숲은 크지 않으나 울창했다. 원숭이와 학이 서로 어우러지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푸른 빛을 뽐내니,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보이는데,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준수했다. 머리에는 소요건을 쓰고 검은 비단 도포를 입은 채, 지팡이를 짚고 산속의 외진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유비가 말했다. "저분이야말로 필시 와룡 선생이 분명하다." 유비는 급히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물었다. "선생께서 혹시 와룡 선생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누구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유비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공명이 아니라 공명의 벗인 박릉의 최주평이라고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명성을 익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잠시 앉아 제 가르침을 한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숲속 바위 위에 마주 앉으니, 관우와 장비가 그 곁에 시립하고 있었다. 최주평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제갈량을 만나려 하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요즘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사방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제갈량을 만나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다스릴 방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최주평이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 혼란을 잠재우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시니 참으로 어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일정하지 않은 법입니다. 한 고조가 뱀을 베며 의병을 일으켜 무도한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는 혼란 속에서 다스려짐으로 들어갔으나, 애제와 평제 시절의 이백 년 동안 태평성대가 길어지자 왕망이 반역을 일으켜 다시 다스려짐에서 혼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광무제가 중흥하여 기틀을 다시 세우니 다시 혼란에서 다스려짐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이백 년이 흘러 백성들이 오랫동안 평안했으니, 다시 전쟁의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다스려짐에서 혼란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니, 성급히 결판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제갈량에게 천지의 흐름을 조절하여 무너진 세상을 보수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것이며, 헛되이 마음과 힘만 쓰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편안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고달프다'는 말과, '운명이 정해진 곳은 이치로도 빼앗을 수 없고, 명운이 머무는 곳은 사람이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참으로 높은 식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거늘, 어찌 제 운명과 명운을 그저 하늘에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최주평이 대답했다. "산골에 사는 선비가 어찌 천하의 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귀한 질문을 주셔서 주제넘게 한두 마디 보태 보았습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선생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혹 아십니까?"

최주평이 말했다. "저도 그를 찾아 나서려던 참인데,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비가 제안했다. "선생께서 저희 현으로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주평이 대답했다. "저는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공명을 세울 생각은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말을 마친 최주평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떠나갔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말에 올라 길을 나섰다.

장비가 투덜거렸다. "제갈량을 만나려다 실패하더니, 고리타분한 선비나 만나서 한참 동안 헛소리만 나누었군요!"

유비가 나무라며 말했다. "그분도 은거하는 선비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니 그리 말하지 마라."

세 사람이 신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의 동태를 살피게 했는데,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와룡 선생께서 집으로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비는 즉시 말을 준비시켰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제갈량은 그저 시골뜨기일 뿐인데, 형님께서 왜 직접 가려 하십니까? 사람을 시켜 불러오면 그만이지요.”

유비가 엄하게 꾸짖었다.

“너는 맹자의 말을 듣지 못했느냐? ‘어진 이를 만나고자 하면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가 들어오려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제갈량은 이 시대의 큰 어진이거늘, 어찌 함부로 불러 올 수 있겠느냐?”

유비는 말을 타고 다시 제갈량을 찾아 나섰고, 관우와 장비도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다.

때는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고 붉은 구름이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몇 리 가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북풍이 매섭게 불어닥치더니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산은 옥꽃처럼 보이고 숲은 은빛 침상처럼 보일 정도였다.

장비가 말했다. “날씨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아직 군사를 움직이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이득도 안 될 사람을 만나러 멀리까지 가려 하십니까? 차라리 신야로 돌아가 눈보라를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지금 공명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추위를 타는 것이 걱정된다면 먼저 돌아가도 좋다.”

장비가 말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추위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다만 형님이 헛되이 마음만 쓰실까 걱정될 뿐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잔말 말고 그냥 같이 가자꾸나.”

초가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문득 길가 주막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는 즉시 귀를 기울여 그 노래를 들었다. 노래 내용은 이러했다.

"장사가 공명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 아아, 봄볕(때)을 만난 지 오래로구나.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동해의 늙은이(강태공)가 가시덤불을 떠나, 뒷수레에 올라 마침내 문왕과 가까워진 것을? 팔백 제후가 기약 없이 모이고, 흰 물고기가 배에 뛰어든 가운데 맹진을 건넌 것을? 목야의 한 전투에서 피가 절굿공이를 띄우고, 매처럼 떨친 위대한 공렬이 무신의 으뜸이 된 것을? 또한 보지 못하였는가, 고양의 술꾼(역이기)이 초야에서 일어나, 망탕산의 융준공(코가 우뚝한 한 고조 유방)에게 길게 읍하던 것을? 왕도와 패도를 논하는 높은 말이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하니, (유방이) 발 씻기를 멈추고 자리로 맞아 그 영웅의 풍모를 공경한 것을? 동쪽으로 제나라 일흔두 성을 항복시켰으니, 천하에 그 자취를 이을 자가 없구나. 이 두 사람이 성스러운 천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누가 다시 그들을 영웅으로 알아보겠는가?"

노래가 끝나자, 또 한 사람이 탁자를 두드리며 노래하니 그 가사는 이러하다.

우리 임금님 칼을 들고 온 세상을 맑게 하셨고, 나라를 세워 사백 년의 기틀을 닦으셨네.
환제·영제의 말세에 한나라의 화덕(火德)이 시들어 가니, 간신과 적자가 국정을 농단하네.
푸른 뱀은 옥좌 곁으로 날아 내려오고, 요사스러운 무지개는 대궐에 나타나니.
사방의 도적들은 개미 떼처럼 모여들고, 간악한 영웅들은 독수리처럼 기세를 떨치네.

우리 같은 이들은 허공에 긴 휘파람만 불며 부질없이 손뼉치고, 답답한 마음 달래려 마을 주막에서 마을 술이나 마시네.
그저 몸 하나 잘 보존하며 하루를 평안히 지내면 그뿐, 어찌 천 년을 전할 이름을 남기려 하겠는가?

두 사람이 노래를 마치고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유비가 물었다. “와룡 선생께서 혹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고는 말에서 내려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주막 안에는 두 사람이 탁자에 기대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위쪽에 앉은 이는 얼굴이 희고 수염이 길었으며, 아래쪽에 앉은 이는 기품 있고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유비가 읍을 하며 물었다. “두 어른 중 어느 분이 와룡 선생이십니까?” 수염이 긴 사람이 말했다. “그대는 누구인데 와룡을 찾으려 하는가?” 유비가 대답했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선생을 찾아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수염이 긴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와룡이 아니라 모두 와룡의 벗이라네. 나는 영천 출신의 석광원이고, 이 분은 여남 출신의 맹공위라네.” 유비가 기뻐하며 말했다. “두 분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뜻밖에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마침 수행하는 말들이 밖에 있으니, 부디 두 분께서 저와 함께 와룡장으로 가셔서 담소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석광원이 말했다. “우리는 그저 산야에 은거하며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일 뿐이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알지도 못하네. 그러니 굳이 우리에게 물을 필요 없네. 명공께서는 직접 말을 타고 와룡을 찾아가 보시게.”

유비는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말에 올라 와룡강으로 향했다. 장원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린 유비가 문을 두드리며 동자에게 물었다.

"선생께서 오늘 장원에 계시는가?"

동자가 대답했다.

"지금 대청에서 글을 읽고 계십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동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에 이르자 문 위에는 '담박한 마음으로 뜻을 밝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라'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유비가 그 글귀를 읽고 있는데 문득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가 문 옆에 서서 살짝 들여다보니, 초가집 안에서 한 젊은이가 화로를 끼고 무릎을 모아 앉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었다.

"봉황이 천 길 높이의 하늘을 날아다녀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선비가 한곳에 엎드려 머물러도 주군이 아니면 의지하지 않네. 밭을 갈며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과 내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문고와 책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며 때를 기다리노라."

유비는 소년의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초당으로 올라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제가 오래전부터 선생을 흠모해 왔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뵙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서서의 추천을 받고 이 선장의 예법을 갖추어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보라를 뚫고 찾아와 선생의 풍모를 뵐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만행입니다!"

소년이 황급히 답례하며 물었다. "장군께서 혹시 유비 예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형님을 만나러 오셨나요?"

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럼 선생께서 혹시 와룡 선생이 아니란 말이냐?"

소년이 대답했다. "저는 와룡의 동생인 제갈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형제 세 명 중 큰형인 제갈瑾은 현재 강동의 손권을 섬기며 막료로 일하고 있고, 제갈량은 저희의 둘째 형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와룡 선생은 지금 집에 계시는가?"

제갈균이 말했다. "어제 최주평과 약속이 있어 밖으로 한가로이 유람을 떠나셨습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어디로 유람을 가셨는가?"

제갈균이 답했다. "작은 배를 타고 강호의 물결 위를 노닐기도 하시고, 산등성이에서 승려나 도사를 찾아가기도 하시고, 마을 사이를 다니며 친구를 찾기도 하십니다. 혹은 동굴 안에서 거문고를 타거나 바둑을 두기도 하시지요. 오가는 행방을 가늠할 수 없어 어디로 가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 유비는 어찌 이리도 인연이 얕아, 이 대현을 두 번이나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제갈균이 말했다. "잠시 앉으시지요. 차를 올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장비가 말했다. "형님, 선생이 안 계시니 어서 말에 올라 돌아갑시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겠느냐?" 그러고는 제갈균에게 다시 물었다. "듣기로 형님인 와룡 선생께서 병법과 전략에 매우 밝으시어 매일 병서를 읽으신다는데, 혹시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겠느냐?"

제갈균이 답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가 재촉했다. "물어봐야 뭐 합니까! 눈보라가 심하니 얼른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유비가 장비를 꾸짖어 말리자, 제갈균이 말했다. "형님이 안 계시니 차마 군사와 말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면 그때 정식으로 답례를 올리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선생께서 귀한 걸음을 하시게 할 수는 없지요. 며칠 뒤에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부디 종이와 붓을 빌려주시오. 형님께 편지를 남겨 유비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소."

제갈균이 문방사우를 내어왔다. 유비는 얼어붙은 붓을 녹여 펼쳐진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다.

"유비는 오래전부터 선생의 높은 명성을 흠모해 왔습니다. 두 번이나 찾아뵈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니, 그 허탈함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저 유비는 한나라의 후예로서 이름뿐인 관직

을 누리고 있으나, 조정은 쇠락하고 기강은 무너졌으며, 영웅들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악당들은 임금을 속이니,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비록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정성은 간절하나, 세상을 다스릴 방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생께서 인자하고 충의로운 마음으로 여망과 같은 큰 재능을 펼치시고, 장자방과 같은 원대한 계책을 펼쳐 주신다면, 천하와 이 나라에 참으로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마음을 전하오니, 부디 저의 간절함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비는 글을 다 쓰고 제갈균에게 건네준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제갈균이 배웅을 나오자 유비는 거듭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유비가 막 말에 올라 길을 떠나려는데, 문득 울타리 밖에서 한 아이가 손을 흔들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유비가 살펴보니, 작은 다리 서쪽에서 한 사람이 따뜻한 모자를 쓰고 여우 가죽옷을 몸에 두른 채 나귀를 타고 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푸른 옷을 입은 어린 동자가 술 호리병을 들고 눈을 밟으며 따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작은 다리를 건너오며 시 한 수를 읊조렸다.

"밤새 북풍은 차갑게 불고, 만 리 밖 붉은 구름은 두터운데. 넓은 하늘에 눈이 어지러이 날리니, 강산의 옛 모습이 모두 바뀌었구나. 고개 들어 허공을 바라보니, 마치 옥룡이 싸우는 듯하네. 흩날리는 비늘 갑옷이 눈송이가 되어, 순식간에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나귀 타고 작은 다리 건너며, 홀로 매화의 여윈 모습 탄식하노라."

유비가 노래 소리를 듣고는 "이분이 바로 와룡이라 불리는 분이로구나!"라며 감탄했다. 유비는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선생님,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비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하며 나귀에서 내려 예를 표했다. 뒤에 있던 제갈균이 말했다. "이분은 와룡이라 불리는 저희 형님이 아니라, 저희 형님의 장인인 황승언 어른이십니다." 유비가 말했다. "방금 읊으신 시 구절이 참으로 높고 오묘합니다." 황승언이 대답했다. "노부가 사위 집에 머물며 《양부음》을 읽다가 그 구절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마침 작은 다리를 지나는데 울타리 사이로 매화가 보여 감흥이 일어 읊었을 뿐인데, 귀한 손님께서 들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혹시 현명한 사위를 뵌 적이 있습니까?" 황승언이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사위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황승언에게 작별을 고한 뒤 말을 타고 돌아갔다. 마침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는데, 유비는 와룡강을 뒤돌아보며 끝없는 아쉬움에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훗날 어떤 이가 유비가 눈보라를 뚫고 제갈량을 찾아갔던 일을 시로 읊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하늘에 눈보라 휘몰아쳐 현자를 찾아 나섰으나,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니 마음만 허망하구나. 계곡 다리는 얼어붙고 산길은 미끄러운데, 추위는 말과 안장까지 파고들고 길은 아득히 멀구나. 머리 위로는 배꽃 같은 눈송이 떨어지고, 얼굴 앞에는 버들강아지 같은 눈가루 날리네. 고삐를 멈추고 뒤돌아 멀리 바라보니, 은빛 눈더미가 와룡강에 가득 쌓였구나."

유비가 신야로 돌아온 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다시 새봄이 찾아왔다. 유비는 점술가를 불러 길일을 택하게 한 뒤, 사흘 동안 재계하며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룡강으로 제갈량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관우와 장비는 기분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이 함께 유비에게 나아가 간언했다.

과연 고현은 영웅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개를 굽혀 뛰어난 인재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의 말이 어떠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38회 — 삼분지계를 정하기 위해 융중에서 책략을 세우고, 장강에서 손씨 가문과 싸워 원수를 갚다

定三分隆中決策 戰長江孫氏報讎

한편, 유비는 제갈량을 두 번이나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다시 한번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형님, 이미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 뵈었으니 그 예우가 너무 지나칩니다. 제갈량은 실력은 없으면서 이름만 높은 사람이라, 만나기를 꺼리며 감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옛날 제나라 환공이 동곽의 은자를 만나기 위해 다섯 번이나 찾아간 끝에 겨우 얼굴을 마주한 일이 있다. 하물며 나는 큰 현자를 만나려는 것 아니냐?"

그러자 장비가 끼어들었다.

“형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그저 시골뜨기 같은 사람을 두고 어찌 큰 현자라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형님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끌고 오겠습니다!”

유비가 장비를 꾸짖었다.

“너는 주나라 문왕이 강자아를 찾아갔던 일을 듣지 못했느냐? 문왕조차 그토록 현자를 공경하였거늘, 너는 어찌 이리도 예의가 없느냐! 이번에는 너는 가지 마라. 나 혼자 관우와 함께 가겠다.”

장비가 말했다.

“두 형님이 다 가시는데, 제가 어찌 뒤에 처져 있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네가 함께 가려거든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장비가 대답했다. 이에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융중으로 향했다. 초가집에서 반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자, 유비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는데 마침 제갈균을 만났다. 유비는 급히 예를 갖추며 물었다. "형님께서는 지금 장원에 계십니까?" 제갈균이 대답했다. "어제저녁에 막 돌아왔으니, 장군께서는 오늘 뵙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제갈균은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다. 유비가 말했다. "이번에 운 좋게 선생을 뵙게 되었구나!" 그러자 장비가 투덜거렸다. "저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군요! 우리를 장원까지 안내해도 괜찮을 텐데, 왜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까!" 유비가 타일렀다. "그에게도 각자 할 일이 있을 텐데, 어찌 억지로 붙잡겠느냐?"

세 사람은 장원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동자가 물었다.

"유비가 선생님을 뵙고자 찾아왔으니, 부디 전해주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수고스럽겠지만, 선생님께 전해주게."

동자가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오늘 집에 계시기는 하나, 지금 초당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중이라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렇다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괜찮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일러두고, 홀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초당 안을 보니 선생님이 평상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유비는 계단 아래에 서서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제갈량은 깨어나지 않았다. 관우와 장비가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유비가

여전히 곁에서 모시는 듯 서 있었다. 이를 본 장비가 크게 화가 나서 관우에게 말했다.

"이 선생은 어찌 이리 오만방자한가! 우리 형님이 계단 아래에서 모시고 있는데, 저렇게 높이 누워 잠만 자고 일어나려 하지 않으니 말이야! 내가 당장 저 집 뒤로 가서 불을 질러버릴 테니, 그때도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관우가 몇 번이고 말리며 만류했다. 유비는 여전히 두 사람에게 문밖에서 기다리라고 명했다. 두 사람이 대청을 바라보니, 제갈량이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려다가도 갑자기 다시 안쪽 벽을 향해 누워 잠이 들었다. 시종이 이를 보고 보고하려 하자 유비가 말했다.

"아직은 깨우지 마라."

그렇게 다시 한 시진을 더 기다린 뒤에야 제갈량이 깨어났다. 그는 입으로 시 한 수를 읊조렸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닫는가, 평생의 일은 나만이 알리라. 초당에 봄잠이 깊어 드니, 창밖의 햇살은 느긋하게 머무네."

제갈량이 시를 읊고 난 뒤, 몸을 돌려 동자에게 물었다. "속세에서 온 손님이 있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유비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갈량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찌 진작 알리지 않았느냐! 아직 옷매무새를 다듬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뒤뜰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제갈량이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 손님을 맞이했다. 유비가 제갈량을 보니, 키는 여덟 자에 달

하고 얼굴은 옥처럼 매끄러우며, 머리에는 끈으로 묶은 관을 쓰고 몸에는 학의 깃털로 만든 도포를 걸치고 있어 그 모습이 마치 신선처럼 신비로웠다. 유비가 절을 올리며 말했다.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자 탁군의 어리석은 사람인 제가 선생님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어제 두 번이나 찾아뵈었으나 뵙지 못하여, 부끄럽게도 제 이름을 글상자에 적어 두었는데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제갈량이 말했다. "남양의 시골뜨기인 저는 본래 게으른 성격이라, 장군께서 여러 번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눈 뒤, 주인과 손님을 나누어 자리에 앉았다. 동자가 차를 올렸다. 차를 다 마시자 제갈량이 말했다.

"어제 장군님의 글을 읽어보니,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다만 제가 나이가 어리고 재주가 부족하여, 장군님께 여쭈어보는 데 실수가 있었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사마덕조나 서원직의 말은 어찌 빈말로 하겠습니까? 부디 선생께서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정성껏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덕조와 원직은 세상에서 손꼽히는 선비들입니다. 저는 그저 농사꾼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천하의 일을 논하겠습니까? 두 분이 저를 잘못

추천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아름다운 옥을 두고 굳이 돌덩이를 찾으려 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대장부가 경세제의 재능을 품고서 어찌 숲과 샘 속에서 헛되이 늙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생께서 천하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시어,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가르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장군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유비는 사람들을 물리고 자리를 정돈하게 한 뒤 간곡히 말했다.

"한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고 간신들이 천명을 훔쳤습니다. 저는 힘이 부족함에도 천하에 대의를 펼치고자 하나, 지략과 기술이 짧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직 선생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곤경에서 구해 주신다면, 실로 만 가지 행운이 될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동탁이 난을 일으킨 이래로 천하의 호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조조의 세력이 원소에게 미치지 못했음에도 결국 원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늘의 운이 좋아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는 이미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고 있으니, 참으로 그와 맞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손권은 강동을 차지하고 벌써 3대째 이어오고 있

는데, 지형이 험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주는 북쪽으로 한수와 면수를 끼고 있어 남해까지 이르는 이점을 누리며, 동쪽으로는 오회와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파촉과 통합니다. 이곳은 무력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 주인이 능력이 없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늘이 장군님께 이 땅을 맡기려 하는 것인데, 어찌 버리려 하십니까? 익주는 지형이 험하고 천 리에 걸쳐 기름진 들판이 펼쳐진 풍요로운 땅으로, 한나라 고조께서도 이곳을 기반으로 황제의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유장은 어리석고 나약하며, 백성은 많고 나라는 부유한데도 이를 아끼고 보살필 줄 모르니, 지혜로운 인재들은 명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은 황실의 후예로서 신의가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고, 영웅들을 거느리며 인재를 갈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장군님께서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험한 요충지를 지키고, 서쪽으로는 종족들을 화합시키며 남쪽으로는 이월 땅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손권과 연합하며 안으로는 정치를 바로 세우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천하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한 명의 용맹한 장수에게 명하여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완과 낙양을 향하게 하고, 장군님께서는 친히 익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으로 나아가신다면, 백성들이 소박한 음식이라도 준비해 장군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정 이와 같이 된다면 대업을 이룰 수 있고 한나라의 부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장군님을 위해 세운 계책이니,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아이를 시켜 그림 한 축을 가져오게 하여 중앙에 걸고 유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서천 오십사 주의 지도입니다. 장군님께서 패업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북쪽은 조조에게 하늘의 운을 양보하고 남쪽은 손권에게 지리적 이점을 양보하시되, 장군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먼저 형주를

근거지로 삼으신 뒤, 이어서 서천을 차지하여 기반을 닦으십시오. 그리하여 천하를 솥의 발처럼 세 갈래로 나누는 형세를 만드신 후에 중원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하며 두 손을 모아 깍듯이 인사했다. “선생의 말씀 덕분에 막혔던 속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름을 걷어내고 푸른 하늘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장은 모두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데, 제가 어찌 차마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밤마다 천문을 살펴보니, 유표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운명입니다. 유장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기틀을 갖춘 군주가 아니니, 머지않아 반드시 장군께 그 땅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유비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깊이 감사했다. 제갈량이 아직 초가집을 나서기도 전에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대계를 이미 알아차렸으니, 참으로 만고에 비할 데 없는 재주라 할 만했다. 후세에 이 상황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있다.

“예주 시절 외롭고 가난함을 한탄했더니, 남양에 와룡이 계셨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훗날 천하가 어떻게 나뉘게 될지 알고 싶거든, 선생이 웃으며 그림을 가리키던 그 모습을 보라.”

유비가 제갈량에게 간곡히 청하며 말했다. "제가 비록 이름도 미천하고 덕도 부족하나, 부디 선생께서 저 같은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세

상에 나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생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는 오랫동안 농사나 지으며 한가히 지내온 터라 세상일에 뜻이 없으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울며 말했다. "선생께서 세상에 나오지 않으신다면, 고통받는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말을 마친 유비의 눈물이 옷소매를 적셔 옷깃이 온통 젖어버렸다.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이 매우 지극함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니, 저 또한 개나 말처럼 미천한 힘이나마 보태어 힘을 다하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관우와 장비에게 명하여 금과 비단 등 예물을 준비해 바치게 했다. 제갈량은 완강히 거절하며 받지 않으려 했다. 유비가 말했다. "이것은 대현자를 모셔오기 위한 예절이 아니라, 그저 저 유비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제야 제갈량은 예물을 받았다. 이로써 유비 일행은 제갈량의 장원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다. 다음 날 제갈균이 돌아오자, 제갈량이 그에게 당부하며 말했다. "나는 유비 황숙께 삼고초려의 은혜를 입었으니, 차마 나아가지 않을 수 없구나. 너는 여기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되, 절대 밭을 놀리지 말고 잘 돌보거라. 내가 공을 이루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돌아와 은거하겠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탄식했다. "아직 몸이 일어서기도 전에 물러날 때를 생각하더니, 공을 이룬 뒤에는 떠날

때의 말을 기억하리라. 오직 선주께서 간곡히 당부하신 까닭에, 가을 바람 부는 오장원에서 별이 지고 마는구나."

또 다른 고풍(古風) 한 편이 다음과 같이 읊어졌다. "고황제는 세 자 길이의 서슬 퍼런 칼을 손에 쥐었고, 망탕산의 백사는 밤중에 피를 흘렸네. 진나라를 평정하고 초나라를 멸하여 함양에 입성했으나, 이백 년 만에 한실은 거의 끊어질 뻔하였네. 아아, 장대하도다 광무제여, 낙양을 일으켜 세웠건만, 환제와 영제 대에 이르러 다시 무너지고 찢겨졌네. 헌제가 허창으로 도읍을 옮기니, 천하 사방에서 영웅호걸들이 어지러이 일어났도다. 조조는 권세를 잡아 천시를 얻었고, 강동의 손씨는 큰 대업을 열었네. 외로운 유비는 천하를 떠돌며, 홀로 신야에 머물며 백성의 위태로움을 근심하였네. 남양의 와룡은 큰 뜻을 품었으니, 그 마음속에는 정공과 기습의 책략이 가득하였도다. 단지 서서가 떠나며 남긴 말 때문이었을까, 초가집을 세 번 찾아간 정성이 마음을 얻었네. 선생은 당시 스물일곱의 나이로, 거문고와 책을 챙겨 밭일을 뒤로 하고 떠나셨네. 먼저 형주를 얻고 다음에 익주를 취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큰 뜻을 펼치시리라. 바둑을 두듯 혀끝으로 풍뢰를 일으키고, 담소를 나누며 가슴속으로 별들을 바꾸시네. 용이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노려보듯 천하를 평안케 하니, 만고의 이름이 영원히 썩지 않으리라."

유비 세 사람은 제갈균과 작별한 뒤, 제갈량과 함께 신야로 돌아갔다.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처럼 극진히 대접하여, 밥을 먹을 때도 한 상에서 먹고 잠을 잘 때도 한 침상을 쓸 정도로 온종일 천하의 대사를 함께 논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기주에서 현무지를 만들어 수군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니, 반드시 강남을 침공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몰래 사람을 보내 강을 건너가 적의 허실을 살펴야 합니다." 유비가 이 말을 따랐으니, 사람을 보내 강동의 사정을 살피게 하였다.

한편, 손권은 손책이 죽은 뒤 강동을 차지하여 아버지와 형이 일궈 놓은 기반을 이어받았다. 그는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오회에 빈관을 세우고, 고옹과 장굉에게 명하여 사방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덕분에 해마다 수많은 인재가 추천되어 들어왔다. 당시 회계 출신의 감택, 팽성 출신의 엄준, 패현 출신의 설종, 여남 출신의 정병, 오군 출신의 주환, 육적, 오나라 출신의 장온, 회계 출신의 낙통, 오정 출신의 오찬 등이 모두 강동으로 모여들었다. 손권은 이들을 매우 정중하게 대접했다. 또한 훌륭한 장수들도 여럿 얻었으니, 여양 출신의 여몽, 오군 출신의 육손, 낭야 출신의 서성, 동군 출신의 반장, 노강 출신의 정봉 등이었다. 이처럼 문무의 인재들이 한데 어우러져 손권을 보필하니, 이로 인해 강동은 인재가 넘쳐나는 곳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건안 7년, 조조가 원소를 격파한 뒤 사신을 강동으로 보내 손권에게 아들을 조정으로 보내 천자를 수행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손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에 오태부인이 주유와 장소 등에게 모여 논의하라 명했다.

장소가 말했다. "조조가 우리더러 아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제후들을 견제하려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강동으로 내려올까 두렵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자 주유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선친과 형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6개 군의 군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군사도 정예하고 식량도 충분하며 장병들이 목숨을 다해 따르고 있는데, 무엇이 급하다고 인질을 보내려 하십니까? 일단 인질을 보내면 조조와 화친할 수밖에 없고, 그가 부르면 가야만 하니 결국 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차라리 보내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며 다른 좋은 계책으로 막아내는 것이 낫습니다."

오태부인이 말했다. "주유의 말이 옳다."

손권은 결국 그 말에 따라 사신에게 사과하며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때부터 조조는 강남으로 내려갈 뜻을 품게 되었으나, 마침 북쪽 정세가 불안정하여 남쪽을 정벌할 겨를이 없었다.

건안 8년 11월, 손권이 군사를 이끌고 황조를 치기 위해 나섰는데, 양쯔강 한가운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황조의 군대는 싸움에서 대패했다. 손권의 부장 능조가 가벼운 배를 앞세워 하구에서 적들을 베며 나아갔으나, 황조의 부장 감녕이 쏜 화살 한 대에 맞아 죽고 말았다. 능조의 아들 능통은 당시 겨우 열다섯 살이었는데, 힘을 다해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 돌아왔다. 손권은 기세가 좋지 않음을 보고 군사를 거두어 동오로 돌아갔다.

한편, 손권의 동생 손익은 단양태수였다. 손익은 성격이 강직했으나 술을 매우 좋아하여, 술에 취하면 병사들을 채찍질하곤 했다. 단양의 독장 규람과 군승 대원 이 두 사람은 평소 손익을 죽이고 싶어 했다. 이들은 손익의 수행원인 변홍과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어, 함께 손익을 살해할 모의를 했다.

마침 단양의 여러 장수와 현령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손익이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손익의 아내 서씨는 아름답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점술에도 매우 능했다. 그날 서씨가 점을 쳐보니 흉한 징조가 나타나자, 손익에게 손님을 맞으러 나가지 말라고 권했다. 하지만 손익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를 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리가 흐트러질 무렵, 변홍이 칼을 차고 손익을 따라 문밖으로 나가더니 곧장 칼을 뽑아 손익을 베어 죽였다. 규람과 대원은 그 죄를 변홍에게 뒤집어씌워 그를 시장터에서 처형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기회를 틈타 손익의 재산과 첩들을 약탈했다. 규람은 서씨의 미모를 보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당신은 마땅히 나를 따라야 하오.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자 서씨가 말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 곧장 당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믐날까지 기다려 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벗은 다음에 혼인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서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즉시 심복이자 옛 장수인 손고와 부영 두 사람을 몰래 관아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분이야말로 충의가 넘치는 분들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람과 대원이라는 두 도적이 제 남편을 살해하고는, 모든 죄를 변홍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의 재산과 종들까지 모조리 나누어 가져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규람은 저까지 강제로 차지하려 하기에, 일단 그를 안심시키려고 거짓

으로 허락해 두었습니다. 두 장군께서는 부디 사람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말고 손권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한편으로 두 도적을 처단할 밀계를 세워 이 원한과 치욕을 갚아 주신다면, 저는 죽으나 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서씨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손고와 부영도 함께 울며 말했다. "저희는 평소 부군의 은혜를 입어 늘 감사하게 여겨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곧바로 (주군을 따라) 죽지 않은 것도 바로 복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명하시는데 어찌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서씨는 심복 사자를 몰래 보내 손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믐날이 되자, 서씨는 먼저 손익의 측근인 손고와 부영 두 사람을 불러 밀실의 휘장 뒤에 숨게 한 뒤, 대청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친 서씨는 곧바로 상복을 벗어 던지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 향을 피워 몸을 정돈했다. 그러고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마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규람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밤이 되자 서씨는 몸종을 보내 규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대청에 자리를 마련해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이 오르자 서씨는 규람을 밀실로 이끌었다. 규람은 기쁜 마음으로 취기를 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서씨가 크게 외쳤다. "손 장군과 부 장군은 어디 있느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이 휘장 뒤에서 칼을 들고 뛰어나왔다. 규람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부영의 칼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이어 손고가 다시 한 번 칼을 휘둘러 그를 즉사시켰다. 서씨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대원을 불러 연회에 참석하게 했다. 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와 대청에 이르자마자 역시 손고와 부영 두 장수에

게 살해당했다. 한편 서씨는 사람을 시켜 두 역적의 가족과 그 나머지 무리들을 모두 처단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히 상복을 갖춰 입고, 규람과 대원의 머리를 가져다가 손익의 영전 앞에 올리며 제사를 지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손권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단양에 도착했다. 서씨가 이미 규람과 대원 두 역적을 처단한 것을 본 손권은 손고와 부영을 아문장으로 봉하여 단양을 지키게 하고, 서씨를 데려가 노후를 편안히 보내게 했다. 강동 사람치고 서씨의 덕행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훗날 사람들이 그녀를 찬양하며 지은 시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재능과 절개 모두 갖추었으니 세상에 드물도다. 간사한 무리들 단숨에 뿌리 뽑혔네. 평범한 신하는 역적을 따르고 충직한 신하는 죽었으나, 동오의 여장부에는 미치지 못하네."

한편, 강동 곳곳의 산적 세력은 모두 평정되었다. 거대한 강 위에는 7,000여 척의 군선이 떠 있었다.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강동의 수군과 육군을 총괄하게 했다. 건안 12년 겨울 10월, 손권의 어머니인 오태부인이 위독해지자 주유와 장소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본래 오나라 사람인데,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동생 오경과 함께 월중으로 이주했다. 그 후 손씨 가문으로 시집와 네 아들을 낳았지. 장남 손책이 태어날 때는 달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차남 손권이 태어날 때는 해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점술가가 말하기를 '해와 달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 자는 그 자식이 반드시 귀하게 된다'고 하더구나. 불행히도 손책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강동의 기반을 손권에게 맡기려 한다. 공들이 마음을 합쳐 도와준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어 오태부인은 손권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너는 자포(子布, 장소)와 공근(公瑾, 주유)을 스승의

예로 받들어 모시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 여동생은 나와 함께 네 아버지에게 시집왔으니, 그 또한 너의 어머니나 다름없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 여동생을 나를 대하듯 정성껏 모셔야 한다. 또한 네 여동생도 은혜롭게 보살펴 좋은 신랑감을 골라 시집보내도록 하여라."

말을 마친 뒤 장례를 모두 치렀다. 손권이 슬피 울며 장례를 정성껏 치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듬해 봄, 손권은 황조를 치기로 논의했다. 장소가 말했다. "상기가 채 일 년도 되지 않았으니, 아직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유가 말했다. "원수를 갚는 데 어찌 일 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손권이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북평도위 여몽이 들어와 손권에게 보고했다. "용추 수구에 갑자기 황조의 부장 감녕이 항복하러 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이름은 흥패이고 파군 임강 사람이라고 합니다. 글과 역사에 밝고 힘이 세며 협객 노릇을 즐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망명객들을 불러 모아 강호를 종횡무진 누비기도 했는데, 허리에 구리 방울을 차고 다녀 사람들이 그 방울 소리만 들어도 모두 피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천의 비단으로 돛과 휘장을 만들어 사용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비단 돛을 단 도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길로 들어서서 무리를 이끌고 유표에게 귀순했습니다. 하지만 유표가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동오로 투항하려 했으나, 황조에게 붙잡혀 하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몽이 말을 이었다. "예전에 동오가 황조를 칠 때, 황조는 감녕의 힘 덕분에 하구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황조는 감녕을 매우 박하게 대했습니다. 도독 소비가 여러 차례 감녕을 황조에게 추천

했으나, 황조는 '감녕은 강에서 노략질하던 도적인데 어찌 중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감녕은 이 때문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소비는 감녕의 심정을 알고는 그를 집으로 불러 술을 대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을 여러 번 추천했으나 주공께서 써주지 않으시오.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인생은 짧으니 스스로 멀리 앞날을 도모해야 하오. 내가 공을 악현장으로 천거할 터이니, 공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시오.' 감녕은 이리하여 하구를 벗어나 강동으로 투항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황조를 구하고 능조를 죽인 일 때문에 강동이 원망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공께서는 인재를 목마르게 구하시어 옛 원한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며, 더구나 각자 제 주군을 위한 일이었으니 무슨 원한이 있겠느냐고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감녕은 기꺼이 무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주공을 뵈러 왔으니, 부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패업을 일으키려면 황조를 격파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거늘, 이제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즉시 여몽에게 명하여 감녕을 데리고 오게 했다. 감녕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손권이 말했다. "그대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마음을 크게 얻은 일이니, 어찌 원망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 의심하지 말게나. 부디 황조를 격파할 계책을 내게 알려주게."

감녕이 대답했다. "지금 한나라의 운수가 위태로우니, 조조는 결국 천하를 찬탈할 것입니다. 형주 남쪽 땅은 조조가 반드시 차지하려 할 곳입니다. 유표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없고, 그 아들은 어리석고 모자라 가업을 이어받아 기반을 다질 능력이 없습니다. 주군께서는 마땅

히 서둘러 도모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체한다면 조조가 먼저 손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먼저 황조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황조는 올해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릿해진 데다 재물과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려 인심이 모두 원망하고 있으며, 전쟁 도구도 수리하지 않고 군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군께서 만약 공격하신다면 그 기세는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황조의 군대를 격파한 뒤에는 곧장 서쪽으로 진격하여 초나라 관문을 점령하고 파촉 땅을 도모하십시오. 그리하면 패업을 확고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참으로 금옥과 같이 귀한 의견이오!" 그러고는 즉시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수군과 육군을 모두 총괄하게 했고, 여몽을 전방 선봉으로 삼았다. 동습과 감녕을 부장으로 세운 뒤, 손권 스스로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조를 정벌하러 나섰다.

한편, 강하에서는 첩보원이 손권의 움직임을 살핀 뒤 보고를 올렸다. 황조는 급히 사람들을 모아 의논한 끝에 소비를 대장군으로 삼고, 진취와 등룡을 선봉으로 세워 강하의 군사를 모두 일으켜 적을 맞이하게 했다. 진취와 등룡은 각각 한 부대씩 맹선(큰 배)을 이끌고 면구의 물목을 가로막았다. 맹선 위에는 강궁과 쇠뇌를 천여 장씩 설치해 두었고, 커다란 밧줄을 배에 묶어 물 위에 고정해 두었다.

오나라 군사가 도착하자 맹선 위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일제히 화살과 쇠뇌가 쏟아져 내려왔다. 오나라 병사들은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 위에서 수 리 뒤로 물러나 있었다. 이때 감녕이 동습에게 말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그러고는 작은 배 백여 척을 골라, 배마다 정예병 50명씩을 배치했다. 20명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 30명은 갑옷을 입고 강철 칼을 든 채 전투에 임하게 했다. 이들은 화살과 돌멩이가 쏟아지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맹선 바로 옆까지 돌격하여 밧줄을 끊어버렸고, 그 바람에 맹선들은 옆으로 뒤집히고 말았다.

감녕이 커다란 전투선 위로 뛰어올라 등룡을 베어 죽였다. 진취는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 광경을 본 여몽이 작은 배에서 뛰어내려 직접 노를 저어 선단 안으로 돌진하더니, 배에 불을 질렀다. 진취가 급히 상륙하려 하자, 여몽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그의 가슴을 칼로 베어 쓰러뜨렸다. 마침 소비가 육지에서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왔으나, 오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상륙하니 그 기세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황조의 군대는 대패했다. 소비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중 마침 오나라의 대장 반장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맞붙어 싸웠으나 몇 합을 채 가지 못하고 반장에게 생포되어, 곧장 배 안으로 끌려가 손권을 대면하게 되었다. 손권은 좌우에 명하여 그를 함거에 가두게 한 뒤, 황조를 생포하면 함께 처단하려 했다. 이어 삼군에 명령을 내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구를 공격하게 했다. 이야말로, 비단 돛을 단 도적(감녕)을 쓰지 않은 탓에, 끝내 거대한 밧줄로 묶은 배들이 뚫리고 말았구나. 황조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9회 — 형주성 공자가 세 번이나 계책을 구하고, 박망파에서 군사가 처음으로 군사를 부리다

荊州城公子三求計 博望坡軍師初用兵

한편, 손권이 군사를 거느리고 하구를 공격하자 황조는 군사가 패하고 장수가 죽으니, 더는 이곳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황조는 강하를 버리고 형주 쪽으로 도망쳤다. 감녕은 황조가 반드시 형주로 달아날 것을 예상하고 동문 밖에 매복하여 기다렸다. 황조가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동문을 나서 달아나던 중,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며 감녕이 앞을 가로막았다. 황조가 말 위에서 감녕에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너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 이토록 몰아세우느냐?" 그러자 감녕이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강하에 있을 때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당신은 나를 그저 강을 약탈하는 도적으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시겠습니까?"

황조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감녕은 병사들을 헤치고 황조를 뒤쫓았다. 그런데 뒤쪽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기병 몇 명이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감녕이 살펴보니 바로 정보였다. 감녕은 정보가 공을 다투러 오는 것일까 겁이 나, 서둘러 활을 들어 화살을 먹인 뒤 황조를 향해 뒤로 쏘았다. 화살에 맞은 황조는 말에서 거꾸러졌고, 감녕은 그의 머리를 베었다. 감녕은 말을 돌려 정보와 합류한 뒤 손권에게 돌아가 황조의 머리를 바쳤다. 손권은 황조의 머리를 나무 상자에 담아 보관하게 하여, 나중에 강동으로 돌아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 때 바치도록 했다. 손권은 삼군에 큰 상을 내리고 감녕을 도위로 승진시켰다.

그 후 군사를 나누어 강하를 지킬 방도를 논의할 때, 장소가 말했다. "고립된 성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강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유표는 우리가 황조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편히 쉬며 적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유표의 공격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표가 패한 뒤에 그 기세를 몰아 공격한다면 형주와 양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이 이 말을 따랐기에, 결국 강하를 버리고 군사를 돌려 강동으로 돌아갔다.

소비는 죄인 수레에 갇힌 채 몰래 사람을 보내 감녕에게 구해달라고 청했다. 감녕이 말했다. "소비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는가?"

오나라 대군이 오회에 도착하자, 손권은 소비의 머리를 베어 황조의 머리와 함께 제사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때 감녕이 손권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말했다. "예전에 소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저

는 이미 골짜기에 뼈를 묻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찌 장군님 휘하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소비가 죽을 죄를 지었으나, 저는 그가 베푼 옛 은혜를 생각하여 제 관직과 작위를 내놓을 테니 소비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가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니 내가 그를 사해주겠네. 하지만 만약 그가 도망이라도 치면 어찌하겠는가?"

감녕이 대답했다. "소비가 죽음을 면한다면 은혜에 감사하여 어찌 도망치려 하겠습니까? 만약 그가 도망친다면 제 머리를 가져와 발치에 바치겠습니다."

손권은 이에 소비를 사면하고, 황조의 머리만 제사에 올리도록 했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잔치를 베풀어 문무백관과 함께 승리를 축하했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크게 울며 일어나더니, 칼을 뽑아 들고 감녕을 향해 달려들었다. 감녕은 급히 의자를 들어 올려 그를 막아섰다. 손권이 깜짝 놀라 그를 살펴보니, 바로 릉통이었다. 감녕이 강하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릉조를 화살로 쏘아 죽였기에, 오늘 마주치자 복수를 하려 한 것이다. 손권이 급히 그를 말리며 릉통에게 말했다.

"감녕이 네 아버지를 쏘아 죽인 것은, 당시 각자 주군을 위해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는데, 어찌 옛 원한을 따지려 하느냐? 모든 일은 내 얼굴을 봐서 참아라."

릉통은 머리를 조아리며 크게 울며 말했다.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를 어찌 복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권과 여러 신료가 거듭 만류했으나, 릉통은 그저 분노 어린 눈으로 감녕을 노려볼 뿐이었다. 손권은 즉시 감녕에게 군사 5천 명과 전선 100척을 주어 하구로 가서 수비하게 했다. 이는 릉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감녕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군사를 이끌고 하구로 떠났다. 손권은 릉통을 승렬도위로 봉하여 달래 보았으나, 릉통은 결국 한을 품은 채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동오에서는 전선을 대대적으로 건조하고 군사를 나누어 강둑을 지키게 했다. 또한 손정을 보내 군사 한 부대로 오회를 지키게 했으며, 손권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채상에 주둔했다. 주유는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하며 전쟁에 대비했다.

이야기는 양쪽으로 갈라져 흐른다. 한편, 유비가 사람을 보내 강동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니, "손권의 오나라 군대가 이미 황조를 공격하여 죽였으며, 지금은 채상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유비는 곧 제갈량에게 대책을 물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유표가 사람을 보내 유비를 형주로 초청하여 일을 논의하자고 전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는 필시 강동에서 황조가 패한 일 때문에, 유표가 주군께 복수할 방도를 상의하고자 부른 것일 터입니다. 제가 주군과 함께 가서 상황을 살피며 대처한다면 자연히 좋은 계책이 나올 것입니

다." 유비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관우에게는 신야를 지키게 했으며, 장비에게는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주로 따라오게 했다.

유비가 말을 타고 가며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제 유표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먼저 양양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십시오. 만약 그가 주군께 강동을 정벌하러 가라고 권한다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야로 돌아가 군사를 정돈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유비는 제갈량의 말에 따라 형주에 도착하여 역관에 머물렀고, 장비는 성 밖에 군사를 주둔하게 했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유표를 알현했다. 예를 갖춘 뒤 유비가 고개를 숙이며 죄를 청하자 유표가 말했다.

"현제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이미 잘 알고 있소. 당시 즉시 채모의 머리를 베어 현제에게 바치려 했으나, 여러 사람이 만류하여 잠시 용서해 준 것이니 부디 죄를 묻지 마시오."

유비가 대답했다.

"채 장군님의 잘못이 아니라, 아마도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일일 것입니다."

유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강하를 잃고 황조마저 죽었으니, 현제와 함께 복수할 방책을 논의하고 싶소."

유비가 말했다.

"황조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람을 쓸 줄 몰라 이런 화를 자초했습니다. 만약 지금 군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진격한다면, 혹여 조조가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유표가 말했다.

"나는 올해 나이가 들어 병이 많으니 일을 맡아 처리하기 어렵소. 현제가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죽고 나면 현제가 바로 형주의 주인이 될 것이오."

유비가 놀라며 말했다.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눈짓으로 유비를 바라보자, 유비가 말했다. "좋은 계책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비는 곧 작별을 고하고 관역으로 돌아왔다. 제갈량이 물었다. "유표가 형주를 주군께 맡기려 하는데, 어찌하여 거절하셨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유표가 나를 대접하는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가 처한 위기를 틈타 땅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참으로 어질고 자애로운 군주이십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유기가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그를 맞이하자 유기가 울면서 절을 하며 말했다.

"계모가 저를 받아주지 않아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부디 숙부님께서 저를 가엾게 여기어 구해주십시오."

유비가 대답했다.

"이것은 조카의 집안일인데 어찌 나에게 묻느냐?"

제갈량이 미소를 지었으나, 유비는 제갈량에게 도움을 청했다. 제갈량은 "이것은 집안일이니 제가 감히 끼어들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잠시 후 유비가 유기를 배웅하며 귓속말로 낮게 속삭였다.

"내일 내가 제갈량을 보내 너를 다시 찾아가게 하마. 그러면 그가 분명히 좋은 계책을 알려줄 것이다."

유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물러갔다.

다음 날, 유비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제갈량에게 대신 유기를 찾아가 문안을 드리라고 부탁했다. 제갈량이 이를 허락하고 유기의 저택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유기를 찾아가 뵈었다. 유기는 제갈량을 뒷방으로 정중히 모셨다. 차를 다 마신 뒤 유기가 말했다.

"제가 계모의 미움을 사고 있으니, 부디 선생께서 한 말씀 도와주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인데, 어찌 감히 남의 집안 골육 간의 일에 끼어들겠습니까? 만약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 화를 입게 되면 그 해로움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제갈량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하려 하자, 유기가 말했다.

"귀한 분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어찌 소홀히 대접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제갈량을 붙잡아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는 사이, 유기가 다시 말했다. "계모의 미움을 사고 있으니, 선생께서 저를 구해주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감히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을 마친 제갈량이 떠나려 하자 유기가 말했다. "선생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어찌 그리 급히 가시려 합니까?"

그 말에 제갈량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유기가 말했다. "저에게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으니, 선생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갈량을 작은 누각으로 안내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기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며 말했다. "계모의 미움을 사고 있어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저를 구해주실 말씀 한마디조차 아끼시는 것입니까?"

제갈량이 안색을 바꾸며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이미 계단이 치워진 뒤였다. 유기가 말했다. "제가 좋은 계책을 구하고자 하니, 선생께서는 혹여 비밀이 새어 나갈까 두려워 말씀을 아끼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때이니, 선생의 입에서 나와 제 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가르침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신하가 친족의 일에 함부로 관여할 수는 없는 법인데, 제가 어찌 공자를 위해 계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유기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끝내 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차라리 선생 앞에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했다.

제갈량이 급히 그를 말리며 말했다. "이미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유기가 절하며 말했다. "부디 즉시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공자께서는 신생과 중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신생은 궁 안에 머물다 화를 당했고, 중이는 궁 밖에서 오히려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황조가 죽고 강하에는 이를 지킬 사람이 부족하니, 공자께서 직접 위로 상소를 올려 군사를 머물게 하여 강하를 지키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가 두 손 모아 사례하며 가르침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 사람을 시켜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제갈량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냈다. 제갈량이 작별을 고한 뒤 유비에게 돌아가 방금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하자,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유기가 강하를 지키고 싶다는 뜻을 올렸다. 유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유비에게 함께 의논하자고 청했다. 유비가 말했다.

"강하는 요충지라 다른 사람이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니, 마땅히 공자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동남쪽의 일은 형님과 공자께서 맡으시고, 서북쪽의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유표가 말했다.

"최근 듣기로 조조가 업군에 현무지를 만들어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니, 필시 남쪽으로 쳐들어올 뜻이 있는 것이니 대비하지 않을 수 없소."

유비가 대답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으니 형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유비는 인사를 올리고 신야로 돌아갔다. 유표는 유기에게 군사 삼천을 이끌고 강하로 가서 성을 지키도록 명했다.

한편, 조조는 삼공의 직책을 폐지하고 스스로 승상으로서 그 직무를 겸임했다. 그리고 모개를 동조연으로, 최염을 서조연으로, 사마의를

문학연으로 임명했다. 사마의는 자가 중달이며 하내 온현 사람이다. 영천 태수 사마준의 손자이자 경조윤 사마방의 아들이며, 주부 사마랑의 동생이다. 이로써 문관의 인재가 완벽히 갖춰지자, 조조는 무장들을 불러 모아 남정 계획을 논의했다. 이때 하후돈이 나서서 말했다.

"최근 듣기로 유비가 신야에서 매일같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조조는 즉시 하후돈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 이전, 하후란, 한호를 부장으로 삼아 10만 대군을 이끌게 했다. 이들은 신야를 살피기 위해 곧장 박망파로 진격했다.

이에 순욱이 간언했다. "유비는 영웅입니다. 이제 제갈량이라는 군사까지 얻었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후돈은 "유비는 그저 쥐새끼 같은 자일 뿐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를 사로잡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서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유비를 얕보지 마십시오. 지금 유비는 제갈량의 보좌를 받고 있으니, 마치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린 격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제갈량이 대체 어떤 인물이냐?"

서서가 대답했다. "제갈량의 자는 공명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와룡 선생이라 부릅니다. 천하를 다스릴 재능과 귀신도 모를 신묘한 계책

을 가졌으니, 진정 당대의 기재라 할 만합니다.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물었다. "그를 그대와 견주면 어떠한가?"

서서가 대답했다. "제가 어찌 제갈량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딧불이의 빛에 불과하고, 제갈량은 밝은 달빛과 같습니다."

하후돈이 말했다. "원직(서서)의 말은 틀렸소. 내가 보기에 제갈량은 풀잎이나 잡초처럼 하찮은 존재일 뿐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만약 내가 단번에 유비를 생포하고 제갈량까지 산 채로 잡아온다면, 내 기꺼이 그들의 머리를 승상께 바치겠소."

조조가 말했다. "어서 승전보를 보내어 내 마음을 위로해주게."

하후돈은 기세등등하게 조조와 작별하고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한편,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뒤 스승을 대하듯 정중히 모셨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는 기분이 좋지 않아 말했다. "제갈량은 나이도 어린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형님께서 이토록 과하게 대접하십니까? 아직 그가 실제로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내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네. 두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말을 듣고는 더는 대꾸하지 않고 물러났다.

어느 날, 누군가 소 꼬리를 선물로 보내왔다. 유비는 그 꼬리를 가져다가 직접 모자를 만들어 썼다. 이때 제갈량이 들어와 보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주공께서는 더 이상 원대한 뜻을 품지 않으시고, 고작 이런 일에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유비는 모자를 땅에 던지며 사과하듯 말했다. "그저 잠시 이 일로 근심을 잊으려 했을 뿐이라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주공께서는 스스로를 조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지."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의 군사는 많아야 수천 명에 불과한데, 만약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바로 그 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좋은 계책이 없네." 제갈량이 말했다. "어서 민병을 모집하십시오. 제가 직접 훈련시킬 테니, 그러면 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곧 신야의 백성들을 모집하여 3천 명의 군사를 얻었다. 제갈량은 밤낮으로 그들에게 진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그러던 중, 갑자기 조조가 하후돈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신야로 거세게 몰아치게 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장비가 관우에게 말했다. "제갈량을 보내 적을 맞이하게 하면 될 일이네."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유비가 두 형제를 불러 물었다.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어떻게 적을 맞이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형님, 어찌하여 ‘물’을 쓰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지혜는 제갈량에게 의지하고 용맹함은 두 동생에게 달려 있는데, 어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느냐?” 관우와 장비가 나가자,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상의를 청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다만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이

제 명령을 듣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공께서 저에게 군사를 부리게 하시려거든, 검과 인장을 빌려주십시오." 유비가 즉시 검과 인장을 제갈량에게 넘겨주니, 제갈량은 곧 장수들을 모아 명령을 내렸다. 장비가 관우에게 말했다. "일단 명령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자고. 저 친구가 어떻게 군사를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꾸나."

제갈량이 명령을 내렸다. "박망파의 왼쪽에는 예산이라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안림이라는 숲이 있으니 이곳에 군사와 말을 매복시키기에 적당합니다. 관우는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예산 앞으로 가서 먼저 매복하고 있다가, 적군이 도착하거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맞붙어 싸우지 마십시오. 적의 치중과 군량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입니다. 남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거든 그때 군사를 내어 공격하고 그 군량을 불태워버리십시오. 장비는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안림 뒤편의 산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남쪽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즉시 나타나 박망성에 예전부터 군량을 쌓아둔 창고에 불을 지르십시오. 관평과 유봉은 군사 오백 명을 이끌고 불을 붙일 도구들을 준비하여 박망파 뒤편 양옆에서 대기하다가, 초경(初更) 무렵 군사가 도착하면 즉시 불을 놓으십시오."

또한 번성에서 조운을 데려오게 하여 전방 부대로 삼되, 이기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기만 하라고 명했다.

"주군께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후방 지원을 맡으십시오. 모두 계책에 따라 행동하여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하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우리 모두 적을 맞으러 나가는데, 군사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나는 그저 이 성을 지키고 있을 뿐이오."

그러자 장비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당신은 집에 앉아만 있으니 참으로 편안하겠구려!"

제갈량이 엄하게 말했다. "여기 검인(劍印)이 있으니, 명령을 어기는 자는 베겠다!"

유비가 거들었다. "'막사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둘째야, 군사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

장비는 코웃음을 치며 물러갔다. 관우가 말했다. "그의 계책이 통할지 안 통할지 일단 지켜봅시다. 그때 가서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장수들은 제갈량의 계책을 알지 못했기에 명을 받들면서도 모두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즉시 군사를 이끌고 박망산 아래로 가서 진을 치십시오. 내일 해 질 녘이 되면 적군이 반드시 도착할 것이니, 그때 주공께서는 진영을 버리고 후퇴하십시오. 그러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는 즉시 군사를 돌려 적을 몰아치시면 됩니다. 저와 미축, 미방이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현을 지킬 것이니, 손건과 간옹에게는 승전 축하

연회를 준비하게 하고 공적을 기록할 명단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일러 두겠습니다."

배치를 모두 마쳤으나, 유비 역시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한편, 하후돈과 우금 등이 군사를 이끌고 박망파에 이르렀다. 그들은 정예병 절반을 나누어 앞장서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군량 수레를 호위하며 행군했다. 마침 가을 달이 떠오르고 가을바람이 서서히 일던 때였다. 인마가 급히 행군하던 중, 앞쪽에서 갑자기 먼지 구름이 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하후돈은 즉시 군사들을 배치하며 길 안내를 맡은 관리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관리의 대답이 돌아왔다. "앞쪽은 바로 박망파이고, 뒤쪽은 나천구입니다."

하후돈은 우금과 이전에게 진영을 지키게 하고, 직접 말에 올라 전방으로 나아갔다. 멀리서 적의 군마가 다가오는 것을 본 하후돈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장수들이 이유를 묻자 하후돈이 말했다.

"서서가 승상 앞에서 제갈량을 천하의 기재라고 치켜세우던 것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는구나! 지금 저들의 군사 운용을 보니, 이런 군마들을 앞세워 나를 상대하려 하다니, 마치 개나 양을 몰아 호랑이와 표범에게 싸움을 붙이는 격이로다! 내가 승상 앞에서 유비와 제갈량을 생포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이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말을 마친 하후돈은 곧바로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려 나갔다. 이때 조운이 말을 타고 나타나자 하후돈이 꾸짖었다.

"너희들이 유비를 따르는 것은 마치 외로운 넋이 귀신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구나!"

조운이 크게 노하여 말을 달려 싸움을 걸어왔다. 두 말이 맞붙어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조운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하후돈이 그 뒤를 쫓아갔다. 조운이 십여 리쯤 달아나다 다시 말을 돌려 싸움을 걸어왔고, 몇 합을 겨루지 못해 또 달아났다. 한호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 간언했다. "조운이 적을 유인하고 있으니, 분명 매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후돈이 말했다. "적군이 저 모양인데 설령 십면매복이라 해도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후돈은 한호의 말을 듣지 않고 곧장 박망파까지 쫓아갔다. 그때 갑자기 포성 한 발이 울리더니,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달려 나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하후돈이 한호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다! 내가 오늘 밤 안에 신야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결코 군사를 멈추지 않겠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전진을 재촉했다. 유비와 조운은 뒤로 물러나 곧장 달아났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낮에 불던 바람은 밤이 되자 더욱 거세졌다. 하후돈은 오로지 군사를 재촉하며 적을 추격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우금과 이전이 좁은 길목에 다다랐는데, 길 양옆으로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이전이 우금에게 말했다.

"적을 얕보는 자는 반드시 패하기 마련입니다. 남쪽 길은 좁고 산과 강이 가로막고 있으며 나무까지 빽빽하니, 만약 저들이 화공을 펼치면 어찌합니까?"

우금이 대답했다.

"그대 말이 옳소. 내가 앞서가서 도독에게 이 말을 전할 테니, 그대는 후군을 멈춰 세우시오."

이전은 즉시 말을 돌리며 크게 외쳤다.

"후군은 천천히 움직여라!"

하지만 군사들이 이미 무섭게 돌진하고 있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우금도 급히 말을 몰아 크게 소리쳤다.

"전군 도독은 멈추시오!"

하후돈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뒤쪽 군대에서 우금이 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우금이 말했다. "남쪽 길은 좁고 산과 강이 맞붙어 있는 데다 나무까지 무성하니, 화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후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즉시 말을 돌려 군사들에게 더는 전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더니, 어느새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뒤이어 길 양옆의 갈대밭까지 불이 붙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사방팔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거세게 불자 불길은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조조의 군사들은 서로 밟고 엉키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죽은 자의 수는 셀 수도 없었다. 이때 조운이 군사를 돌려 추격하며 공격해 오자, 하후돈은 매운 연기와 불길을 뚫고 겨우 도망쳐 나왔다.

한편, 이전은 형세가 좋지 않음을 깨닫고 급히 박망파 성으로 말을 달려 돌아가려 했으나, 불길 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관우였다. 이전이 말을 타고 혼란스러운 싸움을 벌이며 겨우 길을 뚫고 달아나자, 우금은 군량미를 실은 수레들이 모두 불타는 것을 보고는 작은 길을 택해 도망쳐 버렸다. 하후란과 한호가 군량을 구하러 달려왔으나 마침 장비와 맞닥뜨렸다. 채 몇 합을 싸우기도 전에 장비가 창을 휘둘러 하후란을 말 아래로 떨어뜨려 죽였다. 한호는 간신히 길을 뚫고 달아났다. 싸움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고, 그제야 군사를 거두었다. 전장에는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후세에 시를 지어 읊기를 다음과 같다.

"박망파에서 대치하며 화공을 펼치니, 지휘가 뜻대로 되어 웃으며 이야기하듯 하였네.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니, 제갈량이 처음 세상에 나와 세운 첫 공로로다!"

하후돈은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허창으로 돌아갔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거두자 관우와 장비가 서로 마주 보며 말했다. "제갈량은 참으로 영웅이로다!" 두 사람이 몇 리쯤 나아갔을 때, 미축과 미방이 군사를 이끌고 작은 수레 하나를 호위하며 오는 것이 보였다. 수레 안에는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관우와 장비는 말에서 내려 수레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잠시 후 유비와 조운, 유봉, 관평 등이 모두 도착하여 군사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은 승리하여 얻은 식량과 군수 물자를 챙기고 장졸들에게 나누어 상을 내린 뒤, 신야로 군사를 돌려 복귀했다. 신야의 백성들은 먼지가 길을 뒤덮을 정도로 구름처럼 몰

려나와 절하며 외쳤다. "우리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사군(유비)께서 현명한 인재를 얻으신 덕분입니다!"

제갈량이 현으로 돌아와 유비에게 말했다. "하후돈이 비록 패하여 물러갔으나, 조조가 반드시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에게 조조의 군대를 막아낼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적을 물리쳤다고 해서 곧바로 전의를 늦춰서는 안 되며, 적의 병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뛰어난 계책에 의지해야 하는 법이다.

과연 제갈량의 계책이 무엇일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0회 — 채부인이 형주를 바칠 것을 의논하고, 제갈량이 신야를 불태우다

蔡夫人議獻荊州 諸葛亮火燒新野

한편, 유비가 제갈량에게 조조의 군대를 물리칠 계책을 물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신야는 작은 고을이라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근래 듣기로 유표의 병세가 위독하다고 하니, 이 기회를 틈타 형주를 차지하여 안식처로 삼아야 조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소. 하지만 나는 유표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차마 그 땅을 탐할 수 있겠소?"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지금 차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비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의리를 저버리는 짓은 할 수 없소."

제갈량이 말했다.

"그럼 일단 다시 의논해 봅시다."

한편, 하후돈은 패배한 채 허창으로 돌아와 스스로 몸을 묶고 조조 앞에 나아가 죽여달라 청했다. 조조는 그를 풀어주었다. 하후돈이 말했다.

"제가 제갈량의 궤계에 걸려, 화공에 우리 군이 격파당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너는 어려서부터 군사를 다루어 왔는데, 어찌 좁은 곳에서는 화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하후돈이 대답했다.

"이전과 우금이 미리 말해주었으나, 이제 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조는 이전과 우금에게 상을 내렸다. 하후돈이 다시 말했다.

"유비가 이토록 날뛰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큰 근심거리입니다. 서둘러 제거해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비와 손권뿐이다. 나머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제 이 기세를 몰아 강남을 평정하겠다."

조조는 즉시 명령을 내려 50만 대군을 일으켰다. 조인과 조홍을 제1진으로, 장료와 장합을 제2진으로, 하후연과 하후돈을 제3진으로, 우금과 이전을 제4진으로 삼았다. 조조는 직접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제5진을 이끌었으며, 각 부대는 10만 명씩 배치했다. 또한 허저를 절충장군으로 임명하여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선봉으로 삼았다. 출정일은 건안 13년 가을 7월 병오일로 정했다.

대중대부 공융이 간언하며 말했다. "유비와 유표는 모두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니,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손권 또한 여섯 군을 차지하고 큰 강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등지고 있어 쉽게 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승상께서 이토록 의롭지 못한 군사를 일으키시니, 천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유비, 유표, 손권은 모두 천명을 거스르는 신하들인데, 어찌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조조는 공융을 꾸짖어 물러나게 하고, 다시 간언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참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융은 관청을 나오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어찌 인자한 이를 치기 위해 인자하지 못한 자들이 움직인단 말인가.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때 어사대부 치려의 집객이 이 말을 듣고 치려에게 보고했다. 치려는 평소 공융에게 무시를 당해와 마음속에 원한이 깊었기에, 이 사실을 조조에게 고하며 덧붙여 말했다.

"공융은 평소 늘 승상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형과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예형이 공융을 두고 '공자(중니)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며 찬양하자, 공융 역시 예형을 향해 '안회가 다시 살아났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난번 예형이 승상을 모욕한 것도 사실은 공융이 시킨 일입니다."

조조가 크게 분노하여 즉시 정위를 보내 공융을 붙잡게 했다. 공융에게는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침 집에서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곁에 있던 사람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나으리, 정위가 나으리를 잡아갔습니다. 곧 처형될 판인데 두 공자님께서는 어찌 서둘러 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두 아들이 말했다.

"둥지가 뒤집히는데 어찌 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위가 들이닥쳐 공융의 가족과 두 아들을 모두 잡아들여 처형하고, 공융의 시신을 저잣거리에 내걸어 본보기로 삼았다. 경조 사람 지습이 그 시신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크게 분노하며 지습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순욱이 나서서 만류하며 말했다.

"제가 듣기로, 지습은 평소 공융에게 '공께서는 너무 강직하시기만 하니, 그것이 곧 화를 부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간언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공융이 죽자 찾아와 통곡하니, 이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그제야 분노를 가라앉혔다. 지습은 공융 부자(공융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모두 장사 지내주었다. 훗날 사람들은 공융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공융은 북해에 거하며 호탕한 기개가 무지개를 뚫을 듯했네. 연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술잔은 비는 법이 없었지. 문장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담소 속에는 왕공들을 꾸짖는 기개가 있었네. 역사는 그의 충직함을 칭송하고, 그 관직은 태중대부로 기록되어 길이 남았네."

조조는 공융을 처형한 뒤, 다섯 부대의 군마에 차례로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순욱 등은 허창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한편, 형주의 유표가 병이 위독해지자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와서 뒷일을 부탁해 달라고 청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형주로 가서 유표를 알현했다. 유표가 말했다.

"내 병이 이미 깊어 곧 죽을 것 같으니, 특별히 현제께 내 아들을 부탁하고자 하오. 내 아들은 재능이 없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지 못할까 두렵구려. 내가 죽고 나면 현제께서 직접 형주를 다스리셔도 좋소."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말했다.

"저는 마땅히 온 힘을 다해 조카를 보필할 것이니,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한편,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는 급히 유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밤을 도와 신야로 돌아갔다. 병석에 있던 유표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유비가 장남 유기를 도와 형주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유언을 남기려 상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채부인은 크게 분노하여 안채 문을 걸어 잠그고, 채모와 장윤 두 사람에게 명하여 바깥문을 지키게 했다. 마침 강하에 있던 유기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위해 형주로 달려왔다. 유기가 막 바깥문에 다다랐을 때, 채모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공자께서는 아버님의 명을 받들어 강하를 지키고 계시니 그 임무가 매우 막중합니다. 지금 함부로 직무를 저버리셨다가 만약 동오의 군사가 들이닥치면 어찌하시렵니까? 만약 지금 주군을 뵙게 된다면 주군께서 반드시 크게 노하실 것이며, 병세가 더욱 악화될 터이니 이는 효도가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유기는 문밖에서 한바탕 크게 통곡한 뒤, 말을 타고 다시 강하로 돌아갔다. 유표는 병세가 위독해진 상황에서 유기가 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여덟째 달 무신일에 몇 번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세상을 떠났다. 후대의 어떤 이가 유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예전에 원씨 일가가 하삭을 차지했던 일을 들었고, 또한 유씨가 한양을 다스리던 것을 보았노라. 결국 여자의 아침 정사 때문에 집안을 망쳤으니, 얼마 못 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 가련하구나."

유표가 죽자 채부인은 채모, 장윤과 상의하여 유언장을 가짜로 꾸몄다. 그렇게 하여 차남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세운 뒤에야 비로소 슬픈 소식을 전하며 상을 알렸다. 당시 유종은 겨우 열네 살이었는데 제법 총명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형님은 지금 강하에 계시고 숙부님인 유비께서는 신야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주인으로 세우신다면, 만약 형님이나 숙부님께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으러 오시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 관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막관 이규가 나서서 말했다.

"공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즉시 강하로 조문 서신을 보내, 큰아드님을 형주의 주인으로 모셔오도록 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비에게도 함께 정사를 돌보게 한다면, 북으로는 조조를 막아내고 남으로는 손권을 저지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채모가 꾸짖으며 소리쳤다.

"네놈이 누구길래 감히 주군께서 남기신 유언을 어지럽히며 함부로 지껄이느냐!"

이규가 크게 꾸짖으며 맞받아쳤다.

"네놈들은 안팎으로 서로 짜고 유언을 사칭하며, 형을 폐하고 어린 동생을 세우려 하는구나! 형주 구군을 통째로 채씨 가문의 손에 넘겨주려는 꼴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돌아가신 주군께서도 반드시 네놈들을 벌하실 것이다!"

채모는 크게 분노하여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 이규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이규는 죽는 순간까지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채모는 유종을 주인으로 세웠다. 채씨 일족은 형주의 군사들을 나누어 맡았고, 치중인 등의와 별가 유선을 시켜 형주를 지키게 했다. 채부인은 유종을 데리고 양양으로 가서 유기와 유비를 경계하며 주둔했다. 또한 유표의 관을 양양성 동쪽 한양의 벌판에 안치하면서도, 유기와 유비에게는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유종이 양양에 도착하여 막 말을 멈추고 쉬려는데, 갑자기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양양을 향해 곧장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종은 크게 놀라 즉시 괴월과 채모 등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동조연 부손이 나아가 말했다. "단순히 조조의 군사가 몰려오는 것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큰아드님께서는 강하에 계시고 유비는 신야에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분들께 부고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 책임을 묻기라도 한다면 형주와 양양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이를 쓰면 형주와 양양의 백성들을 태산처럼 평안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공의 지위와 명예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종이 물었다.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부손이 대답했다. "차라리 형주와 양양의 9군을 조조에게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조가 반드시 주공을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유종이 꾸짖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선군께서 일구어 놓으신 기반을 물려받았는데,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어찌 그것을 남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괴월이 말했다. "부공제의 말이 옳습니다. 무릇 거스름과 따름에는 큰 도리가 있고, 강약에는 정해진 형세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조조가 조정의 이름을 내세워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고 있는데, 주군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군께서는 이제 막 즉위하셨으니 외부의 근심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내부의 우환마저 곧 일어나려 합니다. 형주와 양양의 백성들은 조조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싸워보기도 전에 겁부터 먹을 텐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종이 다시 말했다. "여러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군의 업적을 한순간에 남에게 넘겨준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말했다. “부공제와 괴이도의 말은 매우 옳으니, 어찌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니, 그는 산양 고평 출신의 왕찬이었다. 왕찬은 외모가 수척하고 체구도 작았다. 어릴 적 중랑장 채옹을 찾아갔

을 때, 당시 채옹의 집에는 귀한 손님들이 가득했었다. 채옹은 왕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이 뒤집힐 정도로 서둘러 마중 나갔다. 이를 본 손님들이 모두 놀라며 물었다. “채 중랑장께서는 어찌하여 저 어린 아이를 이토록 정중히 대하십니까?”

그러자 채옹이 대답했다. “이 아이는 남다른 재능을 가졌으니, 내가 미치지 못할 정도라네.”

왕찬은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뛰어나 남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일찍이 길가에 세워진 비석의 글귀를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전부 외워 읊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다가 판이 어지러워지면 다시 정확하게 판을 짜놓을 정도로 수 읽기에 능했다. 또한 산술에도 밝았으며, 문장력 또한 당대 최고라 할 만큼 뛰어났다. 열일곱 살의 나이에 황문시랑으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훗날 난리를 피해 형주 양양으로 왔을 때 유표가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였다.

그때 왕찬이 유종에게 물었다. "장군께서는 스스로 조조와 비교해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종이 대답했다.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찬이 다시 말했다. "조조는 병사들도 강하고 장수들도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략 또한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비에서 여포를 사로잡았고, 관도에서 원소를 꺾었으며, 농우에서 유비를 쫓아내고 백랑산에서 오환족을 격파했습니다. 이처럼 적을 제거하고 평정한 공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가 대군을 이끌고 형주와 양

양으로 남하하고 있으니, 지금의 형세로는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부손과 괴월 두 분이 내놓은 계책이야말로 멀리 내다본 훌륭한 방책입니다. 장군께서는 결코 망설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유종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다만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채부인이 병풍 뒤에서 나타나 유종에게 말했다. "중선, 공제, 이도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놓았는데, 굳이 나에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유종은 결심을 굳히고 항복장을 써서, 송충에게 몰래 조조의 군영으로 가서 바치라고 명했다. 송충은 명령을 받들어 완성까지 달려가 조조를 찾아가 항복장을 올렸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송충에게 큰 상을 내리고, 유종에게 성 밖으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게 하면 그를 영원히 형주의 주인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송충이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형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관우였다. 송충이 미처 피하기도 전에 관우가 그를 불러 세우더니 형주의 사정을 상세히 물었다. 송충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며 숨기려 했으나, 관우의 거듭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간의 일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관우는 크게 놀라 송충을 붙잡아 신야로 가서 유비를 만나 그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통곡했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우선 송충을 베어버리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양양을 점령하고 채부인과 유종을 죽인 뒤에 조조와 맞서 싸웁시다."

유비가 말했다.

"자네는 입을 다물게. 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네."

이어 유비는 송충을 꾸짖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일을 꾸미는 것을 알았으면 어찌 진작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지금 너를 죽인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어서 물러가거라."

송충은 절을 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도망쳐 갔다.

유비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유표의 아들 유기가 보낸 이적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는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적의 은혜를 생각하여, 격식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마중 나가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적이 말했다.

"큰 도련님께서는 지금 강하에 계십니다. 형주목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채부인과 채모 등이 상의하여, 조사를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유종을 주인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사람을 양양으로 보내 알아보게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유비께서 모르고 계실까 염려되어 특별히 제가 애도의 글을 가지고 와

서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유비께서 휘하의 정예 병력을 모두 일으켜 양양으로 가셔서 이 잘못을 물으시기를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유비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적에게 말했다. "이적, 유종이 분수에 넘치게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이미 형주와 양양의 아홉 군을 조조에게 바쳤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구려!" 이적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주공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유비가 송충을 붙잡은 일을 자세히 설명해주자, 이적이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주공께서는 조문한다는 명분으로 양양에 가셔서 유종을 밖으로 유인해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사로잡고 그 무리까지 모두 처단한다면, 형주는 주공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적의 말이 옳습니다. 주공께서는 그 의견을 따르셔야 합니다."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유표 형님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아들을 차지하고 땅을 빼앗는다면, 훗날 저승에서 형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만약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미 조조의 군사가 완성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적을 막아내시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차라리 번성으로 피신하여 적을 피하는 편이 낫겠소."

의논을 이어가던 중, 정찰병이 조조의 군대가 박망파에 도착했다는 급보를 전해 왔다. 유비는 서둘러 이적을 강하로 보내 군마를 정비하게 한 뒤, 제갈량과 함께 적을 물리칠 계책을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지난번 화공으로 하후돈의 군사 절반을 태워버렸으니, 이번에 조조의 군대가 다시 온다 해도 반드시 똑같은 계책에 걸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야에 머물 수 없으니, 서둘러 번성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갈량은 즉시 네 성문에 방을 붙여 주민들에게 알렸다. "노인과 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오늘 즉시 모두 나와 함께 번성으로 피신할 것이니,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또한 손건을 강가로 보내 백성들을 구할 배를 준비하게 했고, 미축에게는 각 가문의 가족들을 번성으로 호송하도록 맡겼다.

이어 제갈량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먼저 관우에게 군사 천 명을 이끌고 백하 상류로 가서 매복하라고 일렀다. "각자 자루를 준비하여 모래를 가득 채워 백하의 물길을 막아두십시오. 그러다 내일 삼경(새벽 1~3시 사이)이 지나 하류 쪽에서 사람들의 함성과 말 울음소리가 들리면, 즉시 자루를 풀어 물을 터뜨려 적을 수장시키십시오. 그 후 물길을 따라 내려가며 적을 공격해 지원하십시오."

다음으로 장비에게는 군사 천 명을 이끌고 보릉도구에 매복하라고 명령했다. "이곳은 물살이 가장 느린 곳이라, 조조의 군사가 물에 잠기면 반드시 이곳을 통해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때 기세를 몰아 공격하며 지원하십시오."

또 조운에게는 "군사 삼천 명을 이끌고 네 부대로 나누십시오. 당신은 한 부대를 이끌고 동문 밖에 매복하고, 나머지 세 부대는 각각 서문, 남문, 북문에 나누어 매복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성 안의 민가 지붕 위에 유황과 초석 같은 불쏘시개를 많이 숨겨두십시오. 조조의 군사가 성에 들어오면 반드시 민가에서 쉬어갈 것입니다. 내일 황혼 무렵에는 반드시 큰 바람이 불 것이니,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서문, 남문, 북문의 매복군에게 화살을 성 안으로 쏘라고 명령하십시오. 성 안의 불길이 거세지면 성 밖에서 함성을 질러 기세를 높이고, 오직 동문만 열어 적들이 도망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 후 당신은 동문 밖에서 적의 뒤를 치십시오. 날이 밝으면 관우, 장비 두 장수와 합류하여 번성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미방과 유봉에게는 군사 이천 명을 이끌고 깃발의 절반은 붉은색, 절반은 푸른색으로 나누어 신야성 밖 30리 지점인 작미파 앞에 진을 치게 했다. "조조의 군대가 나타나면 붉은 깃발 부대는 왼쪽으로, 푸른 깃발 부대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십시오. 적이 의심하여 감히 추격하지 못할 때, 두 사람은 각자 흩어져 매복하십시오. 성 안에 불이 나면 패퇴하는 적을 추격한 뒤, 백하 상류에 있는 군대와 합류하십시오."

제갈량이 모든 분업을 마친 뒤, 유비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 승전보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조인과 조홍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앞장섰는데, 그 선봉에는 이미 허저가 3천 명의 철갑 기병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신야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이날 정오 무렵, 군대가 작미파에 이르자 언덕 앞

에 청색과 홍색 깃발을 든 한 무리의 군마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허저가 군사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유봉과 미방이 군사를 네 떼로 나누어 청색과 홍색 깃발을 각각 좌우로 배치했다. 허저가 말을 멈춰 세우며 명령했다. "잠시 진격을 멈춰라. 앞에는 분명 매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일단 이곳에 머문다." 허저가 말을 타고 달려가 앞 부대인 조인에게 이 사실을 급히 보고했다. 그러자 조인이 말했다. "저것은 적을 속이려는 의병일 뿐, 분명 매복은 없을 것이다. 속히 진격하라. 내가 곧 군사를 독촉하여 뒤따라가겠다."

허저가 다시 언덕 앞으로 돌아와 군사를 이끌고 돌진했다. 숲 아래까지 쫓아가 살펴보았으나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 무렵, 허저가 막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 보니 산꼭대기에 깃발이 무더기로 꽂혀 있었고, 그 깃발 사이로 우산 두 개가 보였다. 왼쪽에는 유비가, 오른쪽에는 제갈량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허저가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길을 찾아 산을 오르려 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내려오는 바람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산 뒤편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까지 들려왔다. 허저가 길을 찾아 싸워보려 했으나 이미 날이 너무 저물어 버렸다.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군사들에게 신야성에 들어가 말을 쉬게 하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이 성 아래에 이르러 보니, 성문의 네 곳이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조조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돌진했으나 가

로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성 안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텅 빈 성이었다.

조홍이 말했다. "저들은 세력이 외롭고 계책마저 다했기에, 백성들을 데리고 모두 도망쳐 버린 것이오. 우리 군사들은 일단 성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진군합시다."

이때 각 부대의 군사들은 행군에 지쳐 몹시 허기진 상태였으므로, 모두들 음식을 만들 곳을 찾아 흩어졌다. 조인과 조홍도 관아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 초경이 지난 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때 문을 지키던 군사가 불이 났다고 다급히 보고했다. 조인이 말했다. "분명 군사들이 밥을 짓다가 부주의하여 불이 번진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문과 남문, 북문 세 곳에서 연달아 불길이 치솟았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인이 다급히 장수들에게 말에 오르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미 온 현성에 불길이 번져 하늘과 땅이 온통 붉게 물든 뒤였다. 그날 밤의 불길은 며칠 전 박망파에서 진영을 태웠던 불보다 훨씬 더 거세고 무시무시했다. 후대의 어떤 시인은 이 광경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읊으며 탄식했다.

"간웅 조조가 중원을 지키더니, 구월에 남정을 떠나 한천에 이르렀네. 바람의 신이 노하여 신야현에 임하니, 불의 신이 하늘 끝까지 불꽃을 뿌리누나."

조인이 장수들을 이끌고 불길을 피해 길을 찾아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중, 동문 쪽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쪽으로 빠

져나갔다. 군사들은 서로 짓밟으며 엉키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인 일행이 겨우 화마를 벗어나려던 찰나, 뒤편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쳐 혼전이 벌어지자, 패배한 군사들은 제 목숨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 누구 하나 뒤를 돌아 싸우려 들지 않았다.

미방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한 차례 몰아치자, 조인이 크게 패해 길을 뚫고 도망쳤다. 이어 유봉이 또 다른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추격하며 한 차례 더 몰아쳤다. 새벽 네 시경이 되자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군사들 태반은 머리와 얼굴이 까맣게 타버린 엉망진창인 상태였다. 겨우 백하 강가에 다다랐을 때, 다행히 강물이 그리 깊지 않아 사람과 말 모두 강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한편, 관우는 상류에서 천으로 만든 자루를 이용해 강물을 막아 세웠다. 해 저물 무렵 신야성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지켜보던 관우는, 새벽 네 시경이 되자 하류 쪽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포착했다. 관우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막아두었던 자루를 일제히 걷어치우게 했다. 그러자 거대한 물결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며 하류로 무섭게 몰아쳤고, 조조군의 군사와 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 그 수가 실로 엄청났다. 조인은 장수들을 이끌고 물살이 완만한 곳을 찾아 급히 도망쳤다. 그러나 보릉도구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커다란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한 군대가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장수는 바로 장비였다. 장비가 크게 외쳤다.

"조조의 도적놈들아, 어서 나와 목숨을 내놓아라!"

조조군은 크게 놀라 자빠졌다.

성안에서는 붉은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물가에서는 검은 바람이 몰아치는구나. 조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1회 — 유현덕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조자룡이 홀로 말을 달려 주군을 구하다

劉玄德攜民渡江 趙子龍單騎救主

한편, 장비는 관우가 상류의 수문을 열어준 덕분에 하류에서 적을 덮쳐 조인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몰아붙였다. 그러다 갑자기 허저와 마주쳐 맞붙게 되었는데, 허저는 장비의 기세에 눌려 감히 싸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틈을 타 도망쳤다. 장비가 뒤쫓아오자 유비와 제갈량이 합류하여 모두 함께 강을 따라 상류로 이동했다. 이미 배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던 유봉과 미방의 안내를 받아 일행은 모두 강을 건넜고, 곧장 번성을 향해 나아갔다. 그 후 제갈량은 적들이 다시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배와 뗏목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리게 했다.

한편, 조인은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신야에 주둔시킨 뒤, 조홍을 조조에게 보내 패배한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조조가 크게 노하며 외쳤다. "제갈량 그 미천한 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조조는 즉

시 삼군을 움직여 산과 들을 가득 메울 정도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신야 아래에 진을 쳤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산을 뒤지며 수색하는 동시에 백하의 물길을 막아 흐름을 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군을 여덟 갈래로 나누어 번성을 한꺼번에 공격하게 했다. 이때 유엽이 말했다. "승상께서 양양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는 반드시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유비가 신야의 백성들을 모두 번성으로 옮겨 놓았는데, 만약 우리 군대가 곧장 진격한다면 두 현의 백성들은 가루가 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비가 항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만약 유비가 항복해 온다면 싸우지 않고도 형주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말을 따르며 곧 물었다.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면 좋겠소?"

유엽이 말했다. "서서는 유비와 사이가 매우 두터운 사람입니다. 지금 군중에 있으니, 그를 시켜 한번 다녀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그가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소."

유엽이 대답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조는 곧 서서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지금 번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 하나, 가련한 백성들의 목숨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고 있소. 그대가 가서 유비에게 전하시오. 만약 항복한다면 죄를 면해주고 작위를 내릴 것이나, 만약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군사와 백성이 함께

죽게 되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이오. 나는 그대의 충의를 믿기에 특별히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부디 나를 배신하지 마시오."

서서는 명령을 받고 번성으로 향했다. 유비와 제갈량은 그를 맞이하여 옛 정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서가 말했다.

"조조가 저를 보내 주군께 항복을 권하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는 속셈입니다. 지금 저쪽은 여덟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백하를 메워 흐르게 하며 진격해 오고 있으니, 번성은 아마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둘러 피난할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유비는 서서를 붙잡아 두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서서는 사양하며 말했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렵습니다. 이미 노모를 여의고 평생의 한을 품고 있으니, 몸은 비록 저쪽에 있더라도 결코 그들을 위해 어떠한 계책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군께는 이미 와룡이 보필하고 있으니, 어찌 큰 대업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십니까?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비는 차마 서서를 강제로 붙잡아 두지 못했다.

서서가 작별을 고하고 돌아가 조조를 만났으나, 유비가 항복할 뜻이 전혀 없음을 전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그날로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계책을 묻자, 제갈량이 말했다.

"번성을 속히 버리고 양양으로 가서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나를 따르고 있는데, 어찌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소?"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 널리 알리십시오.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같이 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남으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먼저 관우를 강가로 보내 배들을 정돈하게 했다. 이어 손건과 간옹을 성안으로 보내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

"이제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칠 것이니, 이 외로운 성을 오래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모두 강을 건너 같이 갑시다!"

두 현의 백성들이 일제히 크게 외쳤다. "저희는 죽더라도 사군(使君, 유비)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은 그날로 통곡하며 길을 떠났다.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를 이끌며 남녀를 데리고 꾸역꾸역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 양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비는 크게 통곡하며 말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큰 난리를 겪게 되었으니, 내가 살아 무엇하겠는가!" 유비가 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만류하며 말렸고, 이를 듣는 이들마다 모두 통곡했다. 배가 남쪽 기슭에 닿았을 때 유비가 뒤를 돌아보니,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백성들이 남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유비는 급히 관우에게 배를 재촉해 저들을 건너게 하라고 명령

한 뒤에야 비로소 말에 올라탔다. 유비가 양양 동문에 이르니, 성 위에는 깃발이 가득 꽂혀 있고 해자 주변에는 가시 돋친 녹각이 빽빽하게 깔려 있었다. 유비는 말을 멈춰 세우고 크게 외쳤다. "유종 조카님! 나는 오직 백성들을 구하고자 할 뿐 다른 뜻은 없으니,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유종은 유비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때 채모와 장윤이 적의 높은 망루로 달려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화살을 마구 쏘아대게 했다. 성 밖의 백성들은 모두 망루를 바라보며 통곡했다. 그때 성안에서 갑자기 한 장수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망루로 올라가더니 크게 외쳤다. "채모와 장윤, 이 나라를 파는 역적놈들아! 유 사군(劉使君)은 인덕을 갖춘 분으로, 지금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의탁하러 오시는 것인데 어찌하여 막아서느냐!" 사람들이 그를 살펴보니 키가 8척에 달하고 얼굴색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었다. 그는 의양 사람인 위연으로, 자는 문장이었다.

그때 위연이 칼을 휘둘러 성문을 지키던 장수와 군사들을 베어 넘기고 성문을 열었다. 이어 조교(弔橋, 매단 다리)를 내린 뒤 크게 외쳤다. "유황숙께서는 어서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함께 나라를 판 역적들을 처단합시다!" 장비가 즉시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유비가 급히 말리며 말했다. "백성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하게!" 그러나 위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비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불러댔다. 이때 성 안에서 한 장수가 말을 달려 군사를 이끌고 뛰어나오더니 크게 호통을 쳤다. "위연, 이름도 없는 졸개 놈이 감히 어디서 난동을 피우느냐! 나 대장 문빙(文聘)을 알아보지 못하느

냐!" 위연은 크게 분노하여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문빙과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양쪽 군사들이 성벽 근처에서 뒤엉켜 싸우니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백성을 보호하려 했건만, 도리어 백성을 해치게 되었구나! 나는 양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강릉은 형주의 요충지이니, 차라리 먼저 강릉을 거점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내 마음도 바로 그렇다." 이에 유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양양의 큰길을 벗어나 강릉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양양 성 안에 있던 백성들도 난리통을 틈타 성 밖으로 빠져나와 유비를 따라나섰다. 한편, 위연은 문빙과 맞서 싸웠는데, 사시(오전 9~11시)부터 미시(오후 1~3시)에 이르는 치열한 전투 끝에 수하의 병사들이 모두 전멸하고 말았다. 위연은 결국 말을 몰아 도망쳤으나 유비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장사 태수 한현에게로 몸을 피했다.

한편, 유비와 함께 피난길에 오른 군민은 십여만 명에 달했고, 크고 작은 수레도 수천 대였으며, 짐을 메고 배낭을 멘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길을 지나다 유표의 묘를 마주하자, 유비는 장수들을 거느리고 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슬프게 울며 말했다. "부끄럽게도 동생 유비는 덕도 재주도 부족하여, 형님께서 맡겨주신 중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저 혼자만의 잘못이지 백성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형님의 영령께서 형주와 양양의 백성들을 굽어살펴 구원해 주시옵소서!" 유비의 말이 매우 비장하고 애절하여, 군사와 백성들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갑자기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급히 보고했다. "조조의 대군이 이미 번성에 주둔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 배와 뗏목을 정비하게 했으니, 바로 오늘 강을 건너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수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강릉은 요충지이니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만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하루에 겨우 열 리 남짓 이동하고 있으니, 이 속도로는 언제 강릉에 도착하겠습니까? 만약 조조의 군사가 도착하면 어떻게 적을 맞이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잠시 백성들을 버려두고 먼저 피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큰일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어찌 그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유비의 이 말을 듣고 모두 깊이 감동했다. 후대의 어떤 이가 그를 기리며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 간직하니, 배에 올라 눈물 흘리는 모습 삼군을 감동시켰네. 오늘날까지 양강 어귀에서 그를 추모하니, 노인들은 여전히 그 어진 마음을 기억하노라."

한편, 유비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길을 떠났다. 이때 제갈량이 말했다. "추격군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관우를 강하로 보내 유기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하십시오. 유기가 즉시 군사를 일으켜 배를 타고 강릉에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비가 이 말을 따랐다. 유비는 즉시 서신을 써서 관우가 손건과 함께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강하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했고, 장비에게는 후방을 지키며 적의 추격을 막으라 명했다. 조운은 노약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게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백성들을 돌보며 이동하도록 했다. 그들은 매일 겨우 십여 리를 이동하고 나서야 겨우 쉴 수 있었다.

한편, 조조는 번성에 머물며 사람을 강 건너 양양으로 보내 유종을 만나라고 명령했다. 유종은 겁에 질려 감히 나가지 못하자, 채모와 장윤이 대신 가겠다고 청했다. 이때 왕위가 유종에게 몰래 고했다. "장군께서 이미 항복하셨고 유비마저 도망쳤으니, 조조는 분명 방심하여 대비가 허술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별도의 정예병을 일으켜 험한 곳에 매복시킨 뒤 조조를 습격하십시오. 그러면 조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조조를 잡는다면 천하에 위엄을 떨칠 것이며, 중원이 아무리 넓다 한들 격문을 내려 다스리면 금방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종은 왕위의 말을 채모에게 전했다. 그러자 채모가 왕위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천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감히 망언을 늘어놓느냐!" 왕위가 화가 나서 맞서며 소리쳤다. "나라를 파는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의 살점을 산 채로 씹어 먹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채모가 왕위를 죽이려 했으나, 괴월이 말려 만류했다. 결국 채모는 장윤과 함께 번성으로 가서 조조를 알현했다. 채모 일행은 매우 아첨하는 태도로 조조를 대했다. 조조가 물었다. "형주의 군마와 군량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채모가 대답했다. "기마병 5만, 보병 15만, 수군 8만으로 총 28만 명입니다. 군량의 대부분은 강릉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도 1년 동안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전

함은 얼마나 되며, 원래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채모가 말했다. "크고 작은 전함이 모두 7천여 척이며, 원래 저희 두 사람이 관리해 왔습니다."

조조는 채모를 진남후로 삼고 수군 대도독으로 임명했으며, 장윤은 조순후로 삼고 수군 부도독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조조에게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했다. 조조가 다시 말했다. "유표가 죽고 그 아들 유종이 항복했으니, 내가 천자께 상소를 올려 유종이 계속 형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 두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물러갔다.

이 모습을 본 순유가 말했다. "채모와 장윤은 아첨하는 무리일 뿐인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이들에게 이토록 높은 관직을 내리고 수군 대도독의 자리까지 맡기시는 것입니까?"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모른단 말이오? 다만 내가 거느린 북방 군사들이 수전에 익숙하지 않으니, 잠시 권한을 주어 이 두 사람을 쓰는 것뿐이오. 일이 다 성사된 뒤에는 따로 다른 방도를 마련할 것이니 걱정 마시오."

한편, 채모와 장윤은 유종을 찾아가 조조가 장군을 형주와 양양 지역에 영원히 머물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종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유종은 어머니 채부인과 함께 인장과 병부를 받들고 직접 강을 건너 조조를 맞이하러 나갔다. 조조는 유종을 다독이며 위로한 뒤, 수행하던 장수들을 거느리고 양양 성 밖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채모와 장윤은 양양의 백성들에게 향을 피워 조조를 맞이하게 했다. 조조는 백성들에게 모두 부드러운 말로 달래며 안심시켰다. 성 안으로 들어가 관저에 자리를 잡은 조조는 즉시 괴월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형주를 얻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도(異度, 괴월)를 얻은 것이 기쁘다." 그러고는 괴월을 강릉 태수와 번성후로 봉했다. 부손과 왕찬 등도 모두 관내후가 되었으며, 유종을 청주자사로 임명하고 곧바로 길을 떠나게 했다.

유종은 명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저는 관직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청주는 황제의 도읍과 가깝다. 네가 조정의 관리가 되어야 형주에서 해를 입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이 몇 번이고 거듭 사양했으나 조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유종은 어머니 채부인과 함께 청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를 따르던 왕위만 남았을 뿐, 나머지 관리들은 모두 강가까지 배웅한 뒤 돌아갔다. 조조가 우금에게 불러 명령했다. "너는 가벼운 기병을 이끌고 유종의 모자를 뒤쫓아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

우금은 명령을 받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 크게 외쳤다. "나는 승상의 명을 받들어 너희 모자를 죽이러 왔다! 어서 머리를 내놓아라!" 채부인은 유종을 품에 안고 크게 울부짖었다. 우금이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자, 왕위가 분노하여 힘껏 맞서 싸웠으나 결국 수많은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다. 군사들은 유종과 채부인마저 죽이고 말았다. 우금이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하자 조조는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어 조조는 사람을 보내 융중에서 제갈량의 처자식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사실 제갈량은 이미 사람을 시켜 그들을 삼강 안쪽으로 옮겨 숨겨둔 상태였기에, 조조는 이를 몹시 원망하며 분해했다.

양양이 평정되자 순유가 나아가 말했다. "강릉은 형주의 요충지로서 재물과 식량이 매우 풍족한 곳입니다. 만약 유비가 이곳을 차지한다면 좀처럼 흔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잊었겠느냐?" 조조는 즉시 양양의 여러 장수 중에서 군사를 이끌고 길을 열 장수를 선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장수들 중에서 유독 문빙만 보이지 않았다. 조조가 사람을 보내 찾아보니 문빙은 그제야 막 도착한 참이었다. 조조가 물었다. "어찌 이리 늦었느냐?" 문빙이 대답했다. "신하된 도리로 주군을 도와 영토를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워 감히 일찍 뵙지 못했습니다." 말을 마친 문빙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충신이로구나!" 조조는 문빙을 강하 태수로 임명하고 관내후의 작위를 내린 뒤, 그에게 군사를 이끌고 길을 열게 했다. 이때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유비가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에 겨우 십여 리씩 이동하고 있으며, 남은 거리는 300여 리 정도 됩니다." 조조는 각 부대에서 정예 철기병 5천 명을 선발하게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진하게 했으며, 하루 낮밤 안에 유비를 따라잡으라고 명령했다. 대군은 그 뒤를 이어 차례로 진격했다.

한편, 유비는 십수만 명의 백성과 삼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줄을 지어 차례차례 강릉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다. 조운은 노약자들을 보호하며 앞장섰고, 장비는 뒤를 따르며 적의 추격을 막았다.

이때 제갈량이 말했다. "관우가 강하로 떠난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군사께서 직접 한번 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기가 예전의 가르침에 감격해 있으니, 만약 군사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면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제갈량이 이를 승낙하고, 곧바로 유봉과 함께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하로 구원을 요청하러 떠났다.

그날 유비는 간옹, 미축, 미방과 함께 길을 나섰다. 한창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말 앞에서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흙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아 붉은 해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유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징조냐?"

음양의 이치에 밝았던 간옹이 소매 속에서 점을 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외쳤다.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오늘 밤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주군께서는 어서 백성들을 뒤로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백성들이 신야에서부터 나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간옹이 다시 말했다.

"주군께서 미련을 두어 버리지 못하신다면, 재앙이 머지않아 닥칠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앞에 있는 곳이 어디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다.

"앞에는 당양현이 있습니다. 경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유비는 즉시 그 산 근처에 진을 치도록 명령했다.

때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 찬 바람이 뼈를 찌를 듯 매서웠고, 황혼이 가까워지자 들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경(四更, 새벽 2시경)이 되었을 때, 북서쪽에서 땅을 울리는 함성이 몰려오는 것이 들렸다. 유비는 크게 놀라 급히 말을 타고 본대의 정예병 이천여 명을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다. 하지만 조조의 군사가 밀려드는 기세가 워낙 거세서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유비가 죽기 살기로 싸우던 위급한 순간, 다행히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혈로를 뚫어준 덕분에 유비는 동쪽을 향해 겨우 퇴각할 수 있었다. 이때 문빙이 앞장서서 길을 가로막자 유비가 꾸짖었다. "주군을 배신한 도적놈이 무슨 낯으로 사람을 보려 하느냐!" 문빙은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군사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가버렸다. 장비는 유비를 보호하며 싸우고 또 싸우며 계속 도망쳤다. 날이 밝을 때까지 달린 끝에 함성 소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듣고서야 유비는 겨우 말을 멈추었다. 곁에 남은 부하를 살펴보니 기병은 백여 명뿐이었고, 백성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미축, 미방, 간옹, 조운 등은 모두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유비는 통곡하며 말했다. "십수만 명의 백성이 나를 따르려다 이 큰 재난을 당

했구나. 장수들과 노약자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으니, 나무나 돌 같은 무생물이라 해도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한창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방이 화살을 몇 대 맞은 채 비틀거리며 달려와 외쳤다. "조운이 조조에게 항복하러 갔습니다!" 유비가 꾸짖으며 말했다. "조운은 나의 오랜 벗인데, 어찌 쉽게 배신하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지금 우리 형편이 궁지에 몰리고 힘이 다한 것을 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조조에게 붙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조운은 내가 어려울 때부터 함께해 온 사람이다. 마음이 철석같아서 부귀영화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미방이 다급히 말했다. "저는 분명히 그가 북서쪽으로 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장비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찾아내겠다. 만약 마주치기라도 하면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유비가 장비를 말렸다. "의심을 잘못하지 마라. 네 둘째 형(관우)이 안량과 문추를 벤 일을 잊었느냐? 조운이 저렇게 간 것은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나는 조운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장비는 그 말을 듣고는 곧장 기병 스무여 명을 이끌고 장판교로 달려갔다. 다리 동쪽에 나무가 우거진 곳을 본 장비는 꾀를 하나 냈다. 그는 부하 스무여 명에게 나무가지를 꺾어 말꼬리에 묶으라고 시킨 뒤, 숲속에서 말들을 이리저리 달리게 했다. 그러자 숲에서 엄청난 먼지가 일어올라 마치 대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사이 장비는 직접 창을 가로로 들고 말 위에 올라타 다리 위에 버티고 서서 서쪽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한편, 조운은 사경(四更, 새벽 2시경)부터 조조의 군사와 뒤엉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밤새도록 적진을 드나들며 싸우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으나, 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유비의 노소 가족들마저 모두 놓치고 말았다. 조운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께서 감부인과 미부인, 그리고 어린 주인 아두를 내게 맡기셨거늘, 오늘 전란 중에 이들을 놓쳤으니 대체 무슨 면목으로 주인을 뵐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라도 반드시 주모님과 어린 주인의 행방을 찾아내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곁을 지키는 병사는 서른에서 마흔 명 정도뿐이었다. 조운은 말을 몰아 혼란스러운 군중 속을 헤치며 찾아 나섰다. 사방에서는 두 현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고,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린 채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운이 급히 달려가던 중, 풀숲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간옹이었다. 조운이 다급히 물었다.

"두 분 부인을 보셨습니까?"

간옹이 대답했다.

"두 부인께서는 수레와 짐을 모두 버려두고 아두를 품에 안은 채 달아나셨습니다. 저도 말을 타고 급히 뒤쫓아 산등성이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한 장수가 나타나 창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그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고 말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싸워보려 했으나 역부족이라 이렇게 이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운은 즉시 부하가 타고 있던 말 한 마리를 간옹에게 내주어 타고 가게 했다. 그러고는 부하 두 명에게 간옹을 잘 부축하여 먼저 보내며 주군께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일렀다.

"어서 가서 주군께 전하십시오. 저는 하늘 끝까지 쫓아가든 땅 밑까지 뒤지든, 어떻게 해서든 부인들과 어린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조운은 말머리를 돌려 장판파를 향해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크게 외치며 물었다.

"조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조운이 말에서 내려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가 대답했다.

"저는 유비 장군님 휘하에서 수레와 짐을 호송하던 병사인데, 화살을 맞고 이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운이 즉시 두 부인의 소식을 물었다. 병사가 대답했다.

"방금 감부인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뛰어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백성 부녀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치고 계십니다."

조운은 주변의 군사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급히 말을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다 남녀 수백 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줄지어 가는 백성 무리를 발견했다. 조운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중에 감부인이 계십니까?" 뒤따라오던 감부인이 조운을 발견하고는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조운은 말에서 내려 창을 꽂아두고 함께 울며 말했다. "주인어른의 부인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는 제 죄입니다! 미부인과 어린 주인님은 어디 계십니까?" 감부인이 대답했다. "나와 미부인은 쫓기느라 수레와 짐을 모두 버리고 백성들 틈에 섞여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 흩어지는 바람에 미부인과 아두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중, 또 다른 군사 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조운이 창을 뽑아 들고 말에 올라타 살펴보니, 눈앞의 말 위에 한 사람이 묶여 있었는데 바로 미축이었다. 그 뒤로는 커다란 칼을 든 장수 하나가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으니, 바로 조인의 부하 순우도였다. 순우도는 미축을 붙잡아 공을 세우려고 끌고 가던 참이었다. 조운이 크게 호통을 치며 창을 겨누고 말을 달려 순우도를 향해 돌진했다. 순우도는 조운의 기세에 밀려 버티지 못하고 창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으며, 조운은 그 틈을 타 미축을 구하고 말 두 필을 빼앗았다. 조운은 감부인을 말에 태운 뒤, 피로 물든 길을 헤치며 장판교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장비가 다리 위에서 창을 옆으로 뉘어 말을 탄 채 버티고 서 있더니, 크게 소리쳤다. “조운! 네가 어찌하여 내 형님을 배신한단 말이냐?” 조운이 말했다. “주인 부인과 어린 주인님을 찾지 못해 뒤처진 것뿐인데,

어찌 배신이라 하십니까?" 장비가 말했다. "간옹이 미리 와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너를 만났을 때 내 어찌 가만두었겠느냐!" 조운이 물었다. "주군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장비가 대답했다. "앞에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 조운이 미축에게 말했다. "미자중, 우선 감부인님을 먼저 모시고 가십시오. 저는 다시 미부인님과 어린 주인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조운은 기병 몇 명을 이끌고 다시 옛길로 되돌아갔다.

한창 말을 달려 나아가는데, 한 장수가 철창을 손에 들고 등에 칼 한 자루를 멘 채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조운은 말할 것도 없이 곧장 그 장수를 공격했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맞붙은 지 단 한 합 만에 조운이 창으로 그 장수를 쓰러뜨리자, 나머지 기병들도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알고 보니 그 장수는 조조가 늘 곁에 두고 쓰던 칼을 지키던 장수 하후은이었다. 조조에게는 두 자루의 보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천검'이고 다른 하나는 '청강검'이었다. 조조는 의천검을 직접 차고 다녔으며, 청강검은 하후은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그 청강검은 쇠를 진흙처럼 벨 정도로 날카로움이 비할 데가 없었다.

당시 하후은은 자신의 용맹을 믿고 그 검을 등에 멘 채, 사람들을 약탈하고 끌고 다니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다 뜻밖에 조운과 맞닥뜨렸는데, 조운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조운이 그 검을 빼앗아 보니, 칼날에 '청강'이라는 두 글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어 그것이 보검임을 알게 되었다. 조운은 검을 허리에 차고 다시 창을 들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부하 기병들은 이미 모두 죽고 혼자 남은 처지였다. 그러나 조운은 조금도 물러설 기색 없이 오직 적들 사

이를 누비며 길을 찾았다.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미부인의 소식을 물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인께서 아이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왼쪽 다리에 창을 맞아 걷지 못하시고, 저 앞 담벼락이 무너진 곳에 앉아 계십니다."

조운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뒤를 쫓았다. 그러다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린 흙담이 있는 한 집을 발견했는데, 그곳 마른 우물가에서 미부인이 아두를 품에 안고 앉아 울고 있었다. 조운은 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미부인이 말했다. "장군을 뵙게 되었으니 아두는 이제 살았군요. 부디 이 아이를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아두의 아버지는 평생을 떠돌며 고생만 하다가 이제 남은 혈육이라곤 이 아이뿐입니다. 장군께서 이 아이를 잘 보호하여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조운이 말했다. "부인께서 고난을 겪으시니 모두 저의 죄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 없으니 어서 말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직접 걸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울 테니, 부인께서 반드시 포위망을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지키겠습니다."

미부인이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 어찌 말도 없이 오셨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전적으로 장군께서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중상을 입었으니 죽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부디 장군께서는 어서 이 아이를 안고 앞길을 가십시오. 저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조운이 말했다. "적들의 함성 소리가 가까워지고 추격군이 이미 다 왔습니다. 부인, 어서 말에 올라타십시오!"

미부인이 말했다. "저는 정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두 사람 모두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두를 조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아이의 목숨이 온전히 장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운은 대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미부인에게 말 위에 오르라고 권했지만, 미부인은 끝내 말을 타려 하지 않았다. 사방에서 적군의 함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운이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부인,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추격군이 들이닥쳤을 때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미부인은 아두를 땅에 내려놓고는, 몸을 돌려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 후세의 어떤 이들은 그녀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용맹한 장수는 말의 힘에 의지하거늘, 걸어서 어찌 어린 주군을 보살피겠는가. 목숨을 바쳐 유씨의 대를 잇고자 하니, 그 용맹한 결단은 사내 못지않구나."

조운은 부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보고, 혹시 조조의 군사가 시신을 훔쳐갈까 걱정되어 흙담을 무너뜨려 마른 우물을 덮어버렸다. 일을 마친 조운은 갑옷 끈을 풀고 거울을 내려놓은 뒤, 아두를 품에 안고 창을 움켜쥐며 말에 올라탔다. 이때 한 장수가 보병 부대를 이끌고 나타났는데, 바로 조홍의 부하 안명이었다. 그는 삼첨양인도를 휘두르며

조운에게 달려들었으나, 세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운의 창에 찔려 쓰러졌다. 조운은 이 기세를 몰아 적군을 흩어놓고 길을 열어젖혔다.

한참을 달리던 중, 앞쪽에서 또 다른 군마 무리가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장수의 깃발을 보니 '하간 장합'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조운은 대꾸할 겨를도 없이 곧장 창을 휘두르며 싸움을 시작했다. 열 합 남짓 싸우던 조운은 더 지체하면 위험하겠다 싶어 길을 틀어 도망치려 했다. 뒤에서 장합이 추격해 오자 조운은 말에 채찍질을 하며 속도를 높였으나, 갑자기 말 발굽이 헛돌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말과 함께 흙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장합이 창을 겨누며 찌르려던 찰나, 갑자기 구덩이 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솟구치더니, 말이 허공으로 훌쩍 뛰어올라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후세의 시인이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붉은 빛이 몸을 감싸니 갇혀 있던 용이 날아오르고, 용맹한 말은 장판교의 포위망을 뚫어버렸네. 사십이 년 만에 나타난 진정한 천명의 주인, 장수의 신묘한 위엄이 이로써 드러났구나."

장합이 이를 보고 크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조운이 말을 몰아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두 장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조운, 거기 서라!" 앞에서도 두 장수가 무기를 휘두르며 길을 가로막았다. 뒤에서 쫓아오는 이는 마연과 장의요, 앞에서 가로막는 이는 초촉과 장남이었는데, 모두 원소 휘하에 있던 항복한 장수들이었다. 조운이 네 장수와 힘껏 싸우는 사이 조조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조운은 청강검을 뽑아 휘두르며 사방을 베어 넘겼다. 칼이 움직일 때마다 갑옷이 뚫리고

피가 샘솟듯 뿜어져 나왔다. 조운은 몰려드는 적군을 물리치며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한편, 조조는 경산 정상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가는 곳마다 막강한 위세를 떨치며 적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좌우 측근들에게 저 장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때 조홍이 말을 타고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며 크게 외쳤다.

"군중의 장수여, 그 이름을 밝혀라!"

그러자 조운이 즉각 응답했다.

"나는 상산의 조운이다!"

조홍은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말했다.

"참으로 용맹한 장수로구나! 내가 반드시 살려서 내 사람으로 삼으리라."

조조는 즉시 전령을 보내 곳곳에 명령을 내렸다.

"만약 조운이 나타나면 화살을 쏘아 해치지 말고, 반드시 생포하도록 하라!"

덕분에 조운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 또한 아두의 복이 불러온 일이었다.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조운은 아두를 품에 안고 적진을 거침없이 돌파했다. 그는 적의 깃발 두 개를 베어 넘기고 창 세 자루를 빼앗았으

며, 앞뒤로 창을 찌르고 칼을 휘둘러 조조군의 명장 50여 명을 베어 넘겼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두고 시를 지어 읊었다.

"피로 물든 군복은 갑옷까지 붉게 물들었고, 당양에서 누가 감히 그와 맞서 싸우려 하겠는가! 예부터 적진을 뚫고 위태로운 주군을 구한 이는, 오직 상산의 조운뿐이로다."

조운은 거침없이 적진을 뚫고 나와 이미 대열을 벗어났으나, 갑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한창 길을 가는데 산비탈 아래에서 또 다른 두 갈래의 군사가 나타났다. 바로 하후돈의 부하인 종진과 종신 형제였다. 한 명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고 다른 한 명은 빗창을 들고는 크게 외쳤다. "조운은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호랑이 굴에서 겨우 탈출했더니, 이번에는 용의 연못에서 거센 물결이 몰려오는 격이었다. 과연 조운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2회 — 장익덕이 장판교에서 크게 소란을 피우고, 유예주가 한진구로 패하여 달아나다

張翼德大鬧長阪橋 劉豫州敗走漢津口

한편, 종진과 종신 두 사람이 앞을 가로막으며 조운과 맞서 싸웠다. 조운이 창을 내뻗어 찌르자, 종진이 앞장서서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두 말이 서로 맞부딪치며 싸운 지 세 합도 되지 않아, 조운의 창에 찔린 종진이 말 아래로 떨어지더니 길을 비켜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종신이 창을 들고 쫓아오며 말꼬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그 창끝이 조운의 등 뒤를 겨냥했다. 조운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자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조운은 왼손으로 창을 들어 상대의 창을 막아내고, 오른손으로는 청강보검을 뽑아 휘둘렀다. 칼날이 투구와 머리까지 한꺼번에 베어 넘기자 종신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조운은 겨우 위기를 벗어나 장판교를 향해 달아났다. 그런데 뒤쪽에서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문빙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온 것이었다. 조운이 다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사람도 지치고 말도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그때 장비가 창을 치켜든 채 다리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조운이 크게 외쳤다. "익덕, 나를 도와주시오!" 장비가 대답했다. "자룡, 어서 가시오! 추격군은 내가 막겠소!"

조운이 말을 달려 다리를 건너 20여 리를 가니, 유비가 일행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운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울었다. 유비 역시 함께 울었다. 조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조운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부족합니다! 미부인께서 몸에 큰 부상을 입으신 채 말에 오르기를 거부하시고는 우물에 몸을 던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흙벽으로 우물을 덮어 드리고, 공자님을 품에 안은 채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나왔습니다. 다행히 주군께 큰 복이 있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자님이 품 안에서 울고 계셨는데, 잠시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운이 서둘러 품을 살펴보니, 뜻밖에도 아두는 깊이 잠들어 깨지 않고 있었다. 조운이 기뻐하며 말했다.

"다행히 공자님께서 무사하십니다!"

조운이 두 손으로 아두를 받들어 유비에게 건넸다. 유비는 아두를 건네받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꾸짖었다.

"너 같은 어린놈 때문에 내 귀한 장수 한 명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조운은 급히 바닥에서 아두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고는 울며 절했다.

"저의 충심은 간과 뇌를 땅에 쏟아부을지언정,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후세의 사람이 이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조조의 군대 속에 날랜 호랑이가 나타나니, 조운의 품 안에는 어린 용이 잠들었구나. 충직한 신하의 마음을 달래줄 길이 없어, 제 자식을 말 앞에서 땅에 던졌네."

한편, 문빙이 군사를 이끌고 조운을 쫓아 장판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저 멀리 장판교 위를 보니, 장비가 마치 호랑이 수염을 세운 듯 험악한 기세로 눈을 부릅뜬 채 뱀 모양의 창을 쥐고 말 위에 버티고 서 있었다. 문빙이 다가가려는데, 다리 동쪽 숲 뒤편에서 엄청난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혹시 매복한 군사가 있을까 두려워져 말의 고삐를 당겨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윽고 조인, 이전, 하후돈, 하후연, 낙진, 장료, 장합, 허저 등이 모두 도착했다. 그들은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창을 가로로 든 채 다리 위에 말을 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혹시라도 이것이 제갈량의 계책일까 두려워한 장수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다리 서쪽에서 진을 친 채 대열을 정비하며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소식을 전했다.

조조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말을 타고 진영 뒤쪽에서 나타났다. 장비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뒤쪽 군대에서 푸른 비단 차양과 깃발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장비는 조조가 의심을 품고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것이라 짐작하고는, 목청을 높여 크게 외쳤다.

"나는 연나라 사람 장비다! 누가 감히 나와 목숨을 걸고 싸워보겠느냐!"

그 호통 소리가 마치 거대한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자,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다리를 후들거렸다. 조조는 급히 차양을 거두게 한 뒤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관우에게 듣기로, 장비는 백만 대군 속에서도 장수의 머리를 따는 것이 마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쉽다고 하더니, 오늘 직접 마주하니 결코 적을 얕봐서는 안 되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비가 눈을 부라리며 다시 크게 외쳤다. "연나라 사람 장비가 여기 있다! 누가 감히 나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보겠느냐!" 조조는 장비의 기세가 이토록 당당한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물러날 마음이 생겼다. 장비가 조조의 후군 진영이 움찔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창을 치켜들며 다시 호통쳤다.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러나지도 않다니,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

장비의 호통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조조의 곁에 있던 하후걸은 간담이 서늘해져 놀란 나머지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조조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이에 따라 모든 군사와 장수들도 일제히 서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야말로, 젖내 나는 어린아이가 어찌 벼락 같은 소리를 견뎌내며, 병든 나무꾼이 어찌 호랑이와 표범의 포효를 감당하겠는가. 한순간에 창을 내던지고 투구를 떨어뜨리며 도망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들고 말들은 산이 무너지는 듯 요동치며 서로 짓밟고 엉켰다.

후세의 시인이 이를 두고 이렇게 읊었다.

"장판교 머리에 살기가 감도니, 창을 가로쥐고 말 위에 서서 눈을 부릅떴네. 그 호통 소리 천둥번개와 같으니, 홀로 서서 조조의 백만 대군을 물리쳤구나."

한편, 조조는 장비의 기세에 겁을 먹고 급히 말을 몰아 서쪽으로 도망쳤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머리 장식까지 모두 떨어졌으나, 그는 머리가 풀어헤쳐진 채 정신없이 달아났다. 장료와 허저가 급히 따라붙어 고삐를 붙잡아 주었지만, 조조는 여전히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료가 말했다. "승상,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장비 혼자인데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즉시 군사를 돌려 공격한다면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조조는 안색을 조금 진정시키고, 장료와 허저에게 다시 장판교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했다.

한편, 장비는 조조의 군대가 한꺼번에 물러나는 것을 보고 감히 뒤쫓지 않았다. 대신 서둘러 원래 따르던 스무 명 남짓의 기병을 불러들

여, 말꼬리에 매달았던 나뭇가지를 풀어 치우게 한 뒤 다리를 끊어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말을 돌려 유비에게 돌아와 다리를 끊은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가 말했다. "내 동생이 용맹하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계산이 부족했구나."

장비가 그 이유를 묻자 유비가 대답했다. "조조는 책략이 많은 사람이다. 다리를 끊어버리면 안 되었어. 그러면 저들이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 아니냐."

장비가 말했다. "저들은 내 호통 한 번에 수 리 밖까지 도망쳤는데, 어찌 감히 다시 쫓아오겠습니까?"

유비가 다시 말했다. "만약 다리를 끊지 않았다면, 저들은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군사를 몰고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끊어버렸으니, 저들은 우리가 군사도 없이 겁을 먹었다고 판단하여 반드시 뒤쫓아올 것이다. 저들에게는 백만 대군이 있으니, 설령 강과 한수를 건너야 한다 해도 사람을 메워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건너올 텐데, 어찌 다리 하나 끊어진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을 마친 유비는 즉시 몸을 일으켜 좁은 길을 통해 한진으로 비껴간 뒤, 면양 방면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서둘러 떠났다.

한편, 조조는 장료와 허저를 보내 장판교의 상황을 살피게 했다. 돌아온 보고는 이러했다. “장비가 이미 다리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다리를 끊고 도망친 것을 보니 겁을 먹은 모양이구나.” 그

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군사 만 명을 차출하고, 오늘 밤 안에 건널 수 있도록 잽싸게 부교 세 개를 놓으라고 지시했다. 이때 이전이 말했다. “이것은 제갈량의 속임수일 수 있으니, 함부로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장비는 용맹한 무장인데 어찌 속임수를 쓰겠느냐?” 조조는 곧바로 명령을 내려 군사를 신속히 전진시켰다.

한편, 유비가 한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엄청난 먼지 구름이 일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북소리와 땅을 뒤흔드는 함성이 들려왔다. 유비가 말했다.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추격군이 몰려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유비는 급히 조운에게 명령하여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

한편, 조조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유비는 솥 안의 물고기요, 함정에 빠진 호랑이와 같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 잡지 못한다면,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는 격이요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꼴이 될 것이다. 모든 장수는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라!" 장수들이 명령을 받들자, 저마다 위세를 떨치며 추격에 나섰다.

그때 갑자기 산비탈 뒤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 나오며 크게 외쳤다. "우리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장선 대장수는 청룡도를 손에 쥐고 적토마에 올라타 있었다. 그는 바로 관우였다. 관우는 강하에서 군사 만 명을 구한 뒤, 당양 장판교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을 가로질러 달려온 것이었다. 조조는 관우를 보자마자 말머리를 돌려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

다. "또 제갈량의 계책에 빠졌구나!" 그러고는 대군에게 서둘러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우가 십여 리를 뒤쫓아 달려가 유비를 찾아 한진에서 합류하니, 이미 마중 나온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관우는 유비와 감부인, 그리고 아두를 배 안으로 모셔 자리에 앉게 했다. 관우가 물었다. "형님, 둘째 형수님은 어찌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유비가 당양에서 있었던 일을 슬프게 털어놓았다. 관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예전에 허전에서 사냥할 때 제 뜻을 따랐더라면, 오늘 같은 화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나 역시 그때는 쥐를 잡으려다 그릇을 깨뜨릴까 염려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강남 기슭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배들이 개미 떼처럼 돛을 높이 올리고 바람을 타고 다가왔다. 유비는 깜짝 놀랐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흰 도포에 은빛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배 머리에 서서 크게 외치는 것이 보였다.

“숙부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조카가 늦게 찾아와 결례를 범했습니다!”

유비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유기였다. 유기가 배에서 내려 울며 절을 올렸다.

“숙부님께서 조조에게 쫓겨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특별히 마중을 나왔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군사를 합쳐 함께 이동했다. 배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서쪽에서 전투선들이 일렬로 늘어서더니 바람을 타고 휘파람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유기가 놀라서 말했다. "강하의 병사들은 이미 제가 모두 이곳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함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조조의 군대가 아니라면 분명 강동의 군대일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유비가 배 머리로 나가 살펴보니, 한 사람이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쓴 채 배 앞머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제갈량이었다. 그 뒤에는 손건이 서 있었다. 유비는 당황하며 그를 배 안으로 모셔 들인 뒤,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는지 물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강하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관우에게 명하여 한진에서 육지로 나와 마중하게 했습니다. 조조가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주공께서는 강릉 쪽으로 오지 않고 반드시 한진 쪽을 가로질러 오실 것이기에, 미리 유기 공자를 보내 마중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곧장 하구로 가서 군사를 모두 일으켜 돕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들을 한데 모아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논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하구성은 지세가 험준하고 군량도 넉넉하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우선 하구에 머무르시지요. 공자께서는 스스로 강하로 돌아가 전선과 무기를 정비하여 주공과 의각지세(犄角之勢)를 이루

어 조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 모두가 강하로 한꺼번에 몰려 간다면 오히려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기가 말했다.

"군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숙부님께서 잠시 강하에 오셔서 군마를 정비하여 채비를 갖추신 뒤에, 다시 하구로 돌아오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조카의 말도 일리가 있다."

유비는 결국 관우를 남겨 오천 명의 군사를 맡겨 하구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유비와 제갈량, 유기는 함께 강하로 향했다.

한편, 조조는 관우가 마른 길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는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또한 수로를 통해 유비가 먼저 강릉을 차지할까 걱정되어, 밤을 도와 군사를 이끌고 강릉으로 급히 향했다. 한편, 형주의 치중인 등의와 별가 유선은 양양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조조의 대군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 판단하여 형주의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항복했다.

조조가 성에 들어와 민심을 안정시키고 한숭을 감옥에서 풀어준 뒤 대홍로라는 관직을 내렸다. 나머지 관리들에게도 저마다 상을 내렸다. 조조가 장수들과 모여 의논하며 말했다.

"지금 유비가 강하로 도망쳤으니, 아마 동오와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인데, 어찌해야 그를 꺾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순유가 말했다.

"지금 우리 군의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으니, 사신을 보내 강동에 격문을 보내십시오. 손권에게 강하에서 함께 유비를 잡자고 제안하며, 유비를 잡은 뒤 형주 땅을 나누어 가지면 영원히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손권은 놀라며 우리 편으로 붙을 것이니, 그때가 되면 우리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조는 순유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동오에 사신을 보내 격문을 전달하게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말과 보병, 수군을 합쳐 총 83만 명을 100만 명이라고 거짓으로 일컬었다. 조조의 군대는 수군과 육군이 함께 나아가고 배와 기병이 나란히 진군하며 강을 따라 다가왔는데, 서쪽으로는 형협에 닿고 동쪽으로는 기황까지 이어지며 300여 리에 달하는 진영과 울타리를 길게 연결했다.

이야기는 양쪽으로 갈라진다. 한편, 강동의 손권은 시상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조조의 대군이 양양에 이르렀고 유종이 이미 항복했으며,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해 강릉까지 점령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손권은 즉시 여러 모사들을 모아 방어책을 논의했다.

노숙이 말했다. "형주는 나라와 맞닿아 있어 지세가 험하고 견고하며, 백성들은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차지하여 다

스린다면 제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유표가 세상을 떠났고 유비도 패퇴했으니, 제가 명을 받들어 강하로 가서 조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서 유비를 설득해 유표의 남은 장수들을 다독이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조를 함께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유비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노숙에게 예물을 들려 강하로 조문을 가게 했다.

한편, 유비가 강하에 도착하여 제갈량, 유기와 함께 좋은 대책을 논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의 세력이 워낙 강대하여 지금 당장은 적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동오의 손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 맞서 싸우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 어찌 안 되겠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강동에는 인재가 아주 많으니 그들에게 분명 원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어찌 우리를 쉽게 받아주겠는가?"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강한 세력으로 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강동에서 어찌 정보를 탐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곳으로 온다면, 제가 배를 빌려 강동까지 데려다주겠습니다.

가서 그 뛰어난 말재주로 이렇게 설득하십시오. 남쪽과 북쪽의 두 군대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한다고요. 만약 남쪽 군대가 이기면 함께 조조를 처단하고 형주 땅을 차지하면 되고, 만약 북쪽 군대가 이기면 우리는 그 기세를 몰아 강남 지역을 차지하면 됩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 논리가 참으로 높구나. 하지만 어떻게 강동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겠느냐?"

한편, 강동의 손권이 노숙을 보내 조사를 하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배가 이미 강가에 닿았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큰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유기에게 물었다.

"예전에 손책이 죽었을 때, 양양에서 조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유기가 대답했다.

"강동은 우리 집안과 부친을 죽인 원수 사이인데, 어찌 조문하는 예우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다면 노숙이 온 것은 조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 상황을 살피러 온 것이군요."

이어 제갈량이 유비에게 일렀다.

"노숙이 도착해서 만약 조조의 움직임을 묻는다면, 주공께서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노숙이 몇 번이고 다시 물으면, 그때 제갈량에게 물어보라고만 말씀하십시오."

계책을 세운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노숙을 맞이하게 했다. 노숙은 성 안으로 들어가 조문하며 예물을 받았고, 유기가 노숙에게 유비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했다. 예절을 마친 뒤에는 노숙을 뒷방으로 모셔 술을 대접했다.

노숙이 말했다. "황숙의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만날 인연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최근 황숙께서 조조와 맞붙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조의 전력을 분명 잘 알고 계시겠지요. 조조의 군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내 병력이 너무 적고 미약하여, 조조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피하느라 그 전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황숙께서 제갈량의 계책을 써서 두 번이나 불을 질러 조조의 혼을 쏙 빼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전력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갈량에게 물어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숙이 말했다. "제갈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불러 노숙을 맞이하게 했다. 노숙은 제갈량을 보고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린 뒤 물었다.

"전부터 선생의 재능과 덕망을 흠모하여 꼭 한번 뵙기를 바랐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처한 안위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조조의 간악한 계략은 이미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미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단 피하는 중입니다."

노숙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황숙께서는 이제 이곳에 머무실 계획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사군께서는 창오 태수 오신과 오랜 친분이 있어, 그에게 의탁하러 가려 합니다."

그러자 노숙이 말했다.

"오신은 군량도 적고 병력도 미약하여 스스로를 지키기도 버거운 처지인데, 어찌 다른 사람까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오신의 처지가 비록 오래 머물 만한 곳은 못 되지만, 일단 잠시 몸을 의탁하며 따로 세워둔 좋은 계책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노숙이 말했다. "손권 장군은 여섯 군을 호령하며 정예 병력과 풍족한 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재를 극진히 예우하니, 강동의 영웅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귀순하고 있지요. 지금 유비님을 위한 계책을 세우자면, 믿음직한 심복을 보내 동오와 손을 잡고 큰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유비님과 손권 장군은 본래 친분이 없으니, 괜히 말만 앞세우다 허사로 돌아갈까 걱정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보낼 만한 심복이 마땅치 않습니다."

노숙이 다시 말했다. "선생의 형님께서 지금 강동에서 참모로 계시며, 매일 선생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재주가 부족하나, 부디 선생과 함께 손권 장군을 뵙고 큰일을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갈량은 나의 스승이니, 잠시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그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노숙이 제갈량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 유비는 짐짓 허락하지 않았으나, 제갈량이 "상황이 매우 급하니 명을 받들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간청하자 그제야 허락했다. 노숙은 유비와 유기를 작별하고 제갈량과 함께 배에 올라 시상으로 향했다.

제갈량이 작은 배를 타고 떠나니, 조조의 군사들이 갑자기 기세를 잃게 되리라.

제갈량이 이번에 가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3회 — 제갈량이 혀로 여러 유학자와 싸우고, 노자경이 힘써 여러 의견을 물리치다

諸葛亮舌戰群儒 魯子敬力排眾議

한편, 노숙과 제갈량은 유비와 유기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채상군을 향해 나아갔다. 배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데, 노숙이 제갈량에게 말했다. “선생께서 손권을 만나실 때, 조조의 군사가 많다는 사실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자경께서 신신당부하지 않으셔도, 저에게는 이미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가 해안에 도착하자 노숙은 제갈량을 객사에서 잠시 쉬게 한 뒤, 자신은 먼저 손권을 만나러 갔다. 당시 손권은 대청에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의논하던 중이었는데, 노숙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를 불러 물었다. “자경이 강하에 가서 허실을 살펴보니 어떠하던가?” 노숙이 대답했다.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였으나,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손권은 조조가 보낸 격문을 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조조가 어제 사신을 보내 글을 가져왔네. 나도 먼저

사신을 보내 답장을 보냈으나, 지금은 여러 사람을 모아 논의 중이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네." 노숙이 격문을 받아 읽어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최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죄를 벌하라는 조서를 받았다. 군대를 남쪽으로 몰아붙이니 유종은 손을 들고 항복하였고, 형주와 양양의 백성들은 위세에 눌려 스스로 귀순하였다. 이제 백만 대군과 천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강하에서 장군과 만나 사냥하듯 적을 소탕하고자 한다. 유비를 함께 치고 땅을 나누어 가지며 영원히 맹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부디 망설이지 말고 속히 답을 보내주길 바란다."

노숙이 다 읽고 나서 물었다. "주군,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손권이 대답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장소가 말했다. "조조는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의 명분을 빌려 사방을 정벌하려 하니, 이를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주군께서 조조의 기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장강의 험난한 지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조가 형주를 차지했으니, 장강의 천험을 이미 조조와 나누게 된 셈입니다. 대적하기 어려운 형국이니, 저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조조에게 항복하여 만사가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사료됩니다." 여러 책사들도 모두 한목소리로 말했다. "장소의 말이 참으로 하늘의 뜻에 부합합니다." 손권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장소가 다시 말했다. "주군,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동오의 백성들은 평안할 것이고, 강남의 여섯 군도 무사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손권이 옷을 갈아입으러 일어났고, 노숙이 그 뒤를 따랐다. 손권은 노숙의 의중을 알아채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경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노숙이 대답했다. "방금 사람들이 한 말은 장군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조에게 항복할 수 있겠지만, 장군만은 결코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손권이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노숙이 말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관직을 이어갈 수 있으니 고향의 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신다면 대체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작위는 고작 제후에 머물 것이요, 수레는 한 대, 말은 한 필, 따르는 부하도 몇 명 되지 않을 텐데, 어찌 다시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위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각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니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마땅히 하루빨리 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손권이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나누는 논의를 들어보니 내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구나. 노숙이 내놓은 대책은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늘이 노숙을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하지만 조조가 최근 원소의 군사들을 흡수하고, 이제 형주의 병력까지 얻었으니 그 기세가 너무 강해 대적하기가 두렵구나."

노숙이 대답했다. "제가 강하에 도착했을 때, 제갈근의 동생인 제갈량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주군께서 그에게 물어보시면 적의 형편이 어떠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이 물었다. "와룡 선생이 여기 계시는가?"

노숙이 말했다. "지금은 역관에서 쉬고 있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일단 만나지 않겠다. 내일 문무백관을 장막으로 불러 모아, 먼저 강동의 인재들을 내게 소개하게 한 뒤에 정식으로 자리에 앉아 일을 논의하겠다."

노숙은 명을 받들고 물러갔다. 다음 날 관역에서 제갈량을 다시 만난 노숙은 거듭 당부했다. "이제 주군을 뵙게 될 텐데, 절대로 조조의 군사가 많다는 말은 꺼내지 마십시오."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알아서 상황을 보고 대처할 테니, 결코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숙은 제갈량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장소와 고옹을 비롯한 문무백관 스무여 명이 정갈한 관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제갈량은 한 명씩 인사를 나누며 이름을 물었다. 예법을 다 마친 뒤 제갈량은 손님석에 앉았다. 장소를 비롯한 이들은 제갈량의 풍채가 늠름하고 기개가 넘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 설득하러 온 것이라 짐작했다.

장소가 먼저 말을 건네며 떠보았다. "저는 강동의 보잘것없는 선비일 뿐입니다만, 선생께서 융중에 은거하며 스스로 관중과 악의와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입

니까?" 제갈량이 답했다. "그것은 제가 평소 스스로를 겸손하게 비유한 것뿐입니다."

장소가 다시 물었다. "최근 유비가 초가집에 계신 선생을 세 번이나 찾아가 모셔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을 얻은 유비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형주 땅을 휩쓸 기세였습니다만, 어찌하여 갑자기 조조에게 귀순하려 하시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은 속으로 '장소는 손권의 수하에서 으뜸가는 책사다. 그를 먼저 꺾어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손권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한수(漢水) 일대의 땅을 되찾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입니다. 저희 주군 유비께서는 인의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라, 같은 황실 종친의 기반을 빼앗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해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유종이라는 어린아이가 간사한 말만 믿고 몰래 항복하는 바람에 조조가 기세등등하게 날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주군께서 강하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계신 것은 따로 훌륭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니,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장소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를 관중과 악의에 비유하셨습니다. 관중은 제나라 환공을 도와 제후들을 통솔하고 천하를 바로잡았으며, 악의는 미약했던 연나라를 일으켜 제나라의 성 칠십여 개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구제할 재주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초가집에 계실 때 그저 풍류를 즐기며 한가로이 지내

셨지만, 이제 유 유주를 섬기게 되었으니 마땅히 백성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을 제거하며 난적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 유주께서 선생님을 얻기 전에도 천하를 종횡무진하며 성과 땅을 지켜 냈는데, 이제 선생님을 얻으니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선생님을 보면 호랑이에 날개가 달린 듯하여, 한나라 왕실이 부흥하고 조씨 일가가 곧 멸망할 것이라 말합니다. 조정의 옛 신하들과 산림에 숨어 지내는 은사들도 모두 눈을 비비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의 구름을 걷어내고 해와 달의 빛을 우러러보게 하며, 이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구해내어 천하를 평안하게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유 유주에게 돌아온 뒤로 조조의 군사가 출병하자,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빠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듯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위로는 유표를 도와 백성들을 안심시키지 못했고, 아래로는 (유표의) 고아가 된 아들을 도와 강토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도망쳤으며, 당양에서 패하고 하구(夏口)로 달아나 몸 하나 누일 곳조차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유 유주께서 선생님을 얻기 전보다 못한 상황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관중과 악의가 과연 이랬단 말입니까? 소생의 우직한 말이라고 해서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갈량이 말을 다 듣고는 멍하니 웃으며 말했다.

"큰 새가 만 리를 날아가는 그 뜻을 어찌 작은 새들이 알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먼저 미음으로 속을 달래고 약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다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고 몸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 그때 고기 음식을 먹여 기운을 보하고 강한 약을 써서 다스

려야 병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혈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독한 약과 기름진 음식을 들이부어 병을 고치려 한다면, 정말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주군이신 유비님께서는 예전에 여남에서 군사를 잃고 유표님께 몸을 의탁하셨습니다. 당시 군사는 천 명도 채 되지 않았고, 남은 장수라야 관우, 장비, 조운뿐이었으니 이는 마치 병세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와 같았습니다. 신야는 산세가 외지고 작은 현이라 인구도 적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유비님께서 신야를 잠시 빌려 머무시는 것은 그저 몸을 의탁하기 위함이지, 어찌 진정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시겠습니까?

비록 군사가 온전치 못하고 성곽도 견고하지 않으며,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았고 식량도 날마다 부족한 형편이지만, 박망에서 진영을 불사르고 백하에서 물을 이용해 공격하여 하후돈과 조인 같은 장수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관중이나 악의 같은 명장들의 용병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것은 유비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비님께서는 혼란을 틈타 같은 종친의 기반을 빼앗는 것을 차마 하지 못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큰 인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양에서 패했을 때도, 유비님께서는 의를 위해 따르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보셨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서로 부축하며 따르는 그들을 차마 버리지 못해, 강릉으로 진격해 나갈 생각도 접고 하루에 겨우 십 리씩 이동하며 백성들과 함께 패배하는 길을 택하셨으니, 이 또한 참으로 큰 인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의 수가 많아 승패가 갈리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옛날 유방이 항우에게 여러 번 패했으나 해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한신의 뛰어난 계책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한신은 오랫동안 유방을 섬겼으나 늘 연승만 거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큰 계획과 사직의 안위는 이를 주도할 책사가 있어야 하는 법이지, 그저 말로만 떠들며 허울 좋은 명성으로 사람을 속이고, 앉아서 논쟁만 일삼으며 위기 상황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진정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갈량이 이처럼 몰아치듯 말하자, 장소는 단 한 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좌중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백만이나 모였고, 장수 또한 천 명에 달해 용이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노려보는 듯한 기세로 강하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량이 그를 보니 바로 우번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는 원소의 흩어진 병사들을 모았고, 유표의 오합지졸을 약탈하여 얻었으니, 비록 그 수가 수백만이라 해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우번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양에서 군대를 잃고 강하에서 계책마저 막혔으면서, 고작 남의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에 두렵지 않다고 말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소리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유비는 수천 명의 인의를 갖춘 군사로 어찌 백만의 잔폭한 무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강하로 물러나 지키는 것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강동은 군사가 정예하고 식량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장강이라는 천험의 요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군주에게 무릎을 꿇고 적에게 항복하라 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 합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유비가 정말로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좌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공명께서는 소진과 장의처럼 뛰어난 말솜씨를 발휘하여 오나라를 설득하려는 것이오?" 제갈량이 그를 바라보니 바로 보즐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보즐 자네는 소진과 장의를 말쟁이로만 여기는 모양인데, 소진과 장의 또한 당대의 호걸들이었음을 모르고 있군. 소진은 여섯 나라의 재상 인장을 찼고, 장의는 두 번이나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네. 그들은 모두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원대한 계책을 가진 이들이었지, 결코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칼과 창이 무서워 몸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네. 그대들은 조조가 허황된 거짓말로 위협한다고 해서 겁을 먹고 항복을 청하면서, 어찌 감히 소진과 장의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보즐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을 지켰다.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었다. "공명은 조조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시오?" 제갈량이 그를 보니 설종이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조조는 한나라의 도둑놈인데, 굳이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설종이 말했다. "공명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한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 하늘의 운수가 이제 다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조 공은 이미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유비 예주는 천시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다투

려 하니, 이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어찌 패하지 않겠습니까?"

제갈량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설경문, 그대는 어찌 부모도 임금도 없는 그런 망언을 내뱉는단 말이오?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충과 효를 몸의 근본으로 삼는 법이오. 그대가 이미 한나라의 신하로서 불충한 자를 보았다면 마땅히 함께 힘을 합쳐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지금 조조는 조상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먹어왔으면서도 보답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찬탈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공통으로 분노하는 일이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하늘의 운수를 들먹이며 조조의 편을 드니, 참으로 부모도 임금도 없는 자로구려! 그대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다시는 입을 열지 마시오!"

설종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좌중의 또 다른 한 사람이 응답하며 물었다. "조조가 비록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는 있으나, 그래도 상국 조참의 후손이 아닙니까? 유 예주는 비록 중산정왕의 후예라고는 하나, 근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저 돗자리를 짜고 신발을 파는 장사꾼일 뿐인데, 어찌 조조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그를 바라보니 바로 육적이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원술의 자리에서 귤을 품고 있던 육랑이 아니오? 부디 편히 앉아 내 말을 들어보시오. 조조가 조 상국의 후손이라 하여 대대로 한나라의 신하였다고 하나, 지금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굴며 임금을 기

만하고 있으니, 이는 임금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상까지 업신여기는 짓이오! 또한 한나라의 난신이기도 하지만, 조씨 가문의 도적질을 하는 자이기도 하오! 유 예주는 당당한 황실의 혈통인데, 지금의 황제께서 족보에 따라 작위를 내리셨으니 어찌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소? 게다가 한나라 고조께서는 정장으로 시작하셨으나 결국 천하를 얻으셨는데, 돗자리를 짜고 신발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해서 어찌 부끄러운 일이 되겠소? 그대의 얕은 식견으로는 고결한 선비와 담소를 나누기에 부족하구려!"

육적은 할 말을 잃었다.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말했다. "제갈량이 하는 말은 모두 억지를 부려 논리를 맞추려는 것일 뿐, 정당한 논리가 아니니 더는 말할 필요가 없소. 그런데 제갈량은 대체 어떤 경전을 공부했소?"

제갈량이 그를 바라보니 바로 엄준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글귀나 찾아다니며 문장이나 만지작거리는 것은 세상의 썩은 유생이 하는 짓이니, 그런 자가 어찌 나라를 일으키고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소? 옛날 신(莘) 땅에서 밭을 갈던 이윤(伊尹), 위수(渭水)에서 낚시하던 강태공(子牙), 그리고 장량과 진평, 등우와 경엄 같은 이들은 모두 천하를 바로잡을 재능을 갖추었소. 그들이 생전에 어떤 경전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마 그들도 그저 서생처럼 붓과 먹만 붙들고 앉아 사소한 옳고 그름이나 따지며 글재주나 뽐내며 살았겠소?"

엄준은 고개를 떨군 채 기가 죽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공은 큰소리치기를 좋아하나, 반드시 진짜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칫 유학자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까 두렵군요." 제갈량이 그 사람을 보니 바로 여남의 정덕추였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유학자에게도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군자의 유학이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악한 것을 물리쳐 그 은택이 당대에 미치고 이름이 후세에 남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반면 소인의 유학은 오로지 글재주를 뽐내는 데만 급급하여 글씨와 문장에만 매달립니다. 젊어서는 시를 짓고 늙어서는 경전 공부에만 몰두하니, 붓끝에는 천 마디 말이 있어도 가슴속에는 실질적인 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양웅은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왕망(王莽)에게 몸을 굽혀 섬겼다가 결국 누각에서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것이 바로 소인의 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비록 매일 만 마디 글을 써 내려간다 한들 무엇을 얻겠습니까!"

정덕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제갈량이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얼굴빛이 변하며 당황했다. 이때 좌석에 있던 장온과 낙통 두 사람이 다시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한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갈량은 당대 최고의 기재거늘, 그대들이 말재주로 그를 몰아세우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아니다! 조조의 대군이 국경에 임박했

는데, 적을 물리칠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입씨름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는 영릉 사람 황개로, 자는 공복이며 현재 오나라의 양관(군량 담당 관리)이었다. 당시 황개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 주군을 위해 금석처럼 단단하고 확실한 논리를 펼치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여러 분께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잘 모르시니, 서로 묻고 따지는 상황에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황개와 노숙이 제갈량을 안내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에 이르니 마침 제갈근과 마주쳤고, 제갈량이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제갈근이 말했다. "아우가 강동에 왔으면서 어찌 나를 보러 오지 않았는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제가 예주에서 일을 맡고 있었기에 마땅히 공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공무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차마 사사로운 만남을 가질 수 없었으니, 형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갈근이 말했다. "우선 손권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세." 말을 마친 제갈근은 그 길로 떠났다.

노숙이 말했다. "방금 부탁드린 일을 틀림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제갈량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노숙은 제갈량을 대청 안으로 안내했고, 손권은 계단을 내려와 그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대접했다. 예를 갖춘 뒤 제갈량에게 자리를 권하자, 문관과 무관들이 두 줄로 나누어 섰다. 노숙은 제갈량의 곁에 서서 그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갈량이 유비의 뜻을 다 전한 뒤, 슬쩍 손권을 살펴보니 푸른 눈에 보랏빛 수염을 가진 모습이 참으로 위풍당당했다. 제갈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으니, 달래기보다는 자극하는 것이 좋겠다. 그가 물어볼 때 말을 던져 자극하면 될 것이다.'

차를 대접한 뒤 손권이 말했다. “노숙으로부터 당신의 재능에 대해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부디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는 배운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귀한 질문에 답하기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손권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최근 신야에 머물며 유비와 함께 조조에 맞서 싸우고 있으니, 분명 조조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갈량이 말했다. “유비는 병사도 적고 장수도 부족한 데다, 신야 성은 작고 식량마저 없으니 어찌 조조와 맞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물었다. “조조의 군사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제갈량이 답했다. “기병과 보병, 수군을 모두 합치면 약 백만 명 정도 됩니다.” 손권이 놀라며 말했다. “혹시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제갈량이 단호하게 말했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조는 이미 연주에서 청주군 20만 명을 거느리고 있고, 원소를 평정하면서 50~60만 명을 더 얻었으며, 중원에서 새로 모집한 병사가 30~40만 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형주의 군사 20~30만 명까지 얻었으니, 이를 모두 합치면 150만 명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제가 백만 명

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혹여 강동의 군사들이 너무 놀랄까 염려되어 낮추어 말한 것입니다."

노숙은 곁에서 이 말을 듣고는 얼굴빛이 변하여 제갈량을 바라보았으나, 제갈량은 못 본 체했다. 손권이 물었다. "조조의 부하 장수들은 얼마나 더 있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지략이 뛰어나고 전투에 능한 장수들이 어찌 일이천 명에 그치겠습니까!"

손권이 다시 물었다. "이제 조조가 형주와 초나라를 평정했으니, 또 다른 큰 계획이 있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강을 따라 진을 치고 군함을 준비하는 것은 강동을 노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만약 그들에게 병합할 뜻이 있다면, 싸울 것인지 싸우지 않을 것인지 그대가 결단을 내려 주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만, 장군께서 듣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의 높은 견해를 듣고 싶소."

제갈량이 말했다. "예전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을 때, 장군께서 강동에서 일어나셨고 유비 장군께서 남쪽 한나라 땅을 거두어 조조와 함께 천하를 다투었습니다. 이제 조조가 큰 난관들을 제거하여 세력을 어느 정도 다져 놓았고, 최근에는 형주까지 새로이 평정하여 그 위세가

온 나라에 떨치고 있습니다. 설령 영웅이 있다 한들 활약할 자리가 없을 정도이니, 그래서 유비가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힘의 형세를 헤아려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나라의 병력으로 중원의 세력과 맞설 수 있다면 차라리 조기에 결판을 내는 것이 좋겠으나, 만약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많은 책사의 논의를 따라 군사를 거두고 북쪽을 향해 조조를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손권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장군께서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의심을 품고 계십니다. 일이 이토록 급박한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니, 재앙이 날로 닥쳐올 것입니다!” 손권이 물었다. “그대의 말이 정말 옳다면, 유비는 어찌하여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았단 말인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옛날 제나라의 장사였던 전횡도 의리를 지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유비는 황실의 후손이자 세상에 드문 영재로서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일 뿐인데, 어찌 그가 남의 밑에 굴복하겠습니까?”

손권은 제갈량의 말을 듣고는 얼굴색이 급변하더니, 옷을 털며 일어나 뒷방으로 물러나 버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비웃으며 흩어졌다. 노숙이 제갈량을 나무라며 말했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행히 우리 주군께서 도량이 넓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지 않으셨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주군을 너무도 업신여긴 것입니다."

제갈량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리도 남을 포용하지 못합니까? 저에게는 조조를 격파할 계책이 있습니다. 조조가 묻지 않으니 저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숙이 말했다.

"정말로 좋은 계책이 있다면, 제가 주군께 청하여 가르침을 구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조조의 백만 대군은 그저 개미 떼와 같습니다! 제가 손만 한 번 휘두르면 모두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노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후당으로 들어가 손권을 만났다. 손권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노숙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이 나를 너무도 기만하였소!” 노숙이 대답했다. “저 또한 그 점 때문에 공명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명은 오히려 주공께서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웃으며, 조조를 물리칠 계책이 있지만 쉽게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그 계책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손권은 화를 내다가도 이 말을 듣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공명이 좋은 계책이 있어서 말로써 나를 자극한 것이었구려. 내가 잠시 식견이 얕아 하마터면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소.” 손권은 노숙과 함께 다시 당 밖으로 나가 공명을 다시 청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권은 공명을 보고는 사과하며 말했다. “조금 전에는 내가 위엄을 세우느라 그대를 모욕하였으니, 부디 용서해주시오.” 공명 역시 사과하며

말했다. “제 말이 무례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손권은 공명을 후당으로 모셔 술을 대접하며 정중히 맞이했다.

잠시 대화가 오간 뒤 손권이 말했다. "조조가 평소에 싫어했던 인물은 여포, 유표, 원소, 원술, 그리고 유비와 나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영웅들은 모두 멸망했고, 오직 유비와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오나라의 땅을 온전히 지키면서 남의 밑에서 간섭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조조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유비뿐입니다. 하지만 유비가 막 패배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난관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유비가 비록 막 패배하기는 했으나, 관운장이 여전히 만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가 이끄는 강하의 군사들도 만 명에 못지않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멀리서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급히 유비를 쫓느라 가벼운 기병으로 하루 밤낮을 달려 삼백 리를 온 상태입니다. 이는 이른바 '기세가 다한 강한 활의 화살은 얇은 옷자락조차 뚫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게다가 북방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형주의 백성들이 조조에게 붙은 것은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을 뿐, 본심이 아닙니다. 만약 장군께서 유비와 힘을 합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신다면 조조의 군대를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무너지면 그는 반드시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형주와 오나라의 세력이 강해져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형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패의 기회는 바로 오늘에 달려 있으니, 오직 장군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막혔던 제 생각을 단번에 뚫어주었습니다. 이제 제 뜻은 확고하니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곧바로 회의를 열어 군사를 일으킬 방도를 논의하고, 조조를 함께 멸합시다."

그러고는 즉시 노숙에게 명령하여 이 뜻을 문무백관에게 전하게 한 뒤, 제갈량을 관역으로 배웅하여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장소는 손권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여러 사람과 논의하며 말했다. "제갈량의 계책에 빠졌습니다!" 장소는 급히 손권을 찾아가 말했다. "저희가 듣기로 주공께서 조조와 맞서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고 합니다. 주공께서는 스스로를 원소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조조는 예전에 군사가 적고 세력이 약했을 때도 단숨에 원소를 격파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하는 상황에서 어찌 적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갈량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군사를 움직인다면, 이는 말하자면 땔감을 가져다 불을 끄려는 격입니다." 손권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때 고옹이 나서서 말했다. "유비는 조조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의 군사를 빌려 조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공께서 어찌 유비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부디 장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손권은 깊은 고민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장소 등이 물러가자 노숙이 들어와 말했다. "방금 장소 등이 나와서 주공께 전쟁을 멈추고 항복을 논의하자고 권했습니다. 이는 모두 자기 몸과 가족을 보전하려는 신하들이 제 잇속만 챙기려는 계책일 뿐이니, 부디 주공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손권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자 노숙이 다시

말했다. "주공께서 만약 망설이신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는 일단 물러가서 내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노숙이 물러나갔다. 당시 조정에서는 싸워야 한다는 무장들과 항복해야 한다는 문관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손권은 내실로 물러갔으나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본 오국태가 물었다. "무슨 고민이 그리 깊기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르는 것이냐?" 손권이 대답했다. "지금 조조가 장강과 한수 일대에 군사를 배치했는데, 강남을 정벌하려는 기세가 완연합니다. 문무백관에게 물어보니 항복하자는 이도 있고, 싸우자는 이도 있습니다. 싸우자니 적의 수많은 군사를 당해낼 수 없을까 두렵고, 항복하자니 조조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까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국태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제야 손권은 마치 술에서 깨어난 듯, 혹은 꿈에서 막 깨어난 듯 정신이 번쩍 들며 그 말을 떠올렸다. 그렇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되새긴 덕분에 주유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이다.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4회 — 공명이 지혜를 써서 주유를 격분시키고, 손권이 계책을 결정하여 조조를 격파하다

孔明用智激周瑜 孫權決計破曹操

한편, 오국태(吳國太)는 손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신 내 언니이자 너의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이르시기를, '백부(손책)가 임종 때 〈집안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거든 장소에게 묻고, 바깥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거든 주유에게 물으라〉 고 했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주유에게 의견을 묻지 않느냐?" 손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자를 파양으로 보내 주유에게 군사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주유는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조조의 대군이 한상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상군으로 달려와 군사 기밀을 논의하려 했다. 사자가 출발하기도 전에 주유가 먼저 도착한 것이다. 노숙은 주유와 사이가 매우 두터웠기에 마중을 나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주유가 말했다. "노숙,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나에게는 이미 생각이 있으니, 지금 즉시 제갈량을 불러 만나도록 하세."

노숙이 말을 타고 떠나고 주유는 막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장소, 고옹, 장굉, 보즐 네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유는 그들을 대청으로 맞아 앉힌 뒤 안부를 나누었다.

장소가 말했다. "도독께서는 지금 강동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주유가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소."

그러자 장소가 말을 이었다. "조조는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상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까지 격문을 보내 주공께 강하에서 만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비록 삼켜버리려는 속셈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강동에 닥칠 화를 피하기 위해 주공께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숙이 강하에서 유비의 군사인 제갈량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제갈량은 분풀이를 하려는 속셈으로 주공을 자극할 만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노숙은 그 말에 미혹되어 깨닫지 못한 채, 도독과 결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여러 분의 의견이 모두 같습니까?"

고옹 등이 대답했다. "저희 의견은 모두 같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나 또한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소.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내일 아침 주공을 뵙고 나면 자연히 결정될 일이오."

장소 일행이 물러가고 잠시 뒤, 정보, 황개, 한당 같은 장수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유가 그들을 맞이하여 안부를 물으며 정성껏 대접했다. 정보가 말했다.

"도독께서는 강동이 머지않아 남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손견 장군을 따라 처음 기반을 닦을 때부터 크고 작은 전투를 수백 번 치르며 겨우 여섯 군의 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께서 모사들의 말만 듣고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시니,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치욕을 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독께서 부디 주공을 설득하여 군사를 일으키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는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장군들의 생각이 모두 같습니까?"

그러자 황개가 분노하며 일어나 손으로 이마를 탁 치며 외쳤다.

"제 목은 잘릴지언정 조조에게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모두 한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모두 항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저 역시 조조와 결전을 벌이려 하고 있으니, 어찌 항복하겠습니까? 장군들께서는 이만 돌아가십시오. 제가 주공을 뵙고 직접 결판을 내겠습니다."

정보 일행이 물러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갈근과 여범을 비롯한 문관 무리가 찾아왔다. 주유가 그들을 맞이하여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눈 뒤, 제갈근이 말했다.

"제 동생 제갈량이 한상에서 올라와 전하기를, 유비가 동오와 손을 잡고 조조를 함께 치고자 한다는데, 아직 문무백관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신으로 왔으니, 감히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도독께서 직접 결정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갈근이 대답했다.

"항복하면 편안하겠지만, 싸우게 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내일 부중으로 오시면 함께 의논합시다."

주유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때 갑자기 여몽과 감녕 등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주유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수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해야 한다는 쪽과 항복해야 한다는 쪽이 나뉘어 서로 격렬하게 논쟁했다. 주유가 말했다.

"더 말할 것 없소. 내일 모두 내 관저로 모여 공식적으로 논의합시다."

사람들은 그제야 물러갔다. 주유는 계속해서 냉소를 지으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날이 저물 무렵, 노숙이 제갈량을 데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유는 중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고, 인사를 나눈 뒤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노숙이 먼저 주유에게 물었다.

"지금 조조가 대군을 몰아 남쪽으로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화친을 하느냐, 전쟁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방책을 두고 주공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니, 오로지 장군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조조는 황제의 명을 내세워 움직이고 있으니 그 군대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적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항복하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제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내일 주공을 뵙는 대로 사신을 보내 항복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노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강동의 기틀은 이미 삼 대에 걸쳐 다져졌는데, 어찌 한순간에 남의 손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손책이 남긴 유언을 생각해서라도 대외적인 일은 장군께 맡겼는데, 지금 장군을 믿고 나라를 보전하며 태산 같은 버팀목으로 삼으려 하는 마당에 어찌 겁쟁이들의 의견을 따르려 하십니까?”

주유가 말했다. “강동의 여섯 군에는 수많은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의 화를 입게 된다면 그 원망이 분명 나에게 향할 것이니, 그래서 항복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노숙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 같은 영웅이 계시고 동오의 지세가 험준하니, 조조가 반드시 뜻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동안, 제갈량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냉소만 지을 뿐이었다. 주유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노숙 선생께서 시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까워 웃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숙이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제가 시세를 모른다고 비웃으시는 겁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주유의 생각처럼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입니

다.” 주유가 말했다. “제갈량 선생은 시세를 잘 아는 선비이니, 분명 저와 뜻을 같이할 것입니다.” 노숙이 다시 물었다. “제갈량 선생,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는 병법을 쓰는 데 매우 능하여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포, 원소, 원술, 유표 정도만이 감히 맞서려 했으나, 지금은 그들 모두 조조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유비 선생만이 시세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맞서려 하다가, 지금은 홀로 강하에 머물며 생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하신다면 처자식을 보존할 수 있고 부귀영화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옮겨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노숙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 주군에게 무릎을 꿇고 국적(國賊)에게 수치를 당하라 가르치는가!"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바치고 인장을 올리며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직접 강을 건너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신 한 명을 보내 작은 배에 두 사람을 태워 강 위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조조가 만약 이 두 사람을 얻게 된다면, 그 백만 대군도 모두 갑옷을 벗고 깃발을 내린 채 물러날 것입니다."

주유가 물었다. "어떤 두 사람을 보내야 조조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강동에서 이 두 사람을 잃는 것은 큰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나, 거대한 창고에서 곡식 한 톨이 줄어드

는 것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조가 이들을 얻는다면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물러날 것입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과연 어떤 두 여인을 보내야 하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제가 융중에 머물 때 듣기로, 조조가 장하에 '동雀대'라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누각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채우기 위해 천하의 미녀들을 널리 뽑고 있다더군요. 조조는 본래 여색을 밝히는 자인데, 강동의 교공에게 두 딸이 있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큰딸은 대교요, 작은딸은 소교인데, 물고기가 가라앉고 기러기가 떨어질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달마저 부끄러워할 만큼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조조가 일찍이 이렇게 맹세했다지요. '나의 첫 번째 소원은 온 세상을 평정하여 황제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은 강동의 두 미녀를 얻어 동雀대에 두고 노년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만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조조가 비록 백만 대군을 이끌고 호랑이처럼 강남을 노려보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이 두 여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교공을 찾아가 천금을 주고 이 두 여인을 산 다음,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전해주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두 여인을 얻어 마음이 흡족해지면 반드시 군사를 돌려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려가 서시를 바쳤던 계책이니, 어찌하여 서둘러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주유가 물었다. "조조가 대교와 소교를 탐낸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조조의 아들인 조식은 글재주가 뛰어나 글을 쓰기만 하면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조조가 일찍이 조식에게 글을 짓게 하여 '동작대부'라는 이름의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의 뜻을 보면 단순히 그 집안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대교와 소교를 차지하겠다는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그 글을 그대가 기억하고 있소?"

제갈량이 말했다. "그 글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제가 몰래 외워 두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그럼 한번 읊어 보시오."

제갈량은 즉시 '동작대부'를 읊기 시작했다.

"밝은 군주를 따라 노닐며, 높은 누각에 올라 흥겨움을 즐기네. 창고가 넓게 열린 것을 보고, 성스러운 덕이 펼쳐진 것을 관찰하네. 높은 문은 아찔하게 세워져 있고, 두 개의 문은 하늘에 닿을 듯하구나. 하늘 한가운데 화려한 누각을 세우고, 서쪽 성의 날아갈 듯한 건물들을 잇네. 장하의 물은 길게 흐르고, 과수원의 열매는 무성하게 자라나네. 좌우에 두 개의 누각을 세우니, 옥룡과 금봉이 있는 듯하구나. 동남쪽에서 대교와 소교를 품에 안고, 아침저녁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황도의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내려다보며, 구름과 노을이 떠다니는 것을 굽어보네. 수많은 인재가 모여드는 것을 기뻐하며, 영웅이 나타날 길몽과 뜻을 같이하네. 봄바람의 온화함을 우러러보고, 백조의 울음소리를 듣노라. 구름 낀 하늘이 드높게 서 있으니, 집안의 염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네. 어진 덕화를 온 세상에 떨치고, 수도에서는 지극한

공경을 다하리라. 환문(桓文)의 치세가 성대하다 하나, 어찌 성명한 군주의 위엄에 비할 수 있으랴? 아, 아름답고도 훌륭하도다! 그 은혜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네. 황실을 돕고 보좌하여, 사방을 평온하게 하리라. 천지의 법도와 함께하며, 해와 달의 빛과 나란히 하리라. 귀함과 존엄함이 끝이 없고, 동황(東皇)의 수명과 같기를 바라네. 용이 그려진 깃발을 앞세워 유람하고, 난새가 탄 수레를 타고 두루 돌아다니네. 은혜로운 교화가 온 세상에 미치니, 보물이 풍족하고 백성이 편안하리라. 바라건대 이 누각이 영원히 굳건하여, 영원토록 즐거움이 그치지 않기를!"

주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늙은 도둑놈이 나를 너무도 업신여기는구나!"

제갈량이 급히 일어나 그를 말렸다. "옛날 흉노의 선우가 자주 국경을 침범했을 때, 한나라 천자가 공주를 보내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찌 백성 집안의 여인 둘을 아까워하신단 말입니까?"

주유가 말했다. "그대가 모르는 게 있군. 대교는 손책 장군의 부인이고, 소교는 바로 내 아내라네."

제갈량은 일부러 몹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입을 잘못 놀려 함부로 말했으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주유가 다시 외쳤다. "나는 저 늙은 도둑놈과 결코 같이 살 수 없다!"

제갈량이 말했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 주유가 말했다. "나는 손책에게 부탁을 받은 몸인데, 어찌 몸을 굽혀 조조에게 항복할 수 있겠는가? 방금 한 말은 그대를 시험해 본 것뿐이라네. 나는 파양호에서 떠날 때부터 북쪽으로 쳐들어갈 마음을 품었으니, 설령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네. 제갈량이 부디 힘을 보태어 조조를 함께 물리쳐 주길 바라네."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충성을 다해 언제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내일 주공을 뵙는 대로 바로 군사를 일으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네."

제갈량은 노숙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손권이 정전에 올랐다. 왼쪽에는 장소와 고옹 등 문관 서른여 명이 늘어섰고, 오른쪽에는 정보와 황개 등 무관 서른여 명이 줄을 섰다. 모두 의관을 정제하고 칼과 패를 차고 위엄 있게 서서 주인을 모시고 있었다.

잠시 후 주유가 들어와 예를 갖추었다. 손권은 인사를 나눈 뒤 안부를 물었다. 주유가 말했다. "최근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한상에 주둔하고는 이곳으로 격문을 보내왔다고 들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손권이 즉시 조조의 서신을 가져와 주유에게 보여주었다. 주유는 서신을 다 읽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 노망난 도적놈이 우리

강동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감히 이토록 모욕을 주는구려!" 손권이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주유가 대답했다. "주공께서 이미 문무백관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손권이 말했다. "며칠 동안 이 일을 논의했으나, 항복을 권하는 이도 있고 싸우기를 권하는 이도 있네. 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에게 결단을 구하고자 하네." 주유가 물었다. "누가 항복을 권했습니까?" 손권이 답했다. "장소 등이 모두 항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네." 주유가 즉시 장소를 불러 물었다. "선생께서 항복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장소가 말했다. "조조는 천자를 끼고 사방을 정벌하며 매번 조정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주까지 얻어 위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강동이 조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장강뿐입니다. 지금 조조의 거대한 전함이 어찌 천백 척뿐이겠습니까? 수군과 육군이 동시에 몰려오는데 우리가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일단 항복하고 나중에 다른 방도를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그것은 융통성 없는 선비의 생각일 뿐입니다! 강동은 나라를 세운 이래 벌써 삼 대를 이어 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셈인가?"

주유가 말했다. "조조는 비록 한나라의 상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한나라의 도적인 자입니다. 장군께서는 신이와 같은 무용과 뛰어난 재능을 갖추셨고, 선친과 형님이 남기신 터전을 바탕으로 강동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군사도 정예이고 식량도 풍족하니, 마땅히 천하를 호령하며 나라의 잔혹한 무리를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적에게 항복하려 하십니까?

또한 조조가 이번에 일으킨 군사는 병가에서 금기시하는 네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쪽 땅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 마등과 한수가 뒤에서 위협하고 있는데, 조조가 남쪽 정벌에 너무 오랜 시간을 쏟고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 금기입니다. 둘째, 북방의 군사들은 물 위에서 싸우는 데 익숙하지 않은데, 조조는 말과 안장을 버리고 배에 의지하여 우리 오나라와 맞서려 하니 이것이 두 번째 금기입니다. 셋째, 지금은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운데, 말들에게 먹일 풀조차 부족하니 이것이 세 번째 금기입니다. 넷째, 중원의 병사들을 멀리 강과 호수로 몰아오느라 물과 땅이 달라 병이 생기기 쉬우니, 이것이 네 번째 금기입니다.

조조의 군사가 이 네 가지 금기를 범했으니, 비록 수가 많다 한들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조조를 사로잡는 일은 바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제게 정예병 수천 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즉시 하구에 진을 치고 장군을 도와 조조를 격파하겠습니다!"

손권이 결연히 일어나 말했다. "그 노망난 도적놈이 한나라를 폐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한 지 오래되었으나, 그가 두려워한 것은 두 원씨(원소·원술)와 여포, 유표, 그리고 바로 나뿐이었다. 이제 그 영웅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만이 남았으니, 나와 그놈은 결코 함께 살 수 없다! 경들이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니 참으로 내 뜻과 일치한다. 이는 하늘이 경에게 나를 맡긴 것이다."

주유가 말했다. "신은 장군을 위해 단 한 번의 혈전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만 번을 죽는다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실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손권은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눈앞의 책상 모서리를 내리치며 외쳤다. "만약 어떤 관리가 다시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말한다면, 이 책상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손권은 그 칼을 주유에게 하사하고, 주유를 대도독으로, 정보를 부도독으로, 노숙을 찬군교위로 임명했다. 만약 문관이나 무관 중에 호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칼로 처단하라는 명도 함께 내렸다.

주유는 검을 받아 들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격파할 것이다. 모든 장수와 관리들은 내일 강가 진영으로 모여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만약 늦거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일곱 가지 금령과 쉰네 가지 처벌 규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말을 마친 주유는 손권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를 나섰다. 문무백관들은 아무 말 없이 흩어졌다.

주유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자마자 제갈량을 불러 일을 의논했다. 제갈량이 도착하자 주유가 말했다.

"오늘 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논한 결과 이미 결정이 났으니, 조조를 물리칠 좋은 계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손권 장군의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함부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유가 물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의 마음속에 조조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두려움이 있어,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걱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 직접 군사의 수를 밝혀 설명해 주어 의구심을 말끔히 없애 주어야만, 그제야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유가 감탄하며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주유는 다시 손권에게 나아가 알렸다. 손권이 말했다. “주유, 자네가 밤늦게 찾아온 것을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군.” 주유가 대답했다. “내일 군마를 차출하려 합니다. 주군께서는 혹시 의심되는 점이 있으십니까?” 손권이 말했다. “그저 조조의 군사가 너무 많아 적은 수로 대군을 당해내지 못할까 걱정될 뿐이지, 다른 의심은 없네.”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주군께서 조조가 보낸 격문을 보시고 수륙 양면의 대군이 백만이라 적힌 것을 보고 겁을 먹으신 듯하나, 그 실체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저들이 중국 본토에서 끌어모은 병사는 15~16만 명에 불과하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원씨 일가에게서 얻은 병사라 해도 겨우 7~8만 명뿐이며, 그들조차 여전히 의심이 많아 완전히 복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군사를 데리고 의심 많은 무리를 상대한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두려워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게 5만 명의 병사만 있다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주군께서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권이 주유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주유, 자네의 말을 들으니 내 의구심이 완전히 풀렸네. 장소는 도량이 좁아 꾀가 없으니 실망이 크네. 오직 자네와 노숙만이 나와 마음을 같이하는구려. 자네는 노숙, 정보와 함께 즉시 군사를 선발하여 전진하게. 나도 곧 군마와 식량을 넉넉히 보내 자네의 뒤를 받쳐주겠네. 만약 전방에서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즉시 내게 돌아오게나. 내가 직접 조조 도적놈과 결전을 벌일 것이니, 더는 의심하지 않겠네.”

주유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밖으로 물러난 뒤, 속으로 생각했다. '제갈량은 이미 손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구나. 그의 계책이 나보다 한 수 위다. 조만간 반드시 강동의 재앙이 될 터이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

주유는 즉시 사람을 보내 밤중에 노숙을 막사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제갈량을 죽이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 노숙이 말했다. "안 됩니다. 지금 조조라는 도적을 아직 물리치지도 못했는데, 먼저 현명한 선비를 죽인다면 스스로 도울 사람을 내쫓는 꼴이 됩니다."

주유가 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유비를 돕고 있으니, 반드시 강동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노숙이 제안했다. "제갈근이 그의 친형이니, 그를 통해 제갈량을 불러들여 우리 오나라에서 함께 일하게 한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유는 노숙의 말을 듣고 수긍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주유는 행영으로 가서 중군 막사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 좌우에는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이 늘어섰고, 문관과 무장들이 모여 명령을 기다렸다. 원래 정보는 주유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주유의 작위가 자신보다 높아지자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날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대신 장남인 정자를 보냈다. 주유가 장수들에게 명령했다.

"법은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으니, 여러분은 각자 맡은 직무를 다하십시오. 지금 조조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동탁보다도 심하여, 천자를 허창에 가두고 우리 국경에 사나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명령을 받들어 그를 토벌하려 하니, 여러분은 부디 힘을 다해 앞장서 주십시오. 대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을 줄 때와 벌을 줄 때도 결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명령을 마친 뒤 곧바로 한당과 황개를 전방 선봉으로 삼아 본부의 전선을 거느리고 출발하게 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행군하여 삼강구에 도착하면 진을 치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어 장흠과 주태가 제2대를 맡았고, 능통과 판장이 제3대를, 태사자와 여몽이 제4대를, 육손과 동습이 제5대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여범과 주치가 사방을 순

찰하는 경비 사역을 맡았다. 이 여섯 부대의 관군을 독려하여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게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모두 모이도록 했다.

군수 물자 보급이 모두 끝나자, 장수들은 각자 배와 무기를 챙겨 길을 떠났다. 정자는 아버지 정보에게 돌아가 "주유가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라곤 움직임과 멈춤에 있어 모두 법도에 어긋남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를 들은 정보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가 평소 주유가 유약하여 장수로서는 부족하다고 업신여겼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구나! 내가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직접 주유의 행영으로 찾아가 사죄했다. 주유 역시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주었다.

다음 날, 주유가 제갈근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제 동생 제갈량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재주를 가졌는데, 어찌하여 유비 밑에서 몸을 낮추고 있습니까? 마침 이번에 강동에 오셨으니, 부디 선생님께서 힘써 말씀해 주셔서 제 동생이 유비를 떠나 우리 오나라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공께서는 훌륭한 보좌관을 얻게 되고, 선생님과 제 동생도 형제로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디 지금 바로 길을 떠나 주십시오."

제갈근이 대답했다.

"제가 강동에 온 뒤로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해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도독께서 명을 내리시는데 어찌 힘을 보태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제갈근은 즉시 말에 올라 역참으로 향해 제갈량을 만나러 갔다. 제갈량이 그를 맞이하여 울며 절을 올리니, 두 사람은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나누었다.

제갈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우는 백이와 숙제를 아는가?"

제갈량은 속으로 '이것은 분명 주유가 형을 보내 나를 설득하려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백이와 숙제는 옛날의 성현이 아니옵니까?"

제갈근이 말했다. "백이와 숙제는 비록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으나, 두 형제는 끝까지 한곳에 함께 있었네. 나는 지금 자네와 한 배에서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사이인데도 각자 모시는 주군이 달라 아침저녁으로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으니, 백이와 숙제의 사람됨에 견주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제갈량이 말했다.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情)이고, 제가 지키려는 것은 의(義)입니다. 형님과 저는 모두 한나라 사람입니다. 지금 유황숙께서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시니, 만약 형님께서 동오를 떠나 저와 함께 유황숙을 모시게 된다면 위로는 한나라 신하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혈육이 다시 모일 수 있으니 이는 정과 의를 모두 온전히 하는 방책입니다. 형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갈근이 생각했다. "내가 그를 설득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에게 설득당하고 말았구나." 제갈근은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한 뒤, 주유에게 돌아가 제갈량이 했던 말을 상세히 전했다. 주유가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갈근이 대답했다. "저는

손권 장군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주군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그대가 충심으로 주군을 섬기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 없네. 나에게는 이미 제갈량을 굴복시킬 계책이 있다네."

과연 지혜와 지혜가 만나면 서로 합을 이루기 마련이지만, 뛰어난 재능끼리 부딪치면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법이다. 과연 주유가 어떤 계책으로 제갈량을 굴복시킬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5회 — 삼강구에서 조조가 병사를 잃고, 군영회에서 장간이 계책에 빠지다

三江口曹操折兵　群英會蔣幹中計

한편, 주유는 제갈근의 말을 듣고는 제갈량에 대한 미움이 더욱 깊어져,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주유는 군사들을 정비한 뒤 손권에게 작별을 고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가 먼저 출발하게. 나도 곧 군사를 일으켜 뒤따라가겠소.' 주유가 물러나자 정보, 노숙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나며 제갈량에게도 함께 가자고 청했다. 제갈량은 기쁘게 응하여 함께 배에 올랐다. 돛을 올린 배는 강물을 따라 하구를 향해 나아갔다. 삼강구에서 50~6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 배들을 차례로 세워 멈추었다. 주유는 배를 중앙에 두고 진을 쳤으며, 육지에는 서쪽 산을 등지고 진영을 구축하여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했다. 제갈량은 그저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주유는 군사 배치를 모두 마친 뒤, 사람을 보내 제갈량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자고 청했다. 제갈량이 중군 막사에 도착하여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주유가 말했다.

"예전에 조조는 병력이 적고 원소는 병력이 많았으나, 조조가 도리어 원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허유의 계책을 써서 오소의 군량을 먼저 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의 병력은 83만인데 우리 군사는 겨우 5~6만뿐이니, 어떻게 그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조조의 군량을 먼저 끊어야만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조조군의 군량은 모두 취철산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한중 일대에 머무셨으니 지리에 매우 밝으실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께서 관우, 장비, 조운 같은 장수들과 함께 취철산으로 가셔서 조조의 군량 길을 끊어 주십시오. 저 또한 군사 천 명을 지원할 테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각자 자기 주군을 위해 하는 일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유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를 해치려 계책을 꾸미는구나. 여기서 거절하면 분명 비웃음을 살 테니, 차라리 응해주면서 다른 대책을 세우는 편이 낫겠다.' 제갈량은 곧 기쁘게 승낙했다. 주유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제갈량이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가자, 노숙이 주유에게 은밀히 물었다. "제갈량에게 군량을 끊어오라는 임무를 맡기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제갈량을 죽이고 싶지만, 내가 직접 나서면 남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손을 빌려 그를 제거함으로써 뒷일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노숙이 그 말을 듣고 제갈량을 찾아가 보았으나, 제갈량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제갈량은 아무런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군마를 정돈하며 떠날 채비만 하고 있었다. 노숙은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말을 건네며 떠보았다.

"선생께서 이번에 가셔서 과연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수전, 보전, 기병전, 차량전까지 각각의 묘미를 다 알고 있으니, 어찌 공을 세우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강동의 사람들은 노숙 당신이나 주유 같은 이들이 겨우 한 가지 재주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숙이 되물었다.

"내가 주유와 무엇이 어찌하여 한 가지 재주뿐이라는 말입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강남 아이들의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매복하는 데는 노숙이 뛰어나고, 강가에서 물싸움을 하는 데는 주유가 으뜸이다'라고 말이지요. 당신들은 육지에서 길목을 지키는 일은 잘할지 모르나, 주유는 물 위에서 싸우는 데만 능할 뿐 육지에서의 싸움은 못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숙은 이 말을 주유에게 전했다. 주유는 화가 나서 외쳤다. "어찌 내가 육전(陸戰)을 못 한다고 나를 속인단 말인가! 그를 보낼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취철산으로 가서 조조의 군량로를 끊겠다." 노숙은 다시 이 말을 제갈량에게 전했다. 제갈량은 웃으며

말했다. "주유가 내게 군량을 끊으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 조조를 시켜 나를 죽이려는 속셈입니다. 내가 그저 말 한마디로 그를 놀렸을 뿐인데, 주유는 그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지금은 인재를 써야 할 중요한 때이니, 오나라의 군주와 유비 사또가 마음을 합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 서로 해치려 든다면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조조 같은 도적은 꾀가 많고 평소에도 남의 군량로를 끊는 데 익숙하니, 어찌 무거운 군사를 갖추어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주유가 직접 간다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수전(水戰)을 치러 북쪽 군대의 기세를 꺾어놓은 뒤, 다른 묘책을 찾아 그들을 격파해야 합니다. 자경(노숙)께서 부디 주유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숙은 밤을 도와 곧장 주유를 찾아가 제갈량이 한 말을 상세히 전했다. 주유는 고개를 저으며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 사람의 식견은 저보다 열 배는 뛰어납니다. 지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우리 나라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노숙이 말했다.

"지금은 인재를 써야 할 때이니, 부디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우선 조조를 격파한 뒤에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주유는 그 말에 수긍했다.

한편, 유비는 유기에게 강하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하구로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멀리 강남 언덕을 바라보니 깃발이

어렴풋이 보이고 창과 칼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오나라가 이미 군사를 움직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비는 강하에 있던 병사들을 모두 옮겨 번구에 진을 쳤다. 유비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제갈량이 오나라로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겼으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누가 가서 적의 형편을 살펴보고 보고해 올 수 있겠느냐?' 그러자 미축이 말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비는 양주와 예물을 준비하여 미축을 오나라로 보냈다. 군사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그곳의 정세를 살피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미축은 명을 받들어 작은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가 곧장 주유의 대진 앞으로 향했다. 군사들이 이 소식을 주유에게 보고하자 주유가 그를 불러들였다. 미축은 절을 올리며 유비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준비해 온 술을 올렸다. 주유는 선물을 받은 뒤 미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미축이 말했다. "제갈량이 이곳에 머문 지 꽤 되었으니, 이제 저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유가 대답했다. "제갈량은 지금 막 저와 함께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세우는 중인데 어찌 곧장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유비 예주를 만나 좋은 방책을 함께 논의하고 싶지만, 제가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유비 예주께서 기꺼이 이곳까지 발걸음을 해주신다면 참으로 반가울 것입니다."

미축은 승낙하고 인사를 올린 뒤 물러갔다.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유비를 만나려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유비는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영웅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틈타 그를 유인해 죽인다면, 진정으로 나라의 후

환을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숙이 몇 번이고 간곡히 만류했으나 주유는 듣지 않았다. 그러고는 곧 비밀 명령을 내렸다. '만약 유비가 도착하면, 먼저 칼과 도끼를 든 무사 쉰 명을 휘장 뒤에 매복시켜라. 내가 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삼아 즉시 공격하라.'

한편, 미축이 유비에게 돌아와 주유가 주군을 만나 특별히 논의할 일이 있으니 직접 와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즉시 빠른 배 한 척을 준비하게 하고 곧장 떠나려 했다. 그러자 관우가 간언했다.

"주유는 꾀가 많은 자입니다. 제갈량에게서 온 서신도 없으니 혹시 속임수가 있을지 모르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지금 조조를 함께 물리치기 위해 오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한다. 주유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 않는다면 동맹을 맺으려는 뜻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서로 의심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관우가 다시 말했다.

"형님께서 정 가시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장비도 거들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관우만 나를 따라오너라. 장비와 조운은 진영을 지키고, 간옹은 악현을 굳건히 지켜라. 나는 다녀오기만 하겠다."

명령을 마친 유비는 곧바로 관우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수행원 스무 명 남짓과 함께 노를 저어 강동으로 향했다. 유비는 강동의 거대한 전함들과 펄럭이는 깃발, 정연하게 배치된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그때 군사가 급히 달려와 주유에게 보고했다. '유비 예주가 도착했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배를 몇 척이나 데려왔느냐?' 군사가 대답했다. '배는 단 한 척뿐이며, 수행원은 스무 명 남짓입니다.'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그자의 목숨이 이제 다했구나!' 그러고는 즉시 도끼와 칼을 든 병사들을 미리 매복시켜 두게 한 뒤, 진영을 나서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유비는 관우를 비롯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을 데리고 중군 막사에 도착하여 예를 갖추었다. 주유는 유비를 상석으로 모셨다. 유비가 말했다. "장군의 명성은 이미 천하에 자자한데, 제가 재주가 부족함에도 어찌 이토록 정중히 대접해 주십니까?" 주유는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나누어 정중히 앉혔고, 곧 연회를 베풀어 유비를 극진히 대접했다.

한편, 제갈량이 우연히 강가에 나왔다가 유비가 이곳에서 주유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주유의 군영으로 들어가 동태를 살폈다. 살펴보니 주유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양쪽 벽 뒤에는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이 빽빽이 매복해 있었다. 제갈량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제갈량은 유비를 돌아보았으나, 유비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유비의 뒤를 보니 한 사람이 칼을 쥐고 늠름하게 서 있었는데, 바로 관우였다. 제갈량이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주군께서는 이제 위험하지 않겠구나."

제갈량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몸을 돌려 강가로 돌아가 기다렸다.

주유와 유비가 술자리를 가지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술이 몇 차례 돌자 주유가 잔을 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문득 유비의 뒤에 관우가 칼을 쥐고 엄숙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유가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묻자, 유비가 말했다.

“내 동생인 관우라네.”

주유가 놀라며 물었다.

“그 옛날 안량과 문추를 베었던 그 장수가 아니오?”

유비가 대답했다.

“그렇다네.”

주유는 크게 놀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서둘러 술을 따라 관우에게 건네며 잔을 받게 했다.

잠시 후 노숙이 들어왔다. 유비가 물었다. "공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경께서 공명을 모셔와 함께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자 주유가 말했다. "조조를 물리치고 난 뒤에 공명과 만나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는 감히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관우가 눈짓으로 유비에게 신호를 보내자, 유비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유에게 작별을 고했다.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조속히 적을 물리치고 공을 세운 뒤에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축하를 올리겠습니다." 주유 또한 붙잡지 않고 군영 문밖까지 배웅했다.

유비가 주유와 작별하고 관우 등과 함께 강가로 가보니, 제갈량이 이미 배 위에 타고 있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얼마나 위험하셨는지 아십니까?' 유비가 어리둥절하여 '모르겠네'라고 답하자, 제갈량이 말했다. '만약 관우가 없었더라면 주유에게 해를 입을 뻔하셨습니다.' 유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갈량에게 함께 번구로 돌아가자고 청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비록 호랑이 굴에 있는 듯한 처지이나, 마음은 태산처럼 평안합니다. 주공께서는 그저 배와 군마를 정비하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11월 20일 갑자일 이후를 기한으로 삼아 조운에게 작은 배를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와서 기다리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십시오.' 유비가 그 뜻을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제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유비가 다시 그 시기를 물으려 하자, 제갈량은 서둘러 배를 띄우라고 재촉하며 말을 마친 뒤 배로 돌아가 버렸다. 유비가 관우 및 수행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몇 리쯤 나아갔을 때, 갑자기 상류 쪽에서 배 쉰~예순 척가량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배 머리에는 한 장수가 창을 옆으로 뉘인 채 당당히 서 있었는데, 바로 장비

였다. 장비는 유비에게 변이 생길까 걱정되어, 관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듯하자 특별히 마중을 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세 사람은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주유는 유비를 배웅하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때 노숙이 들어와 물었다. "공근, 유비를 이곳까지 유인해 놓고 어찌하여 아직 손을 쓰지 않으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관우는 세상에 보기 드문 용맹한 장수입니다. 유비와 늘 붙어 다니며 함께 움직이니, 만약 제가 지금 손을 쓴다면 저들이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것입니다." 노숙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때 갑자기 조조가 사신을 보내 서신을 가져왔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주유는 사신을 불러들였다. 사신이 서신을 올리자 봉투에는 '한나라 대승상 조조가 주 도독에게 보냄'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유는 크게 분노하여 서신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던지고는, 사신을 불러 호통치며 처단했다. 노숙이 말렸다. "두 나라가 싸우는 중이라 해도 사신까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주유가 말했다. "사신을 죽여 우리의 위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주유는 결국 사신을 베어 버리고, 그 머리를 부하에게 주어 거두어 가게 했다.

이어 주유는 감녕을 선봉으로 삼고, 한당을 좌익으로, 장흠을 우익으로 배치한 뒤 직접 장수들을 거느리고 출격할 준비를 마쳤다. 내일 새벽 네 시경에 밥을 짓고, 다섯 시경에 배를 띄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기로 했다.

한편, 조조는 주유가 서신을 훼손하고 사신을 처형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조조는 즉시 채모와 장윤 등 형주에서 항복해 온 장수들을 앞세워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후군이 되어 전함들을 독촉하며 삼강구로 향했다.

삼강구에 이르니, 벌써 오나라의 배들이 강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한 대장군이 배 머리에 앉아 크게 외쳤다. "나는 감녕이다! 누가 감히 나와 맞서 싸우겠느냐?"

채모는 동생 채훤을 앞세워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두 배가 가까워지자 감녕이 활을 잡아 화살을 먹인 뒤 채훤을 향해 쏘니, 채훤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이어 감녕이 배를 몰아 거세게 돌진하며 수만 발의 화살을 퍼붓자, 조조의 군사들은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오른쪽에서는 장흠이, 왼쪽에서는 한당이 조조의 진영을 향해 곧장 돌격해 들어왔다.

조조의 군사 대부분은 청주와 서주 출신이라 평소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다. 넓은 강 위에서 전함이 흔들리자 중심조차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 사이 감녕 일행의 세 갈래 전함이 강물 위를 종횡무진 누볐고, 주유 또한 배들을 몰아 지원하러 나섰다. 조조의 군사들 중 화살과 포탄에 맞는 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다. 주유가 승기를 잡았으나, 적의 숫자가 많아 불리해질까 두려워한 주유는 징을 울려 전투를 멈추고 배를 거두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조의 군대가 패배하여 돌아오자, 조조는 육상 진영에 올라가 군사들을 다시 정비하게 한 뒤 채모와 장윤을 불러 꾸짖었다.

"오나라 군사는 수가 적음에도 오히려 패배했으니, 이는 너희가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채모가 대답했다.

"형주 수군은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았고, 청주와 서주의 군사들은 원래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상 진영을 세워 청주와 서주 군사를 안쪽에 배치하고, 형주 군사를 바깥쪽에 배치하여 매일 정밀하게 훈련시킨다면 비로소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수군 도독이니 편하게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굳이 내 허락을 구하는가?"

이 말을 들은 장윤과 채모는 즉시 스스로 수군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강을 따라 스물네 개의 수문 구역을 나누었는데, 커다란 배를 바깥쪽에 배치하여 성벽처럼 삼고 작은 배들을 안쪽에 두어 서로 오갈 수 있게 했다. 밤이 되어 등불을 밝히니 물결 위가 붉게 물들었고, 삼백여 리에 달하는 육상 진영에서는 밤늦도록 불빛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주유는 승전보를 울리며 진영으로 돌아와 삼군을 크게 격려하고,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승전 소식을 알렸다. 그날 밤 주유가 높은 곳

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서쪽 하늘이 온통 불빛으로 가득했다. 곁에 있던 부하들이 "저것은 모두 조조군의 등불 빛입니다"라고 보고하자, 주유는 내심 깜짝 놀랐다. 다음 날, 주유는 직접 조조의 수군 진영을 살피러 가기로 하고, 커다란 배 한 척을 준비시킨 뒤 북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과 용맹한 장수들을 대거 대동하게 했다. 장수들은 저마다 강궁과 쇠뇌를 챙겨 배에 올라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조조의 진영 근처에 다다르자 주유는 배에 돌을 던져 기세를 올리게 하고, 배 위에 서는 북과 악기를 힘차게 연주하게 했다. 주유가 몰래 조조의 수군 진영을 살피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조조의 수군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는 부하들에게 "수군 도독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부하들이 "채모와 장윤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주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강동 지역에 머물며 수전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니, 반드시 계책을 세워 저 둘을 먼저 제거해야 조조를 꺾을 수 있겠구나.'

주유가 조조의 진영을 살피고 있는 사이, 조조의 군사가 급히 조조에게 보고했다. '주유가 우리 진영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배를 보내 그를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주유는 수채 안에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히 닻돌을 거두게 한 뒤 양쪽 노를 일제히 힘차게 저어 강 위를 날아가듯 빠르게 빠져나갔다. 조조의 진영에서 배가 출발했을 때, 주유의 누선은 이미 십여 리나 멀리 달아난 뒤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고, 배들은 돌아와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장수들에게 물었다. "어제 한 차례 패하며 기세가 꺾인 데다, 이제 저들이 우리 진영을 낱낱이 살피고 있으니, 내가 어찌해야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막사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유와 함께 공부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제 말재주를 믿고 강동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 항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살펴보니, 구강 출신의 장간이라는 자로 조조의 막사에서 일하는 참모였다. 조조가 물었다. "자익, 그대가 주유와 사이가 두터운가?"

장간이 대답했다. "승상, 안심하십시오. 제가 강동에 가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장간이 말했다. "아이 하나만 데려가고 하인 둘이 배를 몰면 되니,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술을 베풀어 장간을 배웅했다. 장간은 삼베옷을 입고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곧장 주유의 진영으로 향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옛 친구 장간이 찾아왔다"라고 전하게 했다.

당시 주유는 막사 안에서 회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장간이 왔다는 말을 듣고 웃으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설객이 왔구나!" 그러고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귓속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장수들은 모두 명을 받고 물러갔다.

주유는 의관을 정제하고 수백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나갔는데, 수행원 모두가 비단옷에 화려한 모자를 쓰고 앞뒤로 주유를 호위하며 나

아갔다. 이때 장간이 푸른 옷을 입은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자, 주유는 그를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장간이 말했다. '공근,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자익, 참으로 애쓰셨구려. 멀리 강호를 건너 조조를 위해 설득하러 온 세객(說客)이 된 것이오?' 장간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옛 친구를 만나 옛이야기나 나누러 왔거늘, 어찌 저를 세객으로 의심하십니까?'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비록 사광(師曠)처럼 총명하지는 못해도, 악기 소리만 듣고도 그 속뜻을 알아차리는 눈은 있소.' 장간이 말했다. '옛 친구를 대접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유는 웃으며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나는 그저 형님이 조조를 위해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닐까 걱정했을 뿐이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리 서둘러 가려 하시오?' 그러고는 함께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주유는 즉시 명을 내려 강동의 영웅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장간과 만나게 하였다.

잠시 후, 문관과 무장들이 모두 비단옷을 차려입고 들어왔으며, 장수와 부장들도 은빛 갑옷을 갖춰 입고 두 줄로 늘어서서 들어왔다. 주유는 모든 장수를 한 번씩 대면시킨 뒤 양옆으로 나란히 앉게 하고, 성대한 잔칫상을 차려놓은 뒤 군중에서 승전 축하 음악을 연주하며 차례로 술을 권하게 했다. 주유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분은 나의 오랜 벗이다. 비록 강북에서 이곳까지 오긴 했으나, 결코 조조가 보낸 설득꾼이 아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마라."

이어 주유는 자신의 칼을 풀어 태사자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대는 내 칼을 차고 술자리를 지켜보라. 오늘 잔치는 오로지 친구 사이의 정을 나누는 자리이니, 만약 조조와 오나라 군대의 일을 입에 올리는 자가 있다면 즉시 베어버릴 것이다!"

태사자는 대답하고 칼을 쥔 채 자리에 앉았다. 장간은 깜짝 놀라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유가 말했다. "내가 군대를 이끈 이래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 옛 친구를 만나 의심할 것도 없으니 기분 좋게 한잔 취해봐야겠다." 말을 마친 주유가 크게 웃으며 술을 마시자, 좌중에서는 술잔과 주사위가 오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를 무렵, 주유는 장간의 손을 잡고 함께 장막 밖으로 나갔다. 주변에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갑옷을 갖춰 입은 채 위엄 있게 서 있었다. 주유가 물었다. "내 군사들이 꽤 웅장해 보이지 않는가?" 장간이 대답했다. "정말 용맹한 장사들입니다."

주유는 장간을 다시 장막 안으로 데려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군량과 식량이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다. 주유가 물었다. "내 군량과 식량이 충분해 보이는가?" 장간이 대답했다. "정예 병사와 넉넉한 군량을 갖추었으니, 명성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유는 술에 취한 척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주유로서 자익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에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장간이 말했다. "형님의 뛰어난 재능을 생각하면 결코 과한 말이 아닙니다." 주유는 장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 겉으로는 군신 간의 의리를 지키고 안으로는 혈육 같은 은혜를 맺어야 하네.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며, 화와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설령 소진, 장의, 육가, 역생 같은 인물들이 다시 나

타나서, 마치 강물이 흐르듯 말을 쏟아내고 혀가 날카로운 칼날 같다 한들, 어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주유가 크게 웃자, 장간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다. 주유는 다시 장간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여러 장수와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그러고는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들은 모두 강동의 영웅들이로다. 오늘 이 모임을 '군영회'라 부르자꾸나." 술자리가 밤늦도록 이어지고 등불을 밝히자, 주유는 스스로 일어나 검무를 추며 노래를 불렀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며 공을 세우고, 공을 세워 평생의 한을 풀리라. 평생의 한을 풀고자 나 이제 취하리니, 취하여 광기 어린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가 끝나자 좌중은 웃음꽃이 피었다. 밤이 깊어지자 장간이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며 물러나려 했다. 주유는 자리를 치우라고 명했고, 다른 장수들도 인사를 나누며 떠났다. 주유가 말했다. "자네와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자는구먼. 오늘 밤은 발을 맞대고 편히 자세." 그러고는 장간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마치 대취한 것처럼 행동했다. 주유는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쓰러져 누워 엉망으로 구토를 해댔는데, 장간이 어찌 잠을 잘 수 있었겠는가? 그는 베개를 베고 누워 귀를 기울이다가, 군중의 북소리가 이경을 알리자 일어나 살펴보니 남은 등불이 아직 밝았다. 주유를 보니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장간은 장막 안 탁자 위에 서류 한 뭉치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몰래 살펴보았다. 그것은 모두 오가는 편지들이었다. 그중 한 통에는 '채모와 장윤이 삼가 봉함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간은 깜짝 놀라 몰래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저희가 조조

에게 항복한 것은 벼슬을 탐내서가 아니라 형세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북군을 진채 안에 가두어 곤경에 빠뜨려 놓았으니, 기회만 생기면 즉시 조조의 목을 베어 장군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식이 오는 대로 바로 보고할 테니 부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렇게 올립니다."

장간이 말했다. "과연 채모와 장윤이 동오와 내통하고 있었구나!" 그러고는 얼른 편지를 옷 속에 몰래 숨겼다. 장간이 다른 서신을 더 살펴보려는데, 마침 침상 위에서 주유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려 했다. 장간은 급히 등불을 끄고 잠든 척했다. 주유가 잠결에 웅얼거리며 말했다. "자익, 며칠 내로 조조의 목을 보여주마!" 장간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주유가 다시 말했다. "자익, 기다려라! 조조의 목을 보여주겠다니까!" 장간이 다시 무엇인지 물으려 했으나, 주유는 이미 다시 잠이 들어 있었다.

주유는 침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새벽 네 시경이 되었을 무렵, 누군가 막사로 들어와 "도독님, 깨어 계십니까?"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꿈결에 무언가 기척을 느낀 주유가 그 사람에게 "침상에 누가 자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이 "도독님께서 장간을 청해 함께 주무시게 해놓고 어찌 잊으셨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주유는 아차 싶어 후회하며 말했다. "내가 평소에 술에 취하는 법이 없는데, 어제 취한 김에 실수라도 하여 혹시 망령된 말을 내뱉지는 않았느냐?" 그 사람이 다시 대답했다. "강북에서 사람이 이리로 왔습니다." 주유가 엄하게 꾸짖었다. "목소리를 낮추어라!" 그러고는 다시 "장간!" 하고 불렀으나, 장간은 자는 척을 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주유가 몰래 막사 밖으로 나갔다. 장간이 몰래 엿들으니, 밖에서 누군가 "장윤과 채모 두 도독이

말하기를, '서둘러 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뒷말은 너무 낮게 속삭여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주유가 막사로 들어오더니 다시 장간을 불렀다. '자익!' 하지만 장간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자는 척을 했다. 주유도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장간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유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날이 밝아 편지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으면 분명 나를 해치려 할 것이다.' 장간은 오경(새벽)까지 자는 척하다가, 주유를 깨우려 했으나 주유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다. 장간은 서둘러 관을 쓰고 몰래 막사를 빠져나와 어린 종을 불러 데리고는 곧장 군영 문 앞으로 나갔다. 군사들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라고 묻자, 장간이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도독의 일을 그르칠까 두려우니, 우선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네.' 군사들은 그를 막지 않았다.

장간은 배에서 내려 노를 저어 조조에게 돌아갔다. 조조가 물었다. "장간, 주유와 이야기는 잘 나누었는가?" 장간이 대답했다. "주유는 도량이 넓고 인품이 고결하여, 말재주 따위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조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일은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웃음만 사는구나!" 장간이 다시 말했다. "주유를 설득할 수는 없었으나, 대신 승상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좌우의 사람들을 물려 주십시오." 장간은 품에서 서신을 꺼내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조조에게 하나하나 설명했다. 조조는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두 도적놈들이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그러고는 즉시 채모와 장윤을 불러들였다. 조조가 말했다. "내 너희 둘에게 군사를 일으키게 하려 한다." 채모가 대답했다. "아직 군사들이 훈련이 덜 되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조가

노하며 말했다. "군사 훈련이 다 되었다면, 내 목을 주유에게 바치겠다!" 채모와 장윤은 조조의 의중을 알지 못해 당황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조는 무사들에게 호통을 쳐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게 한 뒤 바로 참수했다. 잠시 후, 잘린 머리가 장막 앞으로 가져와지자 그제야 조조는 깨달았다. "내가 계책에 빠졌구나!" 후대의 시인이 이를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조조의 간사한 영웅 기질도 막을 길 없더니, 한때의 꾀에 주유에게 당했구나. 채모와 장윤은 주인을 팔아 살길을 찾으려 했건만, 오늘 아침 칼날 아래 죽을 줄 누가 알았으랴!"

장수들이 채모와 장윤 두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조조는 속으로 자신이 계략에 빠졌음을 알았지만, 차마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사람이 군법을 소홀히 했기에 내가 베었을 뿐이다." 장수들은 모두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 조조는 장수들 중에서 모개와 우금을 뽑아, 채모와 장윤의 뒤를 이어 수군 도독으로 임명했다.

첩자가 이 소식을 알아내어 강동에 보고했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걱정하던 사람은 바로 그 두 사람이었다. 이제 그들을 제거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구나." 노숙이 말했다. "도독께서 이토록 군사를 부리시니, 조조를 격파하지 못할까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내 생각에 다른 장수들은 이 계책을 모르겠지만, 오직 제갈량만이 나보다 한 수 앞서 보고 있을 것 같구나. 아마 이 계책도 그를 속이지는 못할 터이다. 자경, 그대가 가서 슬쩍 말을 건네 보게나.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살펴본 뒤에 내게 보고해 주게."

이러한 상황을 읊자면 다음과 같다. "이간계가 성공한 일을 가지고, 곁에서 지켜보는 자를 시험해 보려 하네."

과연 노숙이 가서 제갈량에게 어떻게 물었을지,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6회 — 기묘한 계책으로 공명이 화살을 빌리고, 비밀스러운 계책을 바쳐 황개가 형벌을 받다

用奇謀孔明借箭 獻密計黃蓋受刑

한편, 노숙은 주유의 말을 전하러 제갈량을 찾아 배로 향했다. 제갈량이 작은 배를 타고 마중 나가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군무를 돌보느라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저 역시 도독께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숙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공근(주유)이 선생을 보내 제가 그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떠보게 한 것, 바로 그것이 축하할 만한 일이지요."

노숙은 안색이 변하며 다급히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셨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장간을 이용한 계책은 조조를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조조가 곧 깨닫지 않을 리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요. 이제 채모와 장윤 두 사람이 죽었으니 강동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데, 어찌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조조가 채모·장윤 대신 모개와 우금으로 바꾸어 수군 도독으로 삼았다는데, 이 두 사람의 손에서는 좋든 싫든 수군이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노숙은 그 말을 듣고는 입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제갈량을 뒤로하고 돌아갔다. 제갈량이 노숙에게 당부했다. "노숙 선생, 주유 앞에서 제가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라도 주유가 시기심을 품어 저를 해치려 할까 두렵습니다." 노숙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떠났다. 노숙이 돌아와 주유를 만나자, 방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았다. 주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저자는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내 반드시 저자를 베어 버리겠다!" 노숙이 말렸다. "만약 제갈량을 죽인다면 조조가 비웃을 것입니다." 주유가 대답했다. "나는 공정하게 처단하여, 그가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노숙이 물었다. "어떻게 공정하게 처단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유가 말했다. "노숙 선생은 더 묻지 마시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오."

다음 날, 주유가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아 제갈량에게 군사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갈량은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 자리에 앉자 주유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오늘 바로 조조의 군대와 맞붙어 수로에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무기를 먼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장강 위에서는 활과 화살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유가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제 생각과 아주 일치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중에 화살이 턱없이 부족하니, 실례를 무릅쓰고 선생님께서 화살 10만 대를 직접 만들어 적을 막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도독께서 믿고 맡겨 주셨으니 당연히 힘을 보태야지요. 그런데 화살 10만 대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주유가 물었다.

“열흘 안에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텐데, 열흘이나 기다리면 반드시 큰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며칠이면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딱 사흘이면 화살 10만 대를 준비해 올릴 수 있습니다.”

주유가 엄중히 말했다.

“군사들의 일에 농담은 없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어찌 감히 도독님께 농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군령장을 쓰겠습니다. 만약 사흘 안에 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엄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군정사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문서를 받아 들게 했다. 그러고는 술을 대접하며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부터 만들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사 오백 명을 강가

로 보내 화살을 옮기게 하십시오." 제갈량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노숙이 물었다. "저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소?" 주유가 대답했다. "저 사람이 스스로 죽으러 오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오. 방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문서를 받아 갔으니, 이제 날개가 달렸다 해도 날아가지 못할 것이오. 나는 그저 군기 장인들에게 명하여 일부러 일을 늦추게 하고, 필요한 물건을 제때 갖추어 주지 않도록 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죄를 물으면 누가 뭐라 하겠소? 자, 그대가 가서 저 사람의 속사정을 좀 살펴보고 돌아와 알려주시오."

노숙이 명령을 받고 제갈량을 만나러 왔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자정에게 말하기를, 공근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었소. 그가 나를 해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자정이 나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지 않더니, 결국 오늘 또 일을 만들어냈구려. 사흘 안에 어떻게 화살 십만 대를 만들겠소? 자정, 이제 당신이 나를 구해야 하오!"

노숙이 대답했다.

"제갈량 선생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신 것인데, 제가 어찌 당신을 구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자정, 내게 배 스무 척을 빌려주시오. 배 한 척당 군사 서른 명씩을 배치하고, 배마다 푸른 천으로 휘장을 치고 볏단을 천여 개씩 묶어 양

옆에 늘어놓아야 하오. 나에게는 따로 기막힌 방법이 있으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화살 십만 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다만, 이 일을 다시 공근이 알게 해서는 안 되오. 만약 그가 눈치챈다면 내 계책은 실패하고 말 것이오."

노숙은 대답하며 승낙했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노숙은 주유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배를 빌려달라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하고 그저 제갈량이 화살을 만들 때 대나무나 깃털, 풀 같은 재료를 전혀 쓰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만 전했다. 주유는 크게 의심하며 말했다.

"그가 사흘 뒤에 내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두고 보자꾸나!"

한편, 노숙은 제갈량의 명령을 기다리며 가볍고 빠른 배 스무 척과 각 배에 탈 서른 명 남짓한 인원, 그리고 천막과 볏단 같은 물자를 모두 준비해 두고 제갈량이 부르기만을 기다렸다. 첫째 날에는 제갈량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니, 둘째 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셋째 날 사경 무렵(새벽 두 시경), 제갈량이 노숙을 몰래 배로 불러들였다.

노숙이 물었다. "공명이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자정, 당신과 함께 화살을 좀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노숙이 다시 물었다. "화살을 어디로 가지러 간다는 말인가?"

제갈량이 말했다. "자정께서는 묻지 마십시오. 가다 보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스무 척의 배를 긴 밧줄로 서로 연결하게 한 뒤, 곧장 북쪽 기슭을 향해 출발시켰다. 그날 밤은 하늘 가득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장강 위에는 안개가 더욱 심해져 건너편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제갈량이 배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니, 과연 안개가 대단히 짙었다! 옛 글 중 〈대무수강부〉라는 글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아아, 장강이여! 서쪽으로는 민산과 아미산을 잇고, 남쪽으로는 삼오 땅을 다스리며, 북쪽으로는 아홉 개의 강을 끼고 흐르는구나. 온갖 강물을 모아 바다로 흘러드니, 만고의 세월 동안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간다. 용백, 해약, 강비, 수모 같은 신령과 천 장 길의 거대한 고래, 아홉 머리를 가진 지네, 그리고 온갖 귀신과 괴이한 존재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드니, 이는 곧 귀신이 머무는 곳이자 영웅들이 싸우고 지키는 땅이라 하겠다.

때로는 음양의 조화가 어지러워져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지니, 하늘은 온통 한 가지 색으로 보이고 갑자기 짙은 안개가 사방을 에워싼다. 땔나무를 이고 가도 앞이 보이지 않고, 오직 북소리와 징소리만 들릴 뿐이다. 처음에는 마치 안개가 자욱하여 남산의 표범이 겨우 몸을 숨긴 듯하더니, 점차 안개가 가득 차올라 북해의 거대한 물고기조차 길을 잃게 만든다. 그러고 나면 안개는 높은 하늘에 닿고 낮은 땅까지 드리우니, 아득하고 망망하여 끝이 없다. 고래와 악어는 물 위로 솟구쳐 파도를 일으키고, 교룡은 깊은 못 속에 잠겨 숨을 내뿜는다.

마치 봄비가 내리며 습기를 거두고 차가운 기운을 만들어내듯, 안개는 어둡고 흐릿하며 넓고도 막막하다. 동쪽으로는 시상 땅의 기슭을 잃고, 남쪽으로는 하구의 산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천 척의 전함은 모두 바위와 골짜기 사이로 가라앉은 듯하고, 잎사귀 같은 작은 고깃배 한 척도 물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인다. 심지어 하늘에는 빛이 사라져 아침 해가 빛을 잃으니, 대낮이 황혼처럼 변하고 붉은 산이 푸른 물빛으로 바뀐다. 대우의 지혜를 가진 자라도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이루의 밝은 눈을 가진 자라도 바로 앞을 분간할 수 없다.

이리하여 물의 신 풍이가 파도를 잠재우고, 바람의 신 병예가 그 위세를 거두니, 물고기와 자라가 자취를 감추고 새와 짐승도 숨어버린다. 신선이 사는 봉래섬을 가로막고 신령스러운 하늘 문을 어둡게 에워싸니, 그 기세가 마치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처럼 급박하고, 구름이 한데 모여드는 것처럼 어지럽게 뒤섞인다. 그 안에는 독사와 독한 기운이 숨어 있어 재앙을 일으키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서려 화를 부른다. 세상에는 질병을 내리고 변방에는 풍진을 일으키니, 백성들은 이를 만나 상처를 입고 대인들은 이를 보며 탄식한다. 이는 마치 태초의 혼돈으로 돌아가 천지를 거대한 덩어리로 뒤섞으려는 듯하도다."

그날 밤 5경(새벽 3시~5시 사이)이 되었을 때, 배는 이미 조조의 수군 진영에 가까워졌다. 제갈량은 배의 앞머리는 서쪽으로, 뒷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일렬로 늘어놓게 한 뒤, 배 위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노숙이 깜짝 놀라 물었다. "만약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 나온다면 어찌합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조조는 짙은 안개 속에서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안개가 걷히면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 조조의 진영에서는 북소리와 함성이 들려오자 모개와 우금이 황급히 달려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명령을 내렸다. "강 위에 짙은 안개가 끼어 적군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분명 매복이 있을 것이다.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다만 수군 궁수들에게 명령하여 화살을 마구 쏘게 하라." 또한 사람을 보내 육상 진영에 있는 장료와 서황을 불러, 각자 궁수 삼천 명씩을 거느리고 신속히 강가로 와서 지원 사격을 하도록 했다. 명령이 전달될 즈음, 모개와 우금은 남쪽 군사가 수군 진영으로 들이닥칠까 두려워 이미 진영 앞에서 궁수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한 상태였다.

잠시 후, 조조의 진영에서 활을 쏘는 궁수 일만여 명도 나타났다. 그들은 일제히 강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렸는데, 그 기세가 마치 비가 내리는 듯했다. 제갈량은 배의 방향을 돌려 머리는 동쪽을,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 조조의 수군 진영에 가까이 다가가 화살을 맞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해가 높이 떠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은 배를 급히 돌려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스무 척의 배 양옆에 묶어둔 볏단에는 화살이 빽빽하게 박혔다. 제갈량은 배에 탄 군사들에게 일제히 "승상께 화살을 얻어 갑니다!"라고 외치게 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이 소식을 조조에게 보고했을 때, 배들은 이미 물살을 타고 이십여 리나 멀리 달아난 뒤였다. 조조가 뒤쫓으려 했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고, 조조는 몹시 후회하며 탄식할 뿐이었다.

한편, 제갈량이 배로 돌아와 노숙에게 말했다. "배 한 척당 화살이 대략 오륙천 대 정도 박혔습니다. 강동의 힘을 절반도 쓰지 않고 이미 십만 대가 넘는 화살을 얻었으니, 내일 바로 조조의 군대를 향해 쏘아 올린다면 참으로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노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선생은 정말 신령스러운 분이십니다! 어찌 오늘처럼 짙은 안개가 낄 줄 미리 아셨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장수가 천문을 통달하지 못하고, 지리를 알지 못하며, 기문의 이치를 모르고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하며, 진법을 살피지 않고 병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재주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흘 전에 이미 오늘 큰 안개가 낄 것을 계산해 두었기에, 감히 사흘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유가 저에게 열흘 안에 마치라고 명령한 것은 장인과 재료를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회를 빌려 저를 명백히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주유가 어찌 저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노숙은 제갈량의 말에 진심으로 감복하여 절을 올렸다.

배가 기슭에 닿자, 주유는 이미 오백 명의 군사를 강변에 보내 화살을 옮길 준비를 하게 했다. 제갈량의 가르침대로 배 위에서 화살을 거두니, 그 수가 십여 만 대에 달했다. 이 화살들을 모두 중군 진영으로 옮겨 가져다 바쳤다. 노숙이 주유를 찾아가 제갈량이 화살을 얻은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주유는 크게 놀라며 탄식하며 말했다.

"제갈량의 신묘한 계산은 참으로 놀랍구나. 내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겠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짙은 안개가 장강을 가득 메우니, 멀고 가까움조차 분간하기 어렵구나. 소나기와 메뚜기 떼처럼 화살이 쏟아지니, 제갈량이 오늘 주유를 굴복시켰도다."

잠시 후, 제갈량이 진영으로 들어가 주유를 만났다. 주유는 장막 밖으로 나와 그를 맞이하며 칭찬했다. "선생의 신묘한 계산은 참으로 경탄스럽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저 잔꾀를 부린 것뿐인데, 대수롭지 않은 일을 어찌 기이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주유는 제갈량을 장막 안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주유가 말했다. "어제 우리 주군께서 사신을 보내 군사를 재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땅한 계책을 떠올리지 못했으니, 부디 선생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일 뿐인데, 어찌 묘책이 있겠습니까?" 주유가 다시 말했다. "어제 조조의 수군 진영을 살펴보니, 군기가 매우 엄격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 예사로운 방법으로는 공격하기 어렵겠더군요. 한 가지 계책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이것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께서 부디 저를 위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도독께서는 일단 말씀하지 마십시오. 각자 손바닥에 적어본 뒤에 서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붓과 먹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먼저 손바닥에 글자를 몰래 쓴 뒤 제갈량에게 건넸다. 제갈량 역시 손바닥에 글자

를 썼다. 두 사람은 침상 가까이 다가앉아 각자 손바닥에 쓴 글자를 서로 확인하고는 함께 크게 웃었다. 알고 보니 주유의 손바닥에 적힌 글자는 '불 화(火)' 자였고, 제갈량의 손바닥에 적힌 글자 또한 '불 화(火)' 자였다.

주유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본 것이 같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구려. 부디 이 일을 밖으로 누설하지 마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두 분의 공적인 일을 어찌 누설하겠습니까? 제가 헤아려 보건대, 조조가 비록 두 번이나 저의 계책에 당했다고는 하나 반드시 대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독께서는 어서 계획대로 실행하십시오."

술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으나, 다른 장수들은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

한편, 조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화살 십오, 육만 대를 허비하고 나니 마음이 몹시 답답했다. 이때 순유가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강동에는 주유와 제갈량이라는 두 사람이 계책을 쓰고 있어 당장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 강동에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여 첩자로 삼고,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게 해야 비로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 말이 내 뜻과 딱 맞소. 그대는 우리 군에서 누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소?"

순유가 대답했다.

"채모가 처형당한 뒤 그 일가족이 모두 군에 남아 있습니다. 채모의 사촌 동생인 채중과 채화가 지금 부장으로 있습니다. 승상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포섭하여 거짓 항복을 보내신다면, 강동에서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랐다. 그날 밤, 조조는 두 사람을 비밀리에 막사로 불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그대 둘은 적은 수의 병사를 이끌고 강동으로 가서 거짓 항복을 하시오. 다만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밀보를 보내야 하오. 일이 성사되면 두둑이 상을 내릴 것이니, 절대로 딴마음을 품지 마시오!"

두 사람이 말했다.

"저희의 처자식이 모두 형주에 있는데 어찌 감히 딴마음을 품겠습니까? 승상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 두 사람이 반드시 주유와 제갈량의 목을 베어 승상 앞에 바치겠습니다."

조조는 그들에게 큰 상을 약속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군사 오백 명을 거느리고 배 몇 척을 몰아 바람을 타고 남쪽 강안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주유가 한창 진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강북 쪽에서 배 한 척이 강 어귀로 다가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채모의 동생인 채중과 채화라며, 특별히 투항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주유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두 사람이 울며 절을 하며 말했다.

"저희 형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조조의 도적놈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형님의 원수를 갚고자 특별히 투항하러 왔사오니, 부디 저희를 받아주시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즉시 감녕과 함께 군사를 이끌어 선봉으로 삼게 했다. 두 사람은 감사의 절을 올렸으나, 속으로는 주유가 자신들의 계략에 걸려들었다고 여겼다.

주유는 몰래 감녕을 불러 분부했다.

"저 두 사람은 가족도 데려오지 않았으니 진짜로 투항한 것이 아니다. 조조가 보낸 첩자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제 저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저들이 조조에게 거짓 소식을 전하게 만들 작정이다. 너는 저들을 정성껏 대접하되, 안으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다 출병하는 날, 먼저 저 둘을 죽여 군기(軍旗)에 제사를 올리는 제물로 삼을 것이다. 너는 각별히 주의하여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감녕은 명령을 받고 물러갔다. 노숙이 주유를 찾아가 말했다.

"채중과 채화가 항복하러 오는 것은 분명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유가 꾸짖었다.

"그들은 조조가 형을 죽인 것에 복수하려 항복하러 오는 것인데, 무엇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이토록 의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천하의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노숙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나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노숙이 물었다.

"제갈량 선생, 어찌하여 웃으시는 겁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노숙 선생께서 주유가 어떤 계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안타까워 웃음이 났습니다. 장강이 가로막고 있어 첩자가 오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조가 채중과 채화를 보내 거짓 항복을 시키며 우리 군의 사정을 몰래 살피려 한다면, 주유는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정보를 흘리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속임수를 마다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이것이 바로 주유의 계책입니다."

그제야 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다.

한편, 주유가 밤에 막사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황개가 몰래 군중에 잠입하여 주유를 찾아왔다. 주유가 물었다.

"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오시다니, 분명 좋은 계책이 있어 찾아오신 것이겠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황개가 대답했다.

"적의 수는 많은데 우리 군은 적으니, 오래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화공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유가 물었다.

"누가 어르신께 이런 계책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황개가 말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나도 마침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중과 채화 같은 거짓 투항객들을 남겨두어 소식을 주고받게 하려 했지요. 다만 내 뜻을 믿어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황개가 말했다.

"제가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큰 고통을 겪지 않고서야 저들이 어찌 믿겠습니까?"

황개가 대답했다.

"손씨 가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깊으니, 설령 간과 뇌가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겪는다 해도 원망은 없습니다."

주유는 황개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어르신께서 이 고육계를 기꺼이 실행해 주신다면, 이는 강동의 만 가지 행운이 될 것입니다."

황개가 말했다.

"죽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황개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다음 날, 주유는 북을 울려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았고, 제갈량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주유가 말했다.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삼백여 리에 걸쳐 진을 잇대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제 장수들은 각자 석 달 치의 군량을 받아 적을 막을 준비를 하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석 달이라니요, 서른 달 치의 군량을 준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적을 물리치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번 달 안에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장자포(장소, 張昭)의 말대로 갑옷을 벗고 창을 거꾸로 잡아 북쪽을 향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는 안색이 급변하며 크게 노해 외쳤다. "나는 주군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격파하려 한다. 감히 다시 항복을 입에 올리

는 자는 반드시 베겠다! 지금 양군이 맞붙은 위급한 상황에 네가 어찌 그런 말을 내뱉어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네 목을 베지 않고서는 장수들을 복종시킬 수 없다!" 주유는 좌우에게 호령하여 황개를 참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명했다.

황개 역시 분노하며 말했다. "나는 파로장군(손견)을 따른 이래로 동남 땅을 종횡하며 이미 삼대(손견·손책·손권)를 섬겨 왔거늘, 네까짓 것이 어디 끼어들 자리가 있단 말이냐?"

주유는 크게 노하여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감녕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황개는 강동의 오래된 신하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주유가 호통을 쳤다. "네가 어찌 감히 나서서 나의 군법을 어지럽히느냐!" 그러고는 좌우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감녕을 매로 때려 밖으로 쫓아냈다.

장수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황개의 죄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나, 그렇게 하면 군사들의 사기에 좋지 않습니다. 도독께서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우선 죄만 물어두십시오. 조조를 격파한 뒤에 처형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장수들이 간곡히 애원했다. 주유가 말했다. "여러 장수의 체면을 봐서 이번만은 죽임을 면해주겠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좌우에게 명하여 황개를 끌어내어 곤장 백 대를 쳐서 그 죄를 다스리게 했다.

장수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용서를 구하자, 주유는 책상을 밀쳐버리고 장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매질을 하라고 소리쳤다. 주유는 황

개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곤장 오십 대를 쳤다. 장수들이 또다시 간곡히 용서를 구하자, 주유는 벌떡 일어나 황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우선 오십 대를 쳤으니 일단 기록해 두어라. 만약 또다시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두 가지 죄를 모두 물어 엄벌에 처하겠다!" 주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막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수들이 황개를 부축해 일으켰으나, 이미 살점이 터지고 피가 솟구쳐 흐르는 상태였다. 황개를 본진으로 옮겨 놓은 뒤에도 그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노숙 역시 황개를 살피러 갔다가 제갈량의 배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주유가 황개를 이토록 모질게 매질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의 부하들이라 감히 나서서 간언하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손님으로서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노숙 선생께서 저를 속이시는군요."

노숙이 되물었다.

"내가 선생과 함께 강을 건너온 뒤로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노숙 선생께서는 주유가 오늘 황개를 모질게 때린 것이 사실은 그의 계책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찌 저더러 그를 말리라고 하십니까?"

그제야 노숙은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 제갈량이 말을 이었다.

"고육계를 쓰지 않고서 어찌 조조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반드시 황개가 거짓으로 항복하러 가게 할 텐데, 그러면 채중과 채화가 그 사실을 조조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노숙 선생께서 주유를 만나실 때, 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제가 도독을 원망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십시오."

노숙이 물러가 주유의 막사로 들어가니, 주유가 그를 안으로 맞이했다. 노숙이 물었다. "오늘 어찌하여 황개를 그토록 모질게 꾸짖으셨습니까?" 주유가 되물었다. "장수들이 원망이라도 하는가?" 노숙이 대답했다.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제갈량의 생각은 어떠한가?" 노숙이 말했다. "그도 도독께서 너무 박정하게 구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조차 속여 넘겨야 하네." 노숙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유가 설명했다. "오늘 황개를 호되게 매질한 것은 다 계획이 있어서라네. 황개를 거짓으로 투항하게 만들려는데, 그러려면 먼저 고육계로 조조를 속여야 하네. 그래야 화공을 써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 노숙은 제갈량의 뛰어난 식견을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한편, 황개가 장막 안에 누워 있자 여러 장수가 모두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황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길게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때 참모 감택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황개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고 좌우의 병사들은 모두 물러가게 했다.

감택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혹시 도독과 원한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황개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네."

감택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장군께서 지금 매를 맞으신 것이 혹시 고육계가 아니옵니까?"

황개가 물었다. "그것을 어찌 아는가?"

감택이 말했다. "제가 주유의 거동을 살펴보니, 이미 팔구 할은 짐작이 갑니다."

황개가 말했다. "나는 손권에게 삼 대에 걸친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나, 이를 갚을 길이 없었네. 그래서 조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계책을 내놓은 것이라네. 내가 비록 고통을 겪더라도 원망할 것은 없네. 군 안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심복이 없더군. 오직 자네만이 평소 충의가 깊으니, 감히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네."

감택이 말했다. "장군께서 제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저더러 거짓 투항서를 쓰라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황개가 말했다. "실은 그럴 생각이네. 자네가 응해주겠는가?"

감택은 기쁘게 승낙했다.

용맹한 장수는 몸을 아끼지 않고 주군에게 보답할 길을 생각하고, 지략이 뛰어난 신하는 나라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구나.

감택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7회 — 감택이 비밀리에 항복 서신을 바치고, 방통이 교묘하게 연환계를 전수하다

闞澤密獻詐降書 龐統巧授連環計

한편, 감택의 자는 덕윤이며 회계 산음 사람이다. 집안은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남의 밑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면서도 남의 책을 빌려 읽곤 했다. 한 번 읽은 내용은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으며, 말솜씨가 뛰어나고 담력 또한 남달랐다. 손권이 그를 불러 참모로 삼았는데, 황개와는 매우 막역한 사이였다. 황개는 감택이 말재주가 좋고 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거짓 항복 서신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감택은 기쁘게 응하며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풀과 나무처럼 썩어 없어질 뿐 아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이미 몸을 던져 주군을 섬기기로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미천한 목숨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황개는 침상에서 내려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감택이 말했다. "일이 급하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황개가 대답했다. "서신은 이미 다 써 두었소."

감택은 서신을 받아 든 그날 밤, 즉시 어부로 변장하고 작은 배를 몰아 북쪽 기슭을 향해 나아갔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가득했고, 삼경 무렵이 되어서야 조조의 수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강을 순찰하던 병사들이 그를 붙잡아 밤새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혹시 첩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병사들이 "그저 어부 한 명일 뿐인데, 자신을 동오의 참모 감택이라 소개하며 긴밀한 사정이 있어 뵙고자 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조는 즉시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감택을 인도하여 안으로 데려가니, 장막 안은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조조는 책상에 기대어 똑바로 앉아 있었다. 조조가 물었다. "그대가 동오의 참모라면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왔는가?" 감택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조 승상이 인재를 갈구하며 목마른 듯 찾는다더니, 방금 하신 질문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군요. 황공복(황개)이여, 그대 또한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동오와는 아침저녁으로 교전하는 사이인데, 네가 몰래 이곳까지 왔으니 어찌 너를 캐묻지 않겠느냐?"

감택이 대답했다. "황개는 동오에서 3대째 모셔온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유에게 장수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고는, 그 원한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승상께 투항하여 복수할 계책을 세우고자 저와 함께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저는 황개와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라, 곧장 달려와 비밀 서신을 바치러 온 것입니다. 승상께서 이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조가 물었다. "서신이 어디 있느냐?"

감택이 서신을 꺼내 바쳤다. 조조는 서신을 뜯어 등불 아래에서 읽기 시작했다. 서신의 내용은 이러했다.

"저는 손씨 가문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기에 본래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형세를 살펴보면, 강동 육군의 병력으로 중원의 백만 대군을 상대하려 하니, 수적 차이가 너무 커서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동오의 장수들은 지혜롭든 어리석든 모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라는 어린놈은 얕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제 능력만 믿고 알을 바위로 치려는 격이니, 게다가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며 죄 없는 사람을 벌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노장도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으니 마음속으로 원한이 깊습니다! 엎드려 듣건대 승상께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재를 받아들이신다 하니, 부디 저희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하여 공을 세우고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군량과 수레 등은 배에 실어 바칠 것이니, 부디 눈물로 올리는 이 항복을 의심하지 마옵소서."

조조는 탁자 위에 놓인 서신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열 번도 넘게 읽더니, 갑자기 탁자를 내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었다. "황개가 고육계를 써서 네놈에게 거짓 항복 서신을 쓰게 해 이 일을 꾸몄구나! 감히 나를 놀리려 들다니!" 조조는 즉시 좌우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감택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했다. 병사들이 감택을 끌어내자, 감택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 조조가 다시 그를 끌어오게 하고 꾸짖었다. "내 이미 간악한 계책을 간파했거늘, 너는 어찌하여 비웃느냐?" 감택이 말했다. "승상님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황 공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사람을 못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감택이 대답했다. "죽이려거든 그냥 죽이십시오. 굳이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조조가 다시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병법서를 익히고 깊이 읽어 간사하고 거짓된 도리를 잘 알고 있다. 네놈의 이 계책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어떻게 속이겠느냐!" 감택이 말했다. "그럼 서신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이 간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네놈의 허점을 밝혀 죽여도 원망하지 못하게 해주마! 네가 진심으로 서신을 바쳐 항복하려 했다면, 어찌 언제 항복할 것인지 명확한 약속을 적지 않았단 말이냐? 이제 네가 무슨 논리로 나를 설득하겠느냐?"

감택은 말을 다 듣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병법서를 달달 외웠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큼 겁도 없으시구려! 차라리 어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오!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면 반드시 주유에게 사로잡힐 것이오! 참으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로군! 이런 사람 손에 죽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소!"

조조가 물었다.

"내가 배운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감택이 대답했다.

"기교를 알지 못하고 도리를 깨닫지 못하니, 어찌 배운 게 없다고 하지 않겠소?"

조조가 다시 말했다.

"그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감택이 말했다.

"현명한 이를 대접하는 예우조차 갖추지 못하니,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소? 그저 죽음을 맞이할 뿐이지요."

조조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말한다면, 내가 기꺼이 감복하겠소."

감택이 외쳤다.

"'주인을 배신하고 몰래 움직일 때는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못 들었소? 지금처럼 날짜를 미리 정해버리면 급히 일을 도모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곳에서 맞대응을 하게 되어 일이 반드시 탄로 나고 말 것이오. 그저 상황을 살펴서 움직여야지, 어찌 미리 날짜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이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 들다니, 참으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로군!"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표정을 고쳐 앉으며 자리에서 내려와 사과했다. "내가 사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귀한 분의 위엄을 범했으니, 부디 마음 쓰지 마시오." 그러자 감택이 말했다. "저와 황개 어른은 진심을 다해 항복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를 바라는 마음과 같으니, 어찌 속임수가 있겠습니까?"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약 두 사람이 큰 공을 세운다면, 훗날 작위를 받을 때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윗자리에 오를 것이오." 감택이 대답했다. "저희는 작위나 녹봉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도리를 따를 뿐입니다." 조조는 즉시 술을 가져와 그들을 대접했다.

잠시 후, 누군가 장막 안으로 들어와 조조의 귓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조조가 "서신을 가져오너라"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비밀 서신을 바쳤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던 조조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감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 채중과 채화가 황개가 형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로구나. 조조가 내 항복 소식을 진짜라고 믿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

조조가 말했다. "선생께서 다시 강동으로 돌아가 황개와 다시 약속을 맺어 주시오. 먼저 소식을 보내주면 내가 군사를 보내 맞이하겠소."

감택이 대답했다. "저는 이미 강동을 떠나왔기에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승상께서 다른 비밀 요원을 보내 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일이 새어 나갈까 두렵소."

감택이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다. "만약 가게 된다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조조가 금과 비단을 선물로 내렸으나 감택은 받지 않았다. 감택은 작별을 고하고 진영을 나선 뒤, 작은 배를 타고 다시 강동으로 돌아가 황개를 만나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황개가 말했다. "그대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헛된 고통만 당했을 것이네."

감택이 대답했다. "이제 감녕의 진영으로 가서 채중과 채화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황개가 말했다. "그렇게 하게나."

감택이 감녕의 진영에 도착하자 감녕이 그를 맞이했다. 감택이 말했다. "장군께서 어제 황개 어르신을 구하려다 주유에게 모욕을 당하셨으니, 제 마음이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감녕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채중과 채화가 도착했다. 감택은 눈짓으로 감녕에게 신호를 보냈다. 감녕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주유는 자기 능력만 믿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이토록 수치를 당했으니, 강동의 사람들을 차마 어떻게 보겠느냐!" 말을 마친 감녕은 이를 악물고 분노를 참지 못해 책상을 내리치며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감택이 짐짓 감녕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고, 감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긴 한숨만 내쉬었다.

채중과 채화는 감택과 감녕이 배반할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떠보려고 말했다.

"장군께서는 무엇 때문에 번뇌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그러자 감택이 대답했다.

"우리 마음속의 괴로움을 당신들이 어찌 알겠소!"

채화가 다시 물었다.

"설마 오나라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하려는 것 아니오?"

그 말에 감택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자 감녕이 칼을 뽑아 들며 일어나 외쳤다.

"이미 우리의 속셈이 들통났으니,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죽여야 한다!"

채화와 채중이 당황하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감녕이 재촉했다. "어서 말해 보시오!"

채화가 말했다. "저희 둘은 조조가 거짓으로 항복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만약 두 분께서 귀순할 마음이 있다면 저희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녕이 물었다. "그 말이 정말이오?"

두 사람이 일제히 대답했다.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감녕이 짐짓 기쁜 기색을 띠며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로군요!"

채화와 채중이 덧붙였다. "황개가 장군에게 모욕을 당한 일은 이미 승상께 보고드렸습니다."

감택이 말했다. "저 또한 황개의 뜻을 담은 서신을 승상께 올렸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감녕을 만나 함께 항복하기로 약속하러 온 것입니다."

감녕이 말했다. "대장부로서 명군을 만났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해 충성을 바쳐야지요."

이에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화와 채중은 즉시 편지를 써서 감녕이 누군가와 함께 내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조조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감택 또한 따로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조조에게 은밀히 보냈다. 편지에는 황개가 항복하려 하나 아직 기회를 잡지 못했으니, 배 머리에 청아기를 꽂고 오는 자가 바로 그들이라고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한편, 조조는 연달아 두 통의 항복 서신을 받고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모사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며 말했다. "강동의 감녕은 주유에게 모욕을 당해 안에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황개는 벌을 받

은 뒤 감택을 보내 항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두를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주유의 진영으로 직접 들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장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소인이 지난번 동오에 헛되이 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해 깊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몸을 던져 가고자 하니, 반드시 사실을 알아내어 승상께 보고하겠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간에게 배를 내어주었다. 장간은 작은 배를 몰아 곧장 강남 수채 근처로 가서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주유는 장간이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오로지 이 사람에게 달려 있구나!" 그러고는 노숙에게 부탁했다. "부디 방통을 모셔 오시오. 내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오."

본래 양양 출신인 방통은 자가 사원인데, 난리를 피해 강동에 은거하고 있었다. 노숙이 일찍이 그를 주유에게 추천했으나, 방통은 아직 주유를 만나러 가지 못한 상태였다. 주유는 먼저 노숙을 보내 방통에게 계책을 물었다. "조조를 격파하려면 어떤 방책을 써야 하겠소?" 그러자 방통이 노숙에게 은밀히 일러주었다.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려면 반드시 화공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저 넓은 강 위에서는 배 한 척에 불이 붙으면 나머지 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연환계'를 써서 조조의 배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 놓아야만 비로소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숙이 이 말을 주유에게 전하자, 주유는 그의 논리에 깊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계책을 실행할 사람은 방통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없소." 노숙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조조가 워낙 간사하고 교활하니, 어떻게 그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깊은 생각에 잠겨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마땅한 기회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장간이 다시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방통에게 계책을 쓰도록 지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막에 앉아 사람을 보내 장간을 맞이하게 했다.

장간은 주유가 자신을 직접 맞이하러 나오지 않자 의구심이 생겼다. 그는 배를 한적한 강가에 매어 두고 주유를 만나러 장막으로 들어갔다. 주유는 안색을 바꾸며 꾸짖었다.

"장간, 자네는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심하게 속이는가?"

장간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우리가 예전부터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러 온 것이네. 어찌 속였다고 말하는가?"

주유가 말했다.

"자네가 나에게 항복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의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나 가능한 일일 것이네! 지난번에는 옛 정을 생각해서 자네와 함께 술을 마음껏 마시고 잠자리도 같이 나누어 주었건만, 자네

는 내 비밀 편지를 훔쳐 달아나 조조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그 때문에 채모와 장윤이 죽임을 당했고 결국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네. 오늘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시 온 것인가? 분명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닐 터! 나는 이제 옛 정 따위는 생각지 않고 자네를 단칼에 베어버리겠네! 원래는 그냥 보내주려 했으나, 조조를 물리치는 일이 머지않았으니 자네를 군중에 머물게 했다가는 분명 비밀이 새어 나갈 것이네."

그러고는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장간을 서산암으로 보내 쉬게 하라. 내가 조조를 물리치고 나면, 그때 강을 건너 보내주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장간이 다시 말을 꺼내려 했으나, 이미 주유가 장막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을 가져와 장간을 태우고 서산 뒤편의 작은 암자로 데려가 쉬게 했으며, 군인 두 명을 붙여 시중을 들게 했다. 장간은 암자 안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가득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넘기지 못했다. 그날 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이슬이 맺힌 가운데 홀로 암자 밖으로 산책을 나섰는데, 어디선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길 닿는 대로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바위 곁에 초가집 몇 채가 있었고, 그 안에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장간이 살짝 들여다보니, 한 사람이 검을 찬 채 등불 앞에 앉아 손씨와 오씨의 병법서를 읊고 있었다. 장간은 이 사람이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생각하여 문을 두드리고 만나기를 청했다.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풍채가 예사롭지 않았다. 장간이 이름을 묻자 그는 "성은 방이고 이름은 통이며, 자는 사원이라 하오"라고 답했다. 장간이 "혹시 봉추 선생 아니십니까?"라고 묻자, 방통이 "그렇소"라고 대답했다. 장간이 기뻐하며

"성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곳에 은거하고 계십니까?"라고 묻자, 방통이 말했다. "주유가 제 재주만 믿고 남을 포용할 줄 모르기에 나는 일부러 이곳에 숨어 지내는 것이오. 공은 누구시오?" 장간이 "저는 장간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했다.

방통은 그를 초가집으로 정중히 모셔 앉히고 마주 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간이 말했다. "공의 재능이라면 어디를 가든 환영받을 텐데, 만약 조조에게 귀순할 뜻이 있다면 제가 직접 그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자 방통이 대답했다. "저 역시 강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공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겠다면 지금 바로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만약 지체하다가 주유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저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방통은 장간과 함께 밤을 도와 산을 내려왔다. 강가에 이르러 원래 타고 왔던 배를 찾아낸 뒤, 노를 저어 강북의 조조 진영을 향해 나아갔다. 조조의 진영에 도착하자 장간이 먼저 들어가 앞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조조는 봉추 선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막사를 나와 그를 맞이했다.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힌 조조가 물었다.

"주유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재주만 믿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좋은 계책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 선생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었으니 부디 아낌없는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방통이 대답했다.

"저는 평소 승상께서 군사를 부리는 법이 탁월하다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상의 군대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을 뿐입니다."

조조는 말을 준비시킨 뒤, 먼저 방통을 청해 육채(陸寨)를 함께 살펴보게 했다. 방통은 조조와 나란히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내다보았다. 방통이 말했다.

"산과 숲을 끼고 있어 앞뒤를 둘러볼 만하며, 드나드는 문이 있고 퇴각과 전진의 경로가 굽이굽이 잘 짜여 있습니다. 설령 손무와 오기가 다시 태어나고 사마양저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이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선생께서 너무 과찬을 하시는군요.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이어 수채를 함께 살펴보았다. 남쪽을 향해 스물네 개의 문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모두 거대한 전함들이 성곽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골목처럼 길이 나 있으며 배들의 배치 또한 질서 정연했다. 방통은 웃으며 말했다.

"승상께서 군사를 부리는 솜씨가 과연 명불허전이십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강남 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주유! 주유! 너는 머지않아 반드시 망하리라!"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진영으로 돌아온 뒤 방통을 막사 안으로 모셔 술을 차려 함께 마시며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통은 거침없이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대답하니, 조조는 그 재능에 깊이 감복하여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

그때 방통이 술에 취한 척하며 슬쩍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군중에 뛰어난 의원이 있습니까?" 조조가 의원이 어디에 쓰려느냐고 묻자, 방통이 대답했다. "수군에 병자가 많으니, 반드시 명의를 불러 다스려야 합니다."

당시 조조의 군대는 낯선 땅의 물과 토질에 적응하지 못해 모두가 구토 증세를 보였고, 그중에는 죽는 이도 많았다. 조조가 마침 이 일을 걱정하던 차에 방통이 그 말을 꺼내니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방통이 말했다. "승상께서 수군을 훈련시키는 법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조가 거듭 상세히 물었다. "그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방통이 대답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이 계책을 쓰면 크고 작은 수군 모두가 병치레 없이 평안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묘책을 물었다. 방통이 말했다.

"저 큰 강은 조수가 드나들고 바람과 물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쪽 군사들은 배를 타는 데 익숙하지 않아, 이런 흔들림을 겪으면 금방 병이 나고 맙니다. 만약 큰 배와 작은 배를 적절히 섞어 배치하고, 서른 척이나 쉰 척씩 한 줄로 묶어 앞뒤를 쇠사슬로 연결한 뒤 그 위에 넓은 판자를 깔아둔다면, 사람이 건너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조차 편히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를 운행한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과 물결이 몰아쳐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통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선생의 훌륭한 계책이 아니었다면, 어찌 동오를 격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통이 대답했다.

"부족한 견해일 뿐이니, 승상께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십시오."

조조는 즉시 명령을 내려 군영의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밤을 새워 커다란 쇠못과 사슬을 만들어 배들을 하나하나 쇠사슬로 묶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군사들은 저마다 기뻐하며 환호했다.

후세에 사람들이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적벽에서 치열한 전투에 불을 사용했으니, 그 모든 계책과 결정은 하나로 통했구나. 만약 방통의 연환계가 아니었다면, 주유가 어찌 그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으랴?"

방통이 조조에게 다시 말했다.

"제가 보기에 강동의 영웅들 중에는 주유에게 원한을 품은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솜씨를 발휘하여 승상께서 그들을 설득하신다면, 그들이 모두 승상께 항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유는 고립되어 구원

받을 길이 없으니 반드시 승상께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주유가 패하면 유비 또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선생께서 정말로 큰 공을 세우신다면, 내가 천자께 아뢰어 선생을 삼공의 반열에 오르도록 청하겠습니다."

방통이 대답했다.

"저는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만백성을 구하고자 할 뿐입니다. 승상께서 강을 건너실 때 부디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나는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려 하는데, 어찌 차마 백성을 죽이겠습니까?"

방통은 종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을 붙여달라며 간곡히 청했다. 조조가 물었다.

"선생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통이 말했다.

"그저 강가에 있습니다. 만약 이 방이 붙는다면 그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명을 내려 방문(榜文)을 쓰게 한 뒤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방통에게 주었다. 방통은 절하여 사례하며 말했다. "헤어진 뒤에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군사를 움직이십시오. 주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방통은 인사를 나누고 작별한 뒤 강가에 이르렀다. 막 배를 타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강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도포를 입고 대나무 관을 쓴 채 나타나더니 방통을 덥석 붙잡으며 외쳤다.

"참으로 대담하구나! 황개가 고육계로 속이고 감택이 거짓 항복 서신을 보냈는데, 이제는 네가 연환계까지 내놓으니 조조의 군대를 다 태워버릴 작정이냐! 너희가 이런 독한 수를 써서 조조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나까지 속일 수는 없다!"

방통은 너무 놀라 혼비백산했다.

과연 동남쪽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서북쪽에도 뛰어난 인물이 없다고 누가 말했는가?

결국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8회 — 장강에서 연회를 베풀며 조조가 시를 짓고, 전선을 쇠사슬로 묶으니 북군이 위력을 떨치다

宴長江曹操賦詩 鎖戰船北軍用武

한편, 방통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상대방을 돌아보았다. 알고 보니 그는 바로 서서였다. 방통은 옛 친구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방통이 말했다.

"만약 자네가 내 계책을 누설한다면, 강남 팔십일 주의 백성들을 모두 자네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네!"

서서가 웃으며 물었다.

"지금 이곳에 있는 83만 대군들의 목숨은 어찌 되겠습니까?"

방통이 되물었다.

"원직, 자네 정말로 내 계책을 깨뜨리려는 것인가?"

서서가 대답했다.

"저는 유비 황숙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보답할 길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제 어머니를 죽게 했으니, 저는 이미 평생 그를 위해 어떠한 계책도 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찌 형님의 좋은 계책을 깨뜨리겠습니까? 다만 저 또한 군대를 따라 이곳에 와 있으니, 나중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릴 겨를도 없이 화를 입을 텐데, 어찌 재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탈출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입을 굳게 다물고 멀리 물러나 있겠습니다."

방통이 웃으며 말했다.

"원직의 식견이 이토록 높으니,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나!"

서서가 말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방통은 서서의 귓가에 다가가 몇 마디를 나직이 일러주었다. 서서는 크게 기뻐하며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했다. 방통은 서서와 헤어져 배를 타고 다시 강동으로 돌아갔다.

한편, 서서는 그날 밤 몰래 사람을 시켜 각 진영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다음 날이 되자 진영 곳곳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은밀하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를 미리 살피던 사람이 조조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군중에 서량의 한수와 마등이 반란을 일으켜 허도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급히 모사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

"내가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정벌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했던 이들이 바로 한수와 마등이다. 군중에 떠도는 소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서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서서는 승상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군사 삼천 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산관의 요충지를 지키겠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조조가 기뻐하며 말했다. "원직이 가준다면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겠소. 산관에는 이미 군사들이 있으니 그대가 가서 지휘하시오. 우선 보병 삼천 명을 빼주겠으니, 장패를 선봉장으로 삼아 밤을 도와 신속히 이동하도록 하시오.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오." 서서는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장패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것이 바로 방통이 서서를 구해준 계책이었다.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읊었다.

"조조가 남쪽으로 정벌을 떠나며 매일같이 근심하니, 마등과 한수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네. 봉추의 말 한마디가 서서를 가르치니,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벗어나는 듯하구나."

조조는 서서를 돌려보낸 뒤 마음이 조금 놓이자, 말을 타고 먼저 강을 따라 늘어선 육상 진영을 살핀 다음 수상 진영을 차례로 점검했다.

그는 커다란 배 한 척에 올라탔는데, 배 중앙에는 '수(帥)' 자가 적힌 깃발을 세우고 양옆에는 수상 진영의 배들을 배치했으며, 배 위에는 활과 노를 천 장이나 매복시켜 두었다. 조조는 그 배의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때는 건안 12년 겨울 11월 15일로, 날씨는 맑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했다. 조조가 명령했다. "큰 배 위에 술과 음악을 차려라. 오늘 밤 장수들과 연회를 베풀겠다."

날이 저물어 동산 너머로 달이 떠오르니, 그 빛이 마치 대낮처럼 밝았다. 장강 줄기는 마치 하얀 비단이 길게 펼쳐진 듯했다. 조조는 커다란 배 위에 앉아 있었는데, 좌우를 호위하는 수백 명의 수행원은 모두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창과 극을 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문무백관도 차례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조는 남쪽 병풍처럼 펼쳐진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동쪽으로는 시상 땅을, 서쪽으로는 하구의 강물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번산을, 북쪽으로는 오림을 굽어보았다. 사방이 탁 트인 광활한 풍경에 마음이 즐거워진 조조가 문무백관에게 말했다.

"내가 의병을 일으킨 이래로 국가의 재앙을 없애고 해악을 제거하며, 온 세상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천하를 평정하겠다고 맹세해 왔다. 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곳이 바로 강남이다. 이제 나에게는 백만 대군이 있으니, 그대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강남을 평정하고 나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대들과 함께 부귀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즐기겠다."

그러자 문무백관이 모두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하루빨리 승전보를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평생 승상 덕분에 복을 누릴 것입니다."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좌우에 술을 올리라고 명했다.

밤이 깊어 술기운이 한창 오른 조조가 남쪽 기슭을 멀리 가리키며 말했다.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읽지 못하는구나. 다행히 지금 항복한 자가 있어 저들에게는 심복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자 순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승상, 말씀이 새어 나갈까 두려우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자리에 앉은 여러 공과 곁을 지키는 측근들은 모두 나의 심복인데, 말하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느냐?” 이어 조조는 하구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유비와 제갈량, 저들은 개미 같은 힘으로 태산을 흔들려 하니 어찌 그리 어리석단 말이냐!” 그러고는 장수들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내가 올해 쉰네 살이다. 만약 강남을 얻게 된다면 참으로 기쁘겠구나. 예전에 교공은 나와 더없이 절친한 사이였는데, 나는 그의 두 딸이 모두 나라에서 으뜸가는 미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손책과 주유가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더구나. 내가 이제 장수 위 동작대에 새로 건물을 지었으니, 만약 강남을 얻는다면 두 교씨를 아내로 맞아 동작대에 두고 노년의 즐거움으로 삼으리라. 그것이면 내 소원은 충분하다.” 말을 마친 조조가 크게 웃어젖혔다. 당나라 시인 두목은 조조의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모래 속에 가라앉은 창날은 녹슬지 않으니, 스스로 닦고 씻어 지난 왕조를 기억하네. 동풍이 주유를 돕지 않았다면, 동작대에 봄이 깊을 때 두 교씨를 가두었으리라.”

조조가 한창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 떼가 울부짖으며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조조가 "저 까마귀들은 왜 저리 울며 날아가는 것이냐?"라고 묻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대답했다. "까마귀가 밝은 달을 보고 날이 밝은 줄 착각하여 나무를 떠나 우는 모양입니다." 조조는 다시 크게 웃었다.

당시 조조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는데, 배 위에 올라가 긴 창을 세워 잡고는 강물에 술을 부어 제를 올린 뒤 술 세 잔을 연달아 비웠다. 그러고는 창을 가로로 눕혀 잡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창을 들고 황건적을 격파하고, 여포를 사로잡으며, 원술을 멸하고 원소를 굴복시켰다. 또한 변방 북쪽 깊숙이 들어가 요동까지 이르렀으니, 천하를 종횡무진 누비며 대장부의 뜻을 충분히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경치를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내가 노래를 지을 테니 너희는 화답하라."

노래는 이러했다.

"술을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니, 인생이 대체 얼마인가? 아침 이슬과 같으니, 지나간 날들이 참으로 많구나. 의기 넘치게 슬픔을 달래보려 해도, 근심 어린 생각은 잊기 어렵네. 무엇으로 이 시름을 달랠까, 오직 술뿐이로다.

푸른 옷깃의 그대여, 내 마음은 아득하기만 한데, 오직 그대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네. 사슴이 울며 들판의 풀을 뜯듯,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거문고를 타고 피리를 부네.

달빛은 밝게 빛나는데, 이 노래는 언제쯤 멈출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근심은 끊어질 줄 모르네. 이웃집 담을 넘고 길을 건너 찾아와 주시니, 오랜만에 마주 앉아 옛 은혜를 떠올리며 술잔을 나누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마귀와 까치들은 남쪽으로 날아가고, 나무 주위를 세 번이나 맴돌아도 의지할 가지가 없구나. 산은 높음을 싫어하지 않고, 물은 깊음을 싫어하지 않듯, 주공처럼 끊임없이 덕을 쌓으면, 천하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화답하며 함께 즐겁게 웃었다. 그때 갑자기 좌석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아가 말했다.

"대군이 맞붙어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에,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조조가 그를 보니, 양주자사로서 패국 상현 사람인 유복으로 자는 원영이었다. 유복은 합비에서 몸을 일으켜 주의 치소를 세우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았으며, 학교를 세우고 둔전을 넓히며 교화를 일으키는 등 오랫동안 조조를 섬기며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조조가 창을 세워 들고 물었다. "내 말이 어디가 불길하다는 말이냐?"

유복이 대답했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치와 까마귀는 남쪽으로 날아가 나무를 세 바퀴나 돌지만, 의지할 가지가 없구나'라는 구절이 불길합니다."

조조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네 이놈, 감히 나의 흥을 깨뜨리려 드느냐!"

그러고는 창을 휘둘러 유복을 찔러 죽였다.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겁에 질렸고, 연회는 그대로 끝이 났다.

다음 날, 술에서 깨어난 조조는 후회와 한탄을 금치 못했다. 유복의 아들 유희가 찾아와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 장사 지내게 해 달라고 청하자,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어제 술에 취해 그대의 아버지를 잘못 죽였으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구나. 삼공의 예우를 갖추어 정중히 장사 지내주겠다."

조조는 군사들을 보내 관을 호위하게 하여 그날 바로 고향으로 보냈다. 이튿날, 수군 도독 모개와 우금이 조조를 찾아와 보고했다.

"크고 작은 배들에 모두 쇠사슬을 연결하여 정박을 마쳤습니다. 깃발과 전투 장비도 하나하나 모두 갖추었으니, 승상께서는 명령을 내려 정해진 날짜에 진군하도록 하소서."

조조가 수군의 중심에 있는 대형 전함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장수들을 불러 모은 뒤, 각자에게 명령을 내렸다. 수군과 육군 모두 다섯 가지 색깔의 깃발로 부대를 나누었다. 수군은 중앙의 황색 깃발 아래 모개와 우금이 맡았고, 전군은 홍색 깃발의 장합, 후군은 흑색 깃발의 여건, 좌군은 청색 깃발의 문빙, 우군은 백색 깃발의 여통이 각각 이끌었다. 육군 기병과 보병은 전군의 홍색 깃발 아래 서황이, 후군의 흑색 깃발 아래 이전이, 좌군의 청색 깃발 아래 악진이, 우군의 백색 깃발 아래 하

후연이 맡았다. 수로와 육로를 연결하여 군사를 지원하는 접응사는 하후돈과 조홍이 맡았으며, 장수들이 오가는 길을 호위하며 전투를 살피는 감전사는 허저와 장료가 맡았다. 그 밖의 용맹한 장수들은 각자 배정된 부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훈련을 마친 신호로 수군 진영에서 북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각 부대의 전함들이 질서 정연하게 나아갔다. 마침 그날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 닥친 덕분에, 모든 배가 돛을 올리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평지를 걷는 듯 안정적이었다. 북방 군사들은 배 위에서 기운차게 용맹을 떨치며 창을 찌르고 칼을 휘둘렀고, 앞뒤 좌우의 각 부대는 깃발이 뒤섞이지 않을 정도로 질서가 엄격했다. 또한 쉰여 척의 작은 배들이 배 사이를 오가며 순찰하고 독려했다. 조조는 장대 위에 올라 이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승리할 방법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훈련이 끝나자 배들은 돛을 거두고 차례대로 진영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장막으로 돌아가 모사들에게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어찌 방통의 기묘한 계책을 얻었겠는가? 배들을 쇠사슬로 이어 놓으니 과연 강을 건너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그러자 정욱이 말했다.

"배들을 모두 사슬로 묶어 놓았으니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이 만약 화공을 펼친다면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정중덕, 그대의 생각이 깊기는 하나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려."

순유가 거들었다.

"중덕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웃으시는 것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무릇 화공을 쓰려면 반드시 바람의 힘을 빌려야 하는 법이다. 지금처럼 한겨울에는 서풍과 북풍만 불 뿐, 어찌 동풍이나 남풍이 불겠느냐? 내가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고 저들의 군사는 모두 남쪽 기슭에 있으니, 만약 저들이 불을 쓴다면 제 군사들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만약 음력 시월 소춘(小春) 무렵이었다면 진작에 대비를 마쳤을 것이다."

장수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님의 안목이 높으십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조가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청주, 서주, 연(燕)·대(代) 땅 출신의 병사들은 배를 타는 데 익숙하지 않다. 지금 이 계책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거친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그때 장수들 중에서 두 사람이 몸을 일으켜 나서며 말했다. "저희 두 사람은 비록 유주와 연(燕) 땅 출신이지만 배를 타는 데 능숙합니다. 지금 순찰용 배 스무 척을 빌려주신다면 북쪽 강어귀까지 가서 깃발과

북을 빼앗아 돌아오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쪽 군사들도 배를 잘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조가 그들을 살펴보니, 바로 원소 휘하의 옛 장수였던 초촉과 장남이었다. 조조가 말했다. "너희는 모두 북방에서 자라났으니, 배를 타는 것이 불편할까 걱정되는구나. 강남의 병사들은 물 위를 오가며 전투 훈련을 아주 익숙하게 해냈으니, 너희는 결코 목숨을 가벼이 여겨 장난치듯 행동해서는 안 된다."

초촉과 장남이 크게 외쳤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군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조조가 다시 말했다. "전투선들은 이미 모두 쇠사슬로 이어놓았고, 남은 것은 작은 배들뿐이다. 배 한 척에 스무 명 정도 탈 수 있을 텐데, 전투할 때 불편할까 봐 걱정스럽구나."

초촉이 대답했다. "큰 배를 쓴다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차라리 작은 배 스무 척 남짓을 내어 주십시오. 저와 장남이 각각 절반씩 이끌고 오늘 바로 강남의 수채에 도달하여, 반드시 적의 깃발을 빼앗고 장수를 베어 돌아오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좋다. 너희에게 배 스무 척을 내어주고, 장창과 강한 노를 갖춘 정예병 오백 명을 붙여주마. 내일 새벽에 큰 진영의 배들을 강 위로 내보내 기세를 세워두도록 하겠다. 또한 문빙에게도 순찰선 서른 척을 주어 너희가 돌아올 때 뒤를 받치게 하마."

초촉과 장남은 기뻐하며 물러갔다. 다음 날 새벽 네 시경에 밥을 짓고 다섯 시경에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일찍부터 수채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들이 모두 진영을 나와 강물 위에 흩어지니, 장강 일대에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뒤섞여 장관을 이루었다. 초촉과 장남은 정찰선 스무 척을 이끌고 진영을 뚫고 나와 강남을 향해 출격했다.

한편, 남쪽 기슭에서는 다음 날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듯 울려 퍼졌다. 멀리서 조조가 수군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보이자, 정찰병이 이를 주유에게 보고했다. 주유가 산 정상에 올라 살펴보니 조조의 군사들은 이미 훈련을 마치고 물러가고 있었다.

이튿날, 갑자기 다시 하늘을 뒤흔드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이 급히 높은 곳에 올라 살펴보니 작은 배들이 물결을 가르며 돌진해 오고 있었다. 병사들은 즉시 중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주유가 장수들에게 누가 먼저 나가 적을 막겠느냐고 묻자, 한당과 주태 두 사람이 동시에 나서며 말했다.

"저희가 선봉이 되어 적을 격파하겠습니다!"

주유는 기뻐하며 각 진영에 명령을 내려,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엄중히 방어하되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일렀다. 이어 한당과 주태는 각각 초소용 배 다섯 척씩을 이끌고 좌우로 나뉘어 출격했다.

한편, 초촉과 장남은 용맹을 믿고 작은 배를 저어 급히 달려왔다. 한당은 가슴에 갑옷을 갖춰 입고 손에 긴 창을 든 채 배 앞머리에 서 있었다. 초촉의 배가 먼저 도착하자, 초촉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한당의

배를 향해 화살을 마구 퍼부었다. 한당은 방패를 들어 이를 막아냈다. 이어 초촉이 긴 창을 휘두르며 한당과 맞붙었는데, 한당이 창을 내질러 초촉을 찔러 죽였다. 장남이 뒤이어 크게 소리치며 달려들 때, 옆에서 주태의 배가 튀어나왔다. 장남은 창을 든 채 배 앞머리에 버티고 서서 양옆으로 화살을 쏘아댔다. 주태는 한 손으로 방패를 들어 막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두 배 사이의 거리가 일곱여덟 자 정도로 가까워지자, 주태가 몸을 날려 단번에 장남의 배 위로 뛰어올랐다. 주태는 칼을 휘둘러 물속에 있는 장남을 베어 넘기고 배에 탄 군사들을 마구 베어 죽였다. 다른 배들이 급히 노를 저어 물러나자, 한당과 주태도 배를 몰아 추격했다. 두 부대가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마침 문빙의 배와 마주치게 되어 양측은 배를 나란히 세우고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한편, 주유는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산 정상에 올라 강북 수면을 바라보았다. 강 위에는 거대한 전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깃발과 띠들이 질서 정연하게 휘날리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보니 문빙이 한당, 주태와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한당과 주태가 힘껏 공격하자 문빙은 버티지 못하고 배를 돌려 달아났다. 한당과 주태 두 사람이 급히 배를 몰아 뒤쫓으려 하자, 주유는 두 사람이 적진 깊숙이 들어갈까 염려되어 흰 깃발을 흔들어 신호하고 장수들에게 징을 울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노를 저어 즉시 되돌아왔다.

주유는 산 정상에 올라 강 건너편에 가득한 조조의 전함과 수채를 바라보았다. 주유가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강북의 전함들이 마치 갈대숲처럼 빽빽하구나. 게다가 조조는 지략이 뛰어나니, 대체 어

떤 계책을 써야 저들을 격파할 수 있겠느냐?" 장수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조조의 진영 중앙에 있던 황색 깃발이 바람에 꺾여 강물로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주유가 크게 웃으며 외쳤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로다!"

상황을 살피던 그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며 강물이 거세게 파도치며 기슭을 때렸다. 한바탕 바람이 지나가며 깃발 끝이 주유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주유는 문득 어떤 사실이 떠올랐는지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선혈을 내뿜었다. 장수들이 급히 달려가 구했으나,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한때는 호탕하게 웃다가도 갑자기 비명을 지르니, 남군이 북군을 격파하기 어렵구나.

결국 주유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